

홍원 20년사

충현 20년사

1953~1973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교 회 연 혁

- 1953년 9월 6일 : 첫 예배(시내 인현동).
 1953년 9월 12일 : 김 창인 전도사 취임
 1953년 10월 26일 : 시내 총무로 5가 36번지로 교회 이전.
 1953년 11월 1일 : 유년주일학교 개교.
 1953년 12월 16일 : 초대 제직회 조직.
 1953년 12월 22일 : 강 진선 목사 초대, 당회장 취임.
 1954년 1월 17일 : 여전도회 조직.
 1954년 1월 24일 : 고 흥봉 목사 2대 당회장 취임.
 1954년 5월 8일 : 당회 조직.
 1954년 11월 21일 : 장 석인 목사 3대 당회장 취임.
 1955년 8월 8일 : 강 진선 목사 4대 당회장 취임.
 1955년 12월 17일 : 본관 준공예배.
 1956년 8월 12일 : 동일교회를 충현교회로 개칭.
 1956년 8월 16일 : 전 칠홍 목사 5대 당회장 취임.
 1957년 1월 2일 : 남전도회 조직.
 1957년 9월 7일 : 김 창인 목사 6대 당회장 취임.
 1958년 9월 30일 : 김 창인 목사 위임식.
 1961년 9월 28일 : 별관 준공.
 1963년 9월 19일 :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 예배.
 1963년 9월 25일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가입.
 1968년 9월 3일 : 교회 설립 15주년,
 김 창인 목사 성역 31주년 기념 예배.
 1968년 9월 15일 : 경기도 광주에 교회표지 43,530평 매입.
 1968년 11월 24일 : 해외복음 선교회 조직.
 1970년 9월 24일 : 당회장 김 창인 목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55대 총회장에 피선.
 1970년 12월 30일 : 교회 신축대지 9천평 매입.
 1971년 9월 9일 : 서 만수 선교사 내외 인도네시아로 파송.
 1972년 12월 16일 : 재단법인 충현동산 보사부 허가.
 1973년 3월 25일 : 교역자 및 제직 정년제 제정.
 1973년 7월 29일 : 충현성경학원 설립.
 1973년 9월 6일 :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예배.



당회장 김 창 인 목사

약 력

- 평북 의주 출생
- 1917년 11월 18일 생
- 고려신학교 졸업
- 의주군 주내면 청전교회 시무
- 용천군 동상면 성동교회 시무
- 의주군 월화면 추봉교회 시무
- 1939년 신사참배 반대 성명서 만주 등지로 은거중 8·15해방
- 평북 만포읍교회 설립
- 황주읍 재건교회 설립
- 서울 장충재건교회 설립
- 부산 서부교회 시무
- 부산 동일교회 설립
- 서울 충현교회 설립
- 경인노회장 역임
- 전국 경무 위원장 역임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역임
- 충현교회 당회장(현재)

장 로

공로장로



강 지순 장로



오 중락 장로

사무장로



우 성원 장로



김 천준 장로



한 명복 장로



김 광철 장로



황 기성 장로



위 연한 장로



허 준 장로



조 현명 장로



김 한열 장로



송 순일 장로



윤 종순 장로



김 기정 장로



전 회문 장로



윤 종성 장로



김 참배 장로



임 광식 장로



임 현덕 장로



최 석주 장로



신 계택 장로



이 창준 장로



이 동규 장로



오 승호 장로



황 참호 장로



이 태규 장로

증경장로



조 진연 장로



이 봉섭 장로

교역자

부목사



백 성홍 목사



김 재창 목사



정 상우 목사



김 종택 목사



천 성덕 목사



정 기성 목사



정 관일 목사

남전도사



홍 종만 전도사

공로전도사



김 연순 전도사



이 명달 전도사

여전도사



차 진형 전도사



이 두란 전도사



최 순복 전도사



강 봉선 전도사

교육전도사



지 우목 전도사



노 의일 전도사



정 연희 전도사

안수집사

피택장로



윤 두한 집사



이 창업 집사



박 창수 집사



이 응선 집사



윤 용규 집사

안수 집사



문 인택 집사



공 용빈 집사



김 도전 집사

권사

명예권사



김이순 권사



이계옥 권사



최경한 권사



김초인 권사



김정수 권사



김학이 권사



김연일 권사



양순화 권사

사무권사



이창욱 권사



구경숙 권사



김대복 권사



윤수현 권사



이성애 권사



계수익 권사



이옥순 권사



임현복 권사



박순은 권사



김봉재 권사



김선복 권사



김애채 권사



이학주 권사



조순호 권사



홍순복 권사



김순철 권사



김윤성 권사



문정애 권사



박용주 권사



박봉주 권사



이재룡 권사



전정숙 권사



김능복 권사



김영화 권사



이명자 권사



장문순 권사



최무비 권사



최정자 권사



김정옥 권사



박호소 권사



이영주 권사



이춘식 권사



전성조 권사



김정숙 권사



민원옥 권사



박성기 권사



이분전 권사



이신주 권사



이희연 권사



지소저 권사



김란희 권사



김상권 권사



김의저 권사



김춘선 권사



백인숙 권사



서상연 권사



양정백 권사



윤옥진 권사



임지석 권사



허미주 권사



김용례 권사



김정임 권사



김화련 권사



나화봉 권사



박경복 권사



안윤진 권사



유미희 권사



이곤녀 권사



이외열 권사



이운호 권사



정봉조 권사



<설립당시의 천막교회>



<설립당시 동일의 등대>



<I·II 부 예배가 바뀌는 순간>



<오늘의 우리 예배당의 모습>



<초기 건축때의 교우들>

(오른쪽부터: 김 천준 집사·정 현경 양·김 창인 전도사·
윤 실관 전도사·김 상철 집사)



당 회

<중요한 일들이 토의되는
당회의 광경>



남전도회

<장충단공원에서
전도하는 모습>



<성경퀴즈대회에서의
회원들>

여전도회



<여전도회의 야외예배 날에>



<장항교회에서>
(그곳 교우들과 같이)



<동현교회의
웅장한 모습>



<장락교회의 헌당식날 예배당>



〈서 만수·정 영옥
선교사 내외분〉



〈해외복음선교회
회의하는 모습〉



〈서 만수·정 영옥 선교사가 출국하는 날(김포 공항)〉



〈본 교회가 보내 준
선교사용 지프차〉
(서 선교사가 앞에
서있다)



〈마카사에서 부흥집회 광경〉



〈마카사부흥집회 때의 서 선교사의 모습〉



〈훈련중인 두 선교사
후보생〉
(이 중,영 전도사
내외분)



〈결신자들을 위해 특별기도하는 서 선교사〉



국회교회 지도자 양성부 제1기생 수료기념, 1972. 7. 30.

<지도자 양성부 제1기생을 내고>



<농어촌교회 전도요원
훈련>(지도자 양성부)



<성경공부에 여념이 없는 모습>(장년부)



<해마다 갖는 경포회> (청년부)



<하기수양회 어느날의 순간> (고등부)



<성경공부를 조별토의로> (대학부)



〈반별 찬송부르기대회날에〉
(초등부)



〈병원전도에서의 다정한 대화〉
(중등부)



〈분반 공부중인 어린이들의 모습〉
(유년부)



〈반별 친목회를 남산공원에서 갖고〉
(초등부)



〈새로 오는 어린이를 맞는 모습〉
(새선자부)



〈성탄연극에 열열을 보여주는 꼬마들〉
(유치부)

성 가 대



〈성단 축하 예배를 보고 나서〉(여성성가대)



〈대 예배시에 찬양하는 모습〉(청년성가대)



〈성탄 축하 예배 마치고〉(대학부성가대)



〈즐거운 크리스마스날에〉(고등부성가대)



〈성탄 맞이 음악예배 후〉(중등부성가대)



〈우리들은 꼬마성가대〉(유치부성가대)



〈예쁜 목소리로 찬양
하는 귀여운 모습〉
(유년부성가대)



〈은구슬 굴리듯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초등부성가대)



〈충현동산에서 추모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충현 20년사」를 내면서

1953년 18명으로 시작된 「충현」은 1973년 9월 6일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교회는 예배·교육 및 국내의 전도를 위한 설비와 규모의 확충·강화의 원대한 계획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기하면서 충현 20년사를 출간하는 바입니다. 이 간행사업의 기본계획과 그 추진을 위하여 본 편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금년 7월 10일의 일이며, 이에 비로소 자료의 수집·정리와 원고 집필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 20년사는 우리교회 설립과정부터 성전 건축, 주일학교 교육, 국내 및 국외의 전도활동 등에 대한 20년간의 발자취와 각기관의 발전과정을 대략 엮고 충현의 현재 상황과 내일을 향한 충현의 미래도까지 엮었습니다.

6·25 동란으로 인한 피난·소개(疎開) 등으로 격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지 않으시고 서울 수복에 앞서 충현교회를 싹트게 하여 주시고 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로 발전하게 하여 주셨으며, 이 과거 20년간의 충현의 역사는 그것이 비단 한 교회의 역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로 한국 교회사의 지나온 도표(道標)가 됨직도 한 것입니다.

홀어지고 분실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세심하고 정확한 기술(記述)을 기하여 충현의 전통을 부각(浮刻)시키고, 나아가서 한국의 교회 사명의 명맥을 바로잡아야 할 이 거창한 사업을 불과 2개월간의 노력으로 그 완수를 기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극히 흠족하지 못하고 미비하고 간략한 것으로나마 하나의 책자로 출판하게 되기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관계인사의 직접·간접의 협조와 격려에 힘입은 바 크며, 또한 실제 자료의 수집·정리와 편집·원고작성 및 교정을 분담했던 편집원·집필원 여러분의 애쓴 노력이 숨어 있어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책의 엮음에 있어, 제반 사정으로 인하여 빠뜨림·틀림을 범하였을지도 모르는 점에 관해서는 널리 이에 대한 정정을 기다려 후일의 보탬과 바로 고침을 기하려 합니다.

1973년 9월 6일

충현 20년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윤 중 순

□ 차 려 □*****

표지글씨 : 황 기성 장로

〈교회 연혁〉	6
〈화보〉 충현의 이모저모	7
〈발간사〉 「충현 20년사」를 내면서	25
〈기념설교〉 신령한 예루살렘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30

제 1 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제 1 절 설립되던 때의 형편	33
제 2 절 설립하게 된 동기	33
제 3 절 설립까지의 과정	34

제 2 장 발 전

제 1 절 충현 20년의 발자취	37
1. 성전 건축	37
(1) 본관이 준공되기 까지	37
(2) 별관이 준공되기 까지	40
(3) 새 성전 건축계획	42
(4) 새 교육관 건축계획	44
2. 주일학교	44
(1) 형성기	46
(2) 발전기	46
3. 전도사업	52
(1) 국내 전도	52
(2) 국외 전도	55
제 2 절 기관 및 사업	59
(1) 당 회	59

(2) 제직회	59
(3) 구역 권찰회.....	60
(4) 전도부	61
(5) 남전도회	61
(6) 여전도회	63
(7) 해외복음선교회	65
(8) 성가부	67
① 청년성가대	67
② 여성성가대	68
③ 학생성가대	69
(9) 재정위원회	71
(10) 건축위원회	71
(11) 충현동산 관리위원회.....	72
(12) 교육위원회	73
(13) 주일학교	75
① 새신자부	75
② 유치부	75
③ 유년부	76
④ 초등부	77
⑤ 중등부	77
⑥ 고등부	78
⑦ 대학부	79
⑧ 청년부	80
⑨ 장년부	82
⑩ 지도자양성부	82

□ 차 례 □*****

(14) 충현성경학원.....	83
(15) 교회 기관지 「충현」.....	84

제 3 장 현 황

〈충현교회 조직〉.....	86
1. 당 회	87
2. 교역자	87
3. 제직회	87
4. 구역권찰회	90
5. 전도부	92
6. 남전도회	92
7. 여전도회	92
8. 해외복음선교회	93
9. 교육위원회	93
10. 주일학교	93
11. 성가부	98
12. 재정위원회	99
13. 건축위원회	99
14. 충현동산관리위원회	99
15. 재단법인 충현동산	100
16. 교회 기관지 「충현」.....	100

제 4 장 내일을 향한 충현의 청사진

제 1 절 교육(주일학교)	101
제 2 절 선교(해외복음선교)	105

부 록

○ 역대 당회장	109
○ 역대 교역자	109
○ 역대 장로	110
○ 증경 장로	112
○ 역대 안수집사	112
○ 역대 권사	112
○ 개척교회 일람	114
○ 연도별 성가부장 · 지휘자 · 반주자	115
○ 각종 통계와 도표	
① 제직원 통계	118
② 지역별 교인 통계	119
③ 집회인원 주평균 통계	120
④ 연도별 교인수 변동도표	122
⑤ 지역별 교인현황도표	122
⑥ 성례식 통계	123
⑦ 주교 각부 교사통계	124
⑧ 주교 각부 졸업생 통계	125
⑨ 주일학교 교사 · 학생 재적수 통계	126
○ 교회설립 기념행사	127
① 10주년 기념행사	127
② 15주년 기념행사	128
③ 20주년 기념행사	128
○ 교회 주요 일지	131
○ 편집 일지	140
○ 편집 후기	141

신령한 예루살렘인 교회를 사랑합시다

성경/시편 122 : 1~9

당회장 김 창 인 목사

1973년 9월 6일 우리 충현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여러분과 함께 「신령한 예루살렘인 교회를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받기 원합니다.

예루살렘(평화의 성)이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의 수도(首都)입니다. 둘째 신령한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세째 말세의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자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여야 할 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주님이 피흘려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입니다.

택함을 받은 천국 시민을 키우는 신령한 목장입니다.

천국 일꾼을 키우는 신령한 학교입니다.

십자가의 정병을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영적 상처를 치료하는 신령한 병원입니다.

하나님을 면회하는 성소(聖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온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소(支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자라며 진리를 배우고 훈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을 호흡하는 땅위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노릇을 바로 하며 복 받으려면, 자기 가정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남편·아내·자녀는 절대 탈선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 서로 위로하며 정성을 쏟아 어려울 때는 서로 앞서 희생·봉사함으로써 그 가정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웃음 속에 성공의 열매를 맺어 천국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지식·권세·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잘 생겼든 못 생겼든 자기 가정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의 가정은 벌써 하나님을 떠나 서로 오해와 불평과 헐뜯음으로 결국 그 가정은 한숨의 별판이요 짐승이 울부짖는 황무지요 가슴마다 지옥불이 뿔뿔 타오르는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훈을 따라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또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듯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되고, 십일조를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며, 성도끼리 서로 너그러이 용서하며, 화목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의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땅위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높여 영광롭게 하는 성도의 성공이 있으며, 가문을 빛내는 인간적 성공이 있고, 자신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천국을 이루는 천국 백성의 땅위의 성공자로 하나님께는 칭찬과 상급을 받고, 사람에게에는 존경을 받는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령한 예루살렘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첫째 나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나의 집보다도 교회의 건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매일 세 번씩 기도한 다니엘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짓기 위하여, 교회의 질적 양적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째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과 행동에 조심하며 나의 욕심과 혈기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좇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일조를 비롯하여 나의 재산과 시간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정성껏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일을 생각하고 일하며 죽기로 결심하여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

우리 모두 내 가정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정당한 인격자가 됩시다. 내 교회를 참 사랑할 줄 아는 귀한 성도가 되어 자신과 가정과 우리교회가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천국을 이루어 나아갑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과 육의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돌리며 교회는 귀한 덕을 세우고 성도들 끼리는 서로 자라감이 되어 몸의 건강, 마음의 평안, 영혼의 천국을 숨쉬는 성공자·승리자들이 되어 세상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천국의 복을 호환하시다가 우리 신랑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신부의 세마포옷을 입고 손에는 기름이 가득한 등불을 밝혀 들고 할렐루야 찬송을 드높이 부르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1 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제 1 절 설립되던 때의 형편

6·25 사변을 통하여 우리 겨레가 받아야 했던 아픔은 너무나 컸다. 3년 간에 걸친 이 전란으로 말미암아 거의 2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 혹은 행방불명이 되었고, 약 66만호나 되는 가옥이 불타버렸으며, 주요한 공장들이 거의 파괴되어 생산이란 별로 없고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심해져서 생활난이 극심하였다.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그들의 부모를 잃고 거리를 방황하였다. 남편을 잃은 여인, 혹은 가족을 잃거나 갑작스런 피난 등으로 흩어진 가족들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이러한 겨레의 고통은 곧 나자신의 고통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기독교가 받은 손실 그 비극의 깊이는 그야말로 엄청났다. 공산당에 대항하던 충성된 주님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으며, 손 양원·김익두 목사 등 저명한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납치되어 행방을 알 길이 없게 되었다. 이 사변을 겪으면서 파괴·손실된 교회수는 장로교만 해도 152교회에 순교하거나 납치당한 사람이 177명이 되었다.

이에 못지 않게 안타까운 것은 6·25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족 분열의 참화에 가슴치며 울어야 했고, 또한 민족과 함께 교회도 분열의 결과를 낳아 버렸다. 외국의 여러 교파에서 밀어닥치는 군소교파의 선교, 자유주의 신학의 대두 등으로 교계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하나의 장로교회로 출발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 속에서도 굳게 뭉쳐 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1953년 6월까지 즉 6·25를 기해 3파로 나뉘어 분열의 역사를 교회사에 기록하고 말았던 것이다.

제 2 절 설립하게 된 동기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영육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다. 겨레가 슬퍼할 때 성도가 즐거울 까닭이 없고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회가 평안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존 칼빈」도 교회와 국가를 두 눈에 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진정한 국가 사이에는 희로애락(喜怒哀樂)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뼈저리게 느껴 왔던 것이다.

36년 동안이나 일본 제국주의 아래서 피압박 민족으로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의 앞서간 성도들은 고귀한 신앙의 수호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달게 받았을 뿐더러 순교까지도 사양치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였지만, 혼돈과 무질서한 행위의 결과로 다시 6·25의 쓰라림을 면치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애굽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것은 인간의 종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셨던 것처럼, 부산 앞바다에 밀려 빠졌어야 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를 서울로 다시 돌려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고 크신 뜻이 있었다.

이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뼈아프게 체험한 성도들이므로, 옛날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울에 오는 즉시 성전을 수축하겠다는 뜨거운 정성은 서울 장안의 곳곳에 십자탑을 높이 세움으로써 그 수가 동탄 전보다 배를 헤아릴 수 있게 했다.

이리하여 초토화된 남산 동북 기슭인 목정·오장·쌍림동 일대의 음란과 방탕한 소굴에도 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20년 전 보기에조차 하였던 동일의 등대요, 오늘의 충현교회의 전신이었던 것이다.

제 3 절 설립까지의 과정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를 성명하고 만주에서 5년 동안 망명생활을 한 바 있는 한 전도사가 있었다. 8·15해방과 함께 북한에서 교회 재건운동을 벌였지만 공산주의자들의 방해와 온갖 감시에 부딪히자 1948년 12월 3일 북한을 탈출, 월남하였다. 그가 바로 30대의 젊은 주님의 종인 김 창인 전도사였다.

1949년 1월 3일 서울 장충동 2가의 한 모퉁이에서 십령부흥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이 때의 강사는 김 창인 전도사로서 이 부흥회를 계기로 장충교회가 세워졌으나, 이듬해 우리 겨레 앞에는 고난의 6·25동란이 엄습하였다. 아끼고 가꾸어 온 양떼들도 비운의 1·4후퇴시에는 흩어져 가야만 했고 눈물로 지켜 온 성전마저 뒤에 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산에 내려간 김 창인 전도사는 1951년 4월 서부교회 담임으로 시무하다

가, 다시 뜻을 같이하는 교인들과 더불어 1952년 6월 28일에는 부산시 동대 신동 1가에 대지 99평을 구입하고 72명의 성전 신축에 착공, 그 해 11월 22일 완공을 보았는데 그것이 지금의 부산의 동일교회로서 이 교회 설립에 헌신한 역군들 중 많은 수가 후일 서울의 동일교회를 세우게 한 충성된 중들이 되었다.

1953년 늦은 봄 수복의 기운이 점점 익어 감에 따라 그곳 피난민 성도들도 서울로 돌아갈 준비에 바빴을 때, 김 창인 전도사를 중심으로 한, 교인들의 수복대책도 활발하여 당시 김 천준 집사를 먼저 상경시켜 교회설립 기지 물색을 위촉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장충교회 교인들도 이에 뜻을 같이하여 장충교회 건물을 정리함으로써 새로 지을 교회기지 자급에 충당하게 되었다.

1953년 8월 하순 시내 성동구에 있는 성산교회에서 2차에 걸쳐 동일교회 설립준비위원회가 모여 김 천준·이 학주·홍 수정·이 창옥·한 명덕 등 여러분이 그 위원이 되었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숨은 봉사가 오늘의 중현교회를 싹트게 하였다. 1953년 9월 6일(주일) 한 명덕 집사 때 2층에서 드린 첫 예배에 참석자들은 18명으로서 홍 수정·김 천준·원 경식(이상 남) 한 명덕·이 학주·제 수익·성 귀명·김 인덕(이상 여), 남학생으로 김 성주 외 6명과 여학생 박 경숙 외 2명이었던 것이다.

◇ 우리교회 성구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 : 1)

제 2 장 발 전

제 1 절 충현 20년의 발자취

1. 성 전 건 축

(1) 본관이 준공되기까지

1953년 ! 폐허된 서울 거리에는 겨레의 설움을 안은 초가울이 찾아왔다. 삶을 이어보려고 허둥지둥 남쪽으로 떠났던 사람들은 정부가 서울로 환도함에 따라 다시 발길을 돌려 서울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한강을 건너오게 되었으며 모여든 우리 교우들은 이곳 서울에서 다시 만남의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다.

① 마가의 다락방 같은 예배처

그 당시 김 천준 집사를 비롯한 18명은 1953년 9월 6일(주일) 중구 인현동에 자리잡은 한 명덕 집사 댁 2층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들은 그 첫 예배에서 새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고 이 나라의 평안을 기도하는 한편, 이 교회의 앞날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간절히 빌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교회는 그동안 물색중이던 대지(현 충현교회당의 일부) 310평과 건물 19평(현 별관 위치)을 65만원에 계약하고 계속 기도하며 더욱 분발하던중에 김 창인 전도사가 서울로 돌아옴에 따라 1개월 후인 10월 11일 현재 그 수가 60명으로 증가하여 을지로 2가 이 창옥 원사 댁으로 예배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두 주일 뒤인 10월 26일, 마침내 지금의 장소인 충무로 5가 36번지로 이전했던 것이다.

② 극장·요정 자리에 선 성전

공교롭게도 이곳은 일본정치 때엔 조일좌(朝日座)란 극장이 자리잡았었고,

그 뒤 장충각이라는 유명한 요리집이 있다가 불타버린 곳이다. 바로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진리 등대인 오늘의 「충현 제단」이 우뚝 그 웅장한 모습을 나타낼 줄이야 그 누가 알았으랴.

교회는 10월 26일 새로 구입한 14명의 건물로 이사하고, 기쁨과 감사의 첫예배를 드렸는데 그 날이 10월 28일(수)이었다. 그후, 교회는 제직회에서 의뢰한 본관 설계도를 같은해인 11월 1일 인준하였으며, 11월 말 현재 집회 수는 110 명으로 증가함으로써 14 명의 건물에 60여명의 연쇄천막으로 임시 대책을 세우는 한편, 같은해인 12월 12일에는 새 예배당을 지어보려는 부흥 희망과 포부 속에 예산 3,600만원으로 전평 104 명의 역사적인 본관 건축에 임했던 것이다. 그러나 때가 겨울철이고 계속 증가되는 교세는 12월 말에 장년 163 명, 유년 121명이나 되어 건축공사에 더 한층 긴급성을 띄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재원(財源) 및 자재 확보를 위해 온 교우들이 끊임없는 기도와 정성의 헌금을 하였던 것이다.

③ 어려움에 부딪히는 건축공사

한가닥 통일예의 소망이 휴전이라는 민족적인 절망과 전쟁의 상처에 찢기고 무너진 영혼과 육신 그리고 눈물겹던 이 땅의 애절한 사정들이 한숨과 함께 해가 저물어버리고 영육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새해가 돌아왔다. 1954년을 맞은 교회는 커다란 희망을 안고 새로운 조직과 사업을 계획하면서 1월 24일 제직회에서는 건축실행위원들을 임명하였다. 다시 2월 7일 주일에는 새 성전을 위한 특별헌금을 작정케 하였는데 그 날 정성으로 모은 헌금만도 37,000원이었으며, 이미 작성되었던 건축설계도를 수정·재작성하는 것과 함께 임명된 건축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건축실행위원회에는 위원장 강 지순, 부위원장 우 성원, 서기 김 천준, 부서기 성 장수, 회계 최 재성, 부회계 장 리영, 위원 김 기환·반 선관 등 여러분이었다. 이 후에, 교회건축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진행 등 모든 일을 위의 건축실행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워낙 방대한 건축사업이었으므로 재정에 있어서는 여간 곤경을 겪지 않았다. 200여명의 교우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한편, 정성을 모아 특별헌금과 수시헌금으로 충당하여 오던 중에, 그 해 2월 28일 부산 동일교회가 보내온 특별 연보 47,000환의 전달로 많은 힘과 위로를 더하게 되어, 건축의 기초적 공사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같은해 9월 5일 주일에는 장년 328명, 유년 129명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10월에는 기초공사의 착공 및 기공예배를 드리게 되어 바야흐로 건축공사는 본 궤도에 올랐던 것이다.

한편, 같은해 11월 7일 건축실행위원회는 회계 최 재성 장로가 물러나고 황 기성 집사가 선출되는 등 인사이동이 있었고 12월 1일에는 진전하는 건축공사에 정초(定礎)예배를 드리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이 해도 저물어 다가온 추위 때문에 건축사업은 일단 중단되어 다음 해에 계속될 공사의 준비 기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④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당

1955년에 들어서서도 물론 건축공사사업은 계속되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은 원만한 공사상의 진행을 방해하여 교우들은 하나님께 더욱 호소하며 어떤 이는 연보로, 어떤 이는 노력과 봉사로 최선을 다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은혜의 손길을 펴셨다. 그 해 4월, 당시 미 8 군부대 군목과에 근무하던 우리교회 교인 정 현경 양의 주선이 성공하여 미군 후방기지 사령관 「메이커」 소장으로 하여금 미화(美貨) 15,000달러의 헌금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일체 자재(資材)로 약속되어 그 해 6월에 시멘트 8,300포대가 들어오는 등 건축자재 확보에 큰 힘이 되었다.

같은해 7월 24일에는 대지 38명과 건물 1동을 교환·정리하였으며 이 건축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제직회는 건축실행위원회를 개편·임명하였는데, 그 임원들은 위원장 최 재성, 부위원장 김 천준, 회계 황 기성, 서기 김 상철, 위원 우 성원·박 창근·강 지순·김 광철·이 연숙 등 여러분이었다.

1955년도 가을이 저물어 갈 무렵, 그 동안 새 임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교우들의 정성어린 기도의 후원은 마침내 10월 10일 감격에 넘치는 찬송으로 상량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으며, 온 교우들의 정성어린 간구와 헌신은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여 드디어 11월 6일 300여명의 교우들이 본관에서 처음으로 헌당식 감사예배를 드렸고 착공에서 2년 6일만인 1955년 12월 17일에는 연건평 294평의 크고 우아한 성전을 총공사비 3,600만원으로 그 준공을 보았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었으며 그 때의 교인수는 장년 567명과 유년 325명이었던 것이다.

우리교회의 예배당은 그 종각이 총마다 아아치모양으로 특색을 이루고 있으며, 오르내리는 구름다리가 나사모양인 것은 솔로몬의 성전(왕상 6:8)을 상기하였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숨어 있다.

우리교회는 처음 「동일교회」(東一敎會)란 간판이 붙고 그렇게 불렸지만 그 이름이 사이비교단 통일교회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어, 마침내 고치기로 결정, 1956년 8월부터 「충현교회」(忠峴敎會)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교회 예배당이 충무로와 야현동의 사이에 위치했대서 충무로의 「충」자와 야현동의 「현」자를 각기 따서 붙인 것인데, 「충성된(忠) 고개(峴)」 위에 세워진 세대의 등대로 풀이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별관이 준공되기까지

① 차고 넘치는 학생 예배

본관의 완성을 본 1955년말 이후 1961년 새해를 맞기까지 약 5년 동안에 계속 부흥·발전하는 교회는 날로 교인의 수가 격증하여 장년이 754명으로 본관은 이미 차고 넘쳐 어린이들과 중·고등 학생들의 예배 장소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기도하는 중 다시 힘을 얻은 교회는 별관 신축기금 확보를 위한 특별헌금을 제직회에서 가결시켜, 먼저 제직이 2월 26일에 일반 교우는 3월 5일에 각각 헌금하였다.

1961년 2월 19일, 제직회에서는 건평 180평(지하실 포함), 공사비 2,600

만환 예산으로 별관신축을 가결하고 즉시 건축 설계도를 우선 전문가에 위탁하여 같은해 3월 5일 설계비 25만환을 들여 별관설계도를 완성케 하였다.

이 일을 위한 온 교우들의 합심 기도와 정성어린 헌금은 드디어 건축실행 위원회를 임명케 되고 건축사업을 운영케 하였는데 그 임원들은 위원장 김천준, 부위원장 홍수정, 서기 김기정, 회계 오중락, 위원 우성원·김기원·위영환·유병양·이현실·유앵손 등 여러분이었다.

별관 건축공사는 이미 작성·완료된 설계에 따라 3월 12일부터 정지(整地)공사와 기초준비공사가 시작되었고 3월 20일에는 건축대지 불하수속도 완결되었으며 자재로 시멘트 2,100포가 들어와 기초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해 3월 24일에는 지하실 토굴작업이 정리되었고 4월 1일에는 목재·벽돌 등이 대량 확보됨으로써 공사는 급진적인 진전을 보았다.

같은해 4월 27일에는 3층 슬라브공사가 시작되면서 본관 동쪽벽을 헐어 예배석을 증설케 하고, 5월 7일의 제직회는 건축실행위원을 다시 보강 임명하였던 것이다.

같은해 5월 12일에는 3층 슬라브가 완성 단계에 들어갔으며, 한편 내부 미장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5·16혁명이 일어나 제임령이 선포되어 이에 따른 모든 통제로 성전건축공사가 전반에 걸쳐 지연되었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 및 헌금은 이 난관을 능히 극복하여 본관 건축 때와는 완전히 다른 융성한 교회의 기세를 과시하였다. 곧 그해 7월 1일에는 4층 상량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달 27일 즈음엔 본관 서쪽에 목사관 3칸, 여전도사 사택으로 2칸, 사찰실 3칸 및 창고용으로 2칸 정도의 연26평 연쇄건물도 시공케 되었으며, 같은해 9월 28일에는 드디어 연건평 180평, 총공사비 약 3,000여만환의 4층 별관이 완공되었던 것이다.

이 날은 마침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복기념일이었으며, 성도들의 기쁨은 측량할 길이 없었다. 당시 교인수는 장년 830명, 중·고등 145명, 유년 360명으로 증가하였으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않을 수 있으랴.

② 변소가 준공되기까지

원래 이 변소공사는 1961년 2월 5일 별관건축과 함께 건축키로 했었다. 그러나 별관공사시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동시 진행을 못한 채, 그 해 9월 별관공사는 일단 끝났고 다음 해 사업으로 미루어졌다.

1962년 4월 1일 제직회에서는 다시 이 변소건축을 위해 연건평 10평, 예산 200만원으로 건축공사를 가결하고 그 해 5월 22일부터 착공하기에 이르렀다. 재정 조달은 그 해 5월 23일 특별헌금을 실시하고 그 뒤 교우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계속적인 헌금으로 충당하였더니 그 해 5월 26일에는 자재확보를 마치고 5월 28일부터 지하탱크공사가 착수되었다.

공사는 그 후 순조롭게 진행되어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6월 10일(주일)에 또다시 뜻하지 않은 화폐개혁령의 공포가 있었다. 곧 그 날이 주일이었고 그 날로 신화(新貨) 교환을 위한 신고를 끝내게 되어 있었는데 성수주일(聖守主日)에 철저한 우리교회로서는 일체의 신고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다음 날, 관계 당국에 호소해 보았으나 당국은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힘을 다해 기도하는 중 진행하던 변소공사는 마침내 7월 30일 철근콘크리트 벽돌건물 10평의 새로운 변소가 완성되었고, 역시 뜻하지 않게 동결되었던 구화(舊貨)도 정부당국의 추가신고 허락으로 교환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을 감사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교회 구내공사의 모든 일은 일단락짓게 되었으며, 성령의 역사로 계속 부흥되는 교회는 그 해 12월 16일 현재 교인수 장년 1,060명과 중·고등 199명 그리고 유년 706명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3) 새 성전 건축계획

교회설립 10주년을 맞는 1963년 초에 이르러, 교회는 더욱 부흥하여 교인

수가 증가되었다. 1월 6일 제직회는 이에 대비하여 앞으로의 교회 증축을 목표로 이웃 가까운 지대에 대지구입을 가결하고 물색하던중 교회당 서쪽에 인접한 연 62평, 3층 건물을 그 해 3월 11일 270만원에 계약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초과된 이 건물구입은 시대적 경제사정의 악조건으로 곤경을 면치 못하였으나 온 교우들의 굴하지 않는 기도와 정성어린 헌금은 그 해 8월 2일 드디어 전액을 완불하게 되어 우선 목사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토록 어려운 가운데 1963년 64.3평의 대지를 구입한 데 끝이어 1964년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대지 39.78평을, 1967년에 45.13평의 대지를 구입하게 됨으로써 성전 건축에 알맞는 긴 비모꼴의 대지가 마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교회가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며 계획한 두 가지 큰 사업중의 하나는 새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이었다. 중단함이 없이 자라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할 우리교회로서는 이미 지어진 시설만으로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부흥 일로로 치닫는 주일학교의 교육장소문제는 머지않아 다시 대두될 것이다.

그리하여 교회는 성전 건축부지를 한강수 이남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 후 보지를 물색중 1970년 12월 말에 성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야산 9,000 평을 6,500여만원에 구입하고 1971년 9월 시(市)당국으로부터 환지 예정지계획이 공표되어 논현동과 삼성동에 걸쳐 6,067평 4홉의 단일경내로 하는 환지가 확정되었다.

그런데 1970년 후반부터 1972년까지 영동2지구에 집중적으로 정지작업을 단행할 예정이던 서울시는 재정사정과 제반 형편으로 지연시켜 자연 우리의 성전부지의 정지작업이 늦어지게 되었으며 새 성전 건축은 1974년 후반기 이후에야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일을 위해 현재 건축기금으로 1,000만원 가까이 적립했고 온 교우들이 기금조성에 기도와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터이다.

(4) 새 교육관 건축 계획

앞서에서 지적했듯이 새 성전 건축계획이 다소 지연되는 속에서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수는 계속 그 숫자가 늘고 있어, 현재의 4층 별관만으론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교육관의 증축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교회로서는 교육관의 문제는 어떤 애로가 따르더라도 해결해야겠다는 의도 아래 1973년 설립 20주년을 계기로 하여 현 교회당 서쪽의 사택들을 전부 철거하고 후면은 본관에 붙여 신축하기로 하였다.

교육관(5층, 연건평 486.3평)에는 주일학교 교실은 물론 대예배실의 확장, 종합 사무실·교역자실·당회실 등을 설치하여 다용도(多用途) 건물로 계획, 4,000만원 예산으로 건축하기로 하여 당국에 건축허가를 신청중이지만 주위의 여건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온 교우들은 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선정된 새 교육관 건축위원은 위원장 위 영환, 서기 이 응선, 회계 임 광식, 위원에 김 천준·우 성원·김 광철·김 기정·임 현덕·공 용빈·양 춘선·심 인경·임 현복·김 봉재 등 여러분이다.

2. 주 일 학 교

(1) 형성기/1953년~1963년

1954년 5월 8일 하오 3시 본 당회 창립으로 최 재성 장로 댁에 회집하여 당회장 고 홍봉 목사 사회와 기도로 개회하다.

출석원 고 홍봉·강 지순·우 성원·최 재성·(김 창인).

당회 서기를 결(決)하니 최 재성 장로가 피임되다.

최 재성 장로 기도로 폐하니 3시 20분이더라.

회장	고	홍	봉
서기	최	재	성

위의 글은 우리교회 당회창립 당회록 전문이다.

그러나 당회가 구성되기 전인 1953년 12월 12일 이미 본관 건축공사가 시

작되어 있었으며 교인 출석수는 장년이 160여명에 유년이 120여명이나 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6개월 전인 1953년 11월 1일에는 6명의 학생으로 유년주일학교가 개교되어 교장에 김 창인 전도사, 부장에 최 재성 장로, 부감에 홍 수정 집사로 조직되어 어린생명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또한 중·고등 학생들의 활동도 활발하여 1953년 9월 교회가 설립되자 제일 먼저 학생성가대를 조직하여 1954년 11월 청년성가대가 발족되기까지 대에 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었다. 같은해 11월 24일에는 중·고등 학생으로 구성된 「기독학생회」가 조직되어 학생 지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김 창인 전도사가 직접 지도하게 되었다.

새해를 맞는 1954년에는 유년주일학교 교사 8명이 처음으로 임명되어 주일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개교 1주년 후인 1954년 말에는 학생이 개교시 6명에서 133명이라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

1955년 3월에는 충현교회 주일학교로서는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유년부 부흥회가 5일간 김 주오 장로를 강사로 열리어 힘있게 타오르는 부흥의 불꽃은 한층 더 북돋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1955년 말에는 유년주일학교 학생수가 263명으로 증가되고 처음으로 40명(남 15, 여 25)의 졸업생을 내었다. 교사수도 또한 학생의 부흥에 맞추어 8명에서 35명으로 대폭 증강되었으며 「새싹회」라는 어린이 면려회 활동이 시작되었고, 어린이 성가대가 조직되어 어린이 예배를 돕고 있었다.

1956년이 되면서 황 해성 장로를 초대 부장으로 15명의 교사와 함께 장년 주일학교가 개교되었으며 또한 26명의 회원으로 청년면려회가 조직됨으로써 주일학교 교육의 폭은 더욱 넓어졌으나, 규모에 비하여 지도 교역자의 수는 남전도사 3명(김 창인·홍 신균·김 지화)과 여전도사 1명(김 연순)으로서 지도 교역자가 부족하여 4월에는 학생회 지도로 최 훈 전도사를 맞았으나 그래도 교역자의 부족함을 면할 수는 없었다.

이토록 성령님의 강한 역사로 교회 전체가 부흥하게 되어 1955년 본관이 준공 된지 불과 5년 후인 1961년에는 장년 출석이 주평균 831명, 중·고등 학생이 151명, 유년주일학교 학생이 349명에 달하니 당시의 건물로는 도저히

히 감당할 수 없어 1961년에는 연건평 180명(지상 4층)의 별관을 신축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또한 1961년에는 확장되어 나가는 주일학교 교육을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이를 조 천일 목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교회 설립 열 둘을 맞은 1963년에는 주일학교 교육의 한 지표로써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표어를 설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교회의 온 힘을 주일학교 교육에 쏟음으로 주일학교 교육은 일대 도약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주일학교 편제도 크게 바뀌어졌는데 장년부와 유년부 외에 중·고등 학생회가 중등부와 고등부로 정식 분리하여 독립하고 이제껏 면려회 활동이 중심이 되었던 청년회도 청년부로 개편됨에 따라 청년들에게도 주일학교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1963년 당시의 주일학교 상황을 보면 교사의 수가 장년부 9명, 고등부 4명, 중등부 4명, 유년부 86명이었으며 학생수는 유년부가 596명, 중등부 118명, 고등부 111명, 청년부가 30명이었다.

(2) 발전기/1964년~1973년

교회설립 10주년이 지난 이듬해인 1964년 1월 첫주일의 교인 출석 현황은 어른에서 어린이까지 모두 2,080명인데 비해 교역자의 수는 여전도사 3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이었다. 또한 연건평 294평의 본당과 1961년 신축한 연건평 180평의 별관으로는 당시 1천여 학생들을 만족스럽게 교육하기에는 장소적으로도 무리가 많았다.

이와 같이 학생수에 비하여 부족한 교역자를 보충하는 일과 교육 시설을 확장하는 일, 그리고 체계있고 능률적인 교육행정을 수립하는 문제는 1964년부터 천국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4년부터 당회는 실력있는 교역자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즉 1953년 교회 설립 이후 1963년까지 10년 사이에 초청된 교역자는 김 연순·노 윤석·김 지화·홍 신균·최 훈·문 춘운·이 명달·고 정수·조 천일·임 승원·신 예철 등 11명인데 비하여 1964년부터 1967년까지 불과 4년 사이에 초청된 교역자의 수는 홍 성덕·이 정심·한 제호(1964년), 이 중운·차 진형·이 두란·김 용찬·송 병수(1965년), 조 해수·정 소영·이 삼은(1966년), 정 영옥·김 의환·백 성룡·정 기성(1967년)등 15명으로서 당회가 교역자 확보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여러 교역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불과 1~2년 사이에 사임하게 됨으로써 지도 교역자의 빈번한 이동으로 주일학교 각부가 안정되지 못하고 어느 면에서는 도리어 혼란을 일으키어 주일학교 성장의 속도가 초기에 비하여 둔화된 듯한 느낌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61년 이미 조직되어 있었으나 그 활동이 미약하였던 교육위원회를 1966년부터 소생시켜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주일학교 교감이 자동적으로 겸직하게 함으로써 주일학교 행정이 더욱 체계있게 강화되었다(1965년 11월 21일 당회록).

그리하여 당시 부목사이던 한 제호 목사가 교육위원장에 취임하고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열게 되었으며 이 교육위원회가 당회에 처음으로 청원한 사항은 교육위원장 이름으로 1966년도 주교 각부의 부감 및 교사를 일괄 임명 청원한 것이었다. 한편 당회는 1966년부터 유년부를 유치부(미취학 아동)·유년부(국민교 1~3년)·초등부(국민교 4~6년)등 3부로 나누어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일학교는 5부에서 유치·유년·초등·중등·고등·청년·장년부 등 7부로 확장되었다.

해가 바뀌어 1966년에 들어서며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어 1월 10, 11일 양일에 걸쳐서 처음으로 우리교회 주일학교가 주최하는 교사 강습회가 열렸는데 이는 이제까지 학생들만을 교육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교사도 교육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2월 1일 「주일학

교 교칙 및 각부 부칙 승인건」을 당회에 전의하였으며 이 전의안은 당회의 연구와 검토를 거친 후 6월 26일 당회가 정식으로 승인하여 주일학교 각부에 발효하게 됨에 따라 주일학교 행정의 체계를 확고히 하는 데 진일보하게 되었다.

이처럼 당회가 실력있는 교역자의 확보와 체계있는 주일학교 행정 수립에 진력하고 있는 중에도 주일학교 학생수는 더욱 증가되어 1966년 초에 이미 1,500명을 넘게 됨으로써 다시금 교육장소의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1961년 별관이 신축된 지 불과 5년만에 다시금 교육관 신축문제가 당회에서 논의되게 되었는데 그 해결책으로 교회 동편의 땅(현재 김 재창 목사 사택)을 매수하여 대지 60평 위에 연건평 320평의 5층 학생회관(교육관)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계획을 세웠으나 이 공사는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1967년에 다시 조 천일 목사가 교육위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특별히 주일학교 간행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6부가 개별적으로 각기 발행하던 월보를 연초에 통합하여 「충현주교」라는 이름으로 첫호를 내고 1970년까지 월 1회씩 발행되었으며 1972년부터는 교회기관지로 바뀌어 「충현」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

2월에는 좋은 교사와 함께 좋은 주일학교 공과책을 갈망하던 중 조 천일 목사·임 승원 강도사·이 순한 목사(용산남부교회)등 3명이 공과를 공동집필 발행하여 1968년부터 사용하였고 유치처도 정 영옥 전도사의 집필로 유치부에 알맞은 교재를 만들기로 하고 월 1회 발행계획으로 3월부터 내어놓게 되니 주일학교 교재에 있어서도 연구·개선하여 주일학교 교육에 임하려는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1967년 2월 26일 당회록).

한편 장래 주님의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젊은이 중이 종윤(도미, 신학 전공중)·신 성중(도미, 신학 전공중)·천 성덕(충신 줄, 현재 대학부 지도)등 3명을 충회신학대학에 보냄으로써 천국 일꾼을 양성한다는 교회 교육방침의 첫 사례가 되었다.

또한 유치부는 1966년 부(部)로 독립하게 하였으나 지도자의 부족으로 1967년부터 1968년까지 2년간 유년부 내에 두어 유치처로 운영하다가 1969년 유치부로 다시 독립 운영하게 하였으며, 1968년부터는 임 승원 전도사가 전담하고 있던 유·초등부를 행정적으로 완전 분리 독립시켜 유년부는 정 기성 전도사, 초등부는 임 승원 전도사, 유치부는 정 영옥 전도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교회설립 15주년이 되는 1968년은 주일학교 교육의 방향과 방법이 보다 확고하여졌다는 데 기억할 만한 해라 하겠다. 그것은 1968년에 해외선교의 깃발이 높이 울려지고 새 성전 건축 계획이 마련된 것과 아울러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1968년 이후부터는 「천국일꾼 양성」의 의미를 재음미하게 되었고 이로써 한결 높은 차원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학생·가정 등 삼자를 연결하는 교육과 훈련이 처음 실시되고, 특별히 대외전도를 위한 훈련이 한층 조직화되고 고도화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1968년 5월에는 우리나라 주일학교 역사상 처음이라고 생각되는 학부형 교육강좌가 교육위원회 주최로 평균 120명의 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3일간 실시되었다.

또한 1월부터는 신입부를 신설하여 신입생들만 전담·처리하게 됨으로써 신입생들에 대한 관리에 있어 종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신입·유년·초등·중등·고등·청년·장년의 7부와 유치처의 교사가 184명에 주평균 학생 출석은 1,587명이었다.

이와 같이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체계가 서게 되고 교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게 되면서 크게 역점을 두기 시작한 것은 「교사의 자질 향상」이었다. 이는 주일학교 교육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첫 시도으로써 좀 더 실력있고 사명감이 투철한 교사를 양성하고자 1969년 개교한 「교사학교」이다. 즉 겨울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교사 및 희망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교사 자격증을 주기로 하고 1970년 1월 26일 개교하여 구약개론·교의신학·교육심리 등이 강의되었는데 예상 외로 대성황을 이루어 230여명이 수강

하였다(총현주교 3권 1, 2호). 또한 1970년부터는 주일학교를 교육 제 I 부와 교육 제 II 부로 나누어 신입·유치·유년·초등부를 교육 제 I 부로, 중등·고등·대학·청년·장년부를 교육 제 II 부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1969년 11월 19일 당회록), 한편 주교 각부의 교과과정(커리큘럼)이 작성되어 계획된 교과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청년부는 청년부와 대학부로 분리되어 초대 대학부장에 이 동규 장로가 취임함으로써 주일학교는 9부로 확장되었다.

같은해 연초에 근 1개월간에 걸쳐 있었던 「교회 간부훈련」(장로·권사·집사·권찰·교사·성가대)과 전교인을 상대로 한 2년 과정의 「성경통신강좌」개설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교회 지도급에 대한 훈련과 전 교인들의 자질 향상을 꾀하였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또 10월에는 처음으로 교육위원회 행정부가 주일학교 전반에 걸친 사무점열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지시에만 머물던 주교 행정이 확인·지도하는 행정으로 크게 발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 대상이 전 교인으로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 보다 조직적이고 항구적인 교사 양성과 평신도의 훈련이 절실하게 요청되었고, 아울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는 우리 교회가 더욱 강력한 보수신앙으로 무장하여 교계의 선구적 입장에 서야 할 것을 자각하게 됨에 따라 「천국일꾼 양성」의 의미는 교회 내에만 치중한 듯한 초기의 의미를 크게 넓히어 평신도 하나 하나를 전도자로 교육·훈련시켜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업전선에서 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며 봉사하게 한다는 의미로 확대된 것이다.

그리하여 1971년 2월에는 가칭 「장학심사회」가 신설되어 교육사업 확장에 따르는 교역자의 인력 수급을 자체 내에서 육성·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3월에는 4명의 첫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회신학 연구원에 보내게 되었다.

한편 1971년 12월 교육위원회는 주일학교 교사 양성, 가정의 신앙교육 지도자(부모)양성, 교회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6개월 과정의 상설「지도자 양성부」를 교육위원회에 둘 것을 당회에 건의하자 당회는 이를 즉시 가결하여 1972년 2월 16일 36명(남 14명, 여 22명)으로 첫 문을 여니

천국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또한 1972년 1월에 있었던 주일학교 10부 합동 교사부흥회는 1,900여명의 주일학교 학생을 먹이는 232명의 교사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하신 주님의 명령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며, 1973년의 두번째 부흥회 기간에는 교사강습회를 겸하여 실시함으로써 모든 교사를 정규적인 훈련을 받은 교사로 대치하려는 주일학교 방침의 과도적인 조치로 정규 훈련을 받지 못한 현직 교사들을 훈련시켰던 것이다.

1972년에 특기할 만한 사실은 7월에 처음으로 농어촌의 10교회에서 26명의 교사를 초청하여 실시한 「농어촌교사 초청훈련」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외 선교사 파송과 비결 만한 것으로, 종래는 우리 교회 교사들로 하기 전도대를 구성, 농어촌 교회에 파송하여 성경학교만 인도하고 철새처럼 훌쩍 떠나온 후, 사후 관리가 전혀 없어 도리어 무시 못할 후유증마저 남겼던 점을 고려하여 농어촌 교사를 초청, 직접 훈련시켜 그들의 교회로 보냄으로 농어촌 교회의 항구적인 부흥책으로 실시한 결과 그 효과는 놀라움게 나타났던 것이다. 이 사업이 1973년에는 더욱 크게 확장되어 제2회 때에는 50개교회에서 89명의 농어촌 교사가 초청되어 한층 강화된 맹훈련을 쌓은 후 그들의 교회로 돌아갔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우리교회가 부담함으로 벽지의 가난한 교회에서도 뜻만 있으면 참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업의 확장은 우리교회 주일학교가 우리교회 내의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양성기관의 역할을 다할 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천국 일꾼 양성기관으로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앞으로 천국일꾼 양성의 한국 총본산으로 우리교회의 교육 사업이 무한히 뻗어 나갈 수 있는 전조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주님께서 우리 「충현」에 맡기신 사명인 것이다.

이를 더욱 확신하게 하는 것은 1973년 교회설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 계획된 「충현 성경학원」이다.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를 한국에 실현하고자 몇 년 전부터 우리교회가 구상해 온 이 사업이 주 안에서 실현되는 날 10년래의 목표인 천국 일꾼 양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 새 역사의 기원이 될 것이다.

3. 전도사업

(1) 국내전도 / 1953년~1973년

•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1> •

1953년 우리 충청교회가 설립된 이래 우리교회의 전도활동은 주로 젊은 이들이 그 핵심을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성장하는 젊은이들의 개인적인 신앙체험과 훈련에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되었고 따라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감의 불길이 되어 전통적으로 오늘날까지 학생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초기 우리 교회의 전도활동은 극히 소극적이고도 산발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의 신앙 훈련에만 머물고 있는 듯하였으나, 1957년 남전도회에서 서울 동암교회를 개척하여 조직적인 전도활동에 임하게 되면서 점차 교회 각 기관의 전도활동도 목표를 좁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직적인 전도활동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갔다. 이어서 1959년 중·고등 학생들은 충북 세산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1962년 교회 전도부에서 인수), 같은해 여전도회에서 도 충남 부여제일교회를 개척하였다.

다음해인 1960년에는 당회가 처음으로 하기 전도대를 농촌에 파송하였는데, 지교회인 충남 서산교회에 「청년회 계몽대」라는 이름으로 파송한 것이었다. 이어서 1961년에는 강원도 사곡감리교회에 대학생 전도대, 충북 세산교회에 중·고등 학생 전도대를 파송하였고, 1962년에는 남·여 교사 6명이 삼양동교회로, 남교사 3명과 고등학생 2명이 세산교회로, 여교사 3명과 남집사 2명이 소사상리교회로, 남전도사 1명과 여교사 3명이 천호동 성인교회로 각각 파송되어 하기전도를 실시하였다.

이와같이 주로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대외 전도활동의 범위가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 전도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위한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리하여 주일학교 각부와 이의 기관들은 전도방법에 대하여 강의·토론·특강 등으로 각부 단위의 계획에 의한 전도훈련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흐름에 처음으로 바람직한 반응을 보인 것은 고등부가 조직한 「70인 전도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부의 「70인 전도대」가 발족된 것은 1965년 4월 26일이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로 전도대를 조직하여 여러 곳으로 보내신 일을 본받아 조직된 이 전도대는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직적인 전도활동을 펴으로써 그 효과가 이전과는 달리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1965년 8월 당회는 이를 우리교회 전체 행사로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9월부터 제1주는 중·고등부, 제2주는 여전도회, 제3주는 청년회, 제4주는 남전도회, 제5주는 당회의 순으로 11월까지 노방전도를 실시하기로 가결하고 이에 필요한 휴대용 마이크와 북 및 플래카아드 등을 준비하여 교회 주변의 충무로 일대와 명동 일대 그리고 장충·북정 남산공원 등을 무대로 온 교회가 노방전도에 참가하게 되었다(1965년 8월 22일 당회록).

고등부 전도대가 발족된 후 뒤이어 중등부「70인 전도대」가 발족되었으며 1967년에는 「어린이 전도대」가 조직되어 매달 한번씩 정기적으로 노방전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학생들의 매주 전도활동은 점차 그 지역이 확대되어 교회 인근주변에 국한하지 않고 시내에 있는 각 병원·경찰서 유치장·학교 등지로 뻗어나가게 되었으며, 주일학교 교사들을 중심한 청장년들이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농어촌 전도에 참가하는 회수와 인원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1966년 「경북전도협회」결성에 있어서는 우리교회가 주동적 역할을 다하였으며, 1967년 8월 첫주부터는 극동방송국(H.L.K.X.)의 전파를 타고 당회장 김 창인 목사의 설교가 한 주일에 두번씩 전국 곳곳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교회의 전도활동과 전도열의 고조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는 수차에 걸쳐 계속적으로 전국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여 자립시키거나 재정적 보조를 하였으며, 특히 여전도회는 1968년에 해외선교 담당 선교부를

두어 우리교회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선교지인 대만 대북교회를 보조하였으며 중부경찰서·중부병원·철도병원 등에 전도사를 파송하여 전도활동을 하여 왔다.

뿐만이 아니라 1968년에는 「해외복음선교회」가 우리교회에 창립되어 복음 전파의 불길은 바다 건너 멀리 인도네시아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교회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전도요원에 대한 훈련과 보다 효과적인 전도방법을 모색 하기에 부심하게 되었다. 그 보기로 1968년 6월에 열렸던 청년 「선교부흥회」라든가, 중·고등부의 학년별 전도대 편성이나, 학교별로 결석한 학교 친구를 찾아 보고 권고하기 위하여 조직된 「목요회」를 들 수 있으며 1971년에 있었던 대학부와 청년부 합동 「전도 세미나」와 1972년에 있었던 「전도요원 훈련」 등은 모두가 이러한 것이었다.

이런 즈음에 1972년에 이르러는 우리교회가 이전과는 달리 미리 정확한 농어촌 전도전략을 수립하여 농어촌에 파송될 전도요원들을 충분히 훈련시킨 후 파송하기 시작하였다. 즉 「제1회 농어촌 전도요원훈련」을 연초에 신설된 「지도자 양성부」가 담당하여 7월 11일부터 한 주일동안 실시하여 파송하였으며, 예년과 전도전략이 크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종래는 파송된 교회의 여름어린이성경학교 지도가 전도활동의 중심이었던 것에 반하여 1972년부터는 대상교회의 전반적인 부흥을 위하여 교회 인근지역의 주민 전체를 상대로 하여 전도활동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1972년 보고서에 의하면 5개 교회에 34명의 전도요원이 파송되어 1,430가구를 대상으로 축호전도와 노방전도를 실시한 결과 725명의 결신자를 얻게 되었으며 1973년에는 817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또한 1972년 1월부터는 당회장 김 창인 목사의 방송전도가 매주 1회씩 기독교 방송국(C.B.S.)과 매월 1회씩 서울중앙방송국(K.B.S.) 전파를 타고 전국에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으며 또한 남전도회가 최전방의 일선장병들을 위하여 1973년 1월부터 시작한 방송전도와 연중 무휴일 전도활동을 위하여 유급 전도인으로 김 도점 집사를 채용하여 매일과 같이 노방전도를 실시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전도회에서도 1973년부터는 일단 모든 분야를 축소하고 전방 교회를 돕기로 하여 2개 전방부대에 군목을 보조하고 군인교회 설립을 위한 대지를 구입하여 주며 스피이카를 설치하는 등 군인전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1973년 현재 주일학교 각부의 전도열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잃은양 찾기」와 같은 운동을 시작하여 새신자 획득 뿐만이 아니라 교회생활에 나태해진 믿음의 동료들을 권고·인도하는 일도 시작하고 있으며 주일학교 I부의 신입부 업무를 발전시켜 새 신자를 발굴하여 훈련시키며, 다른 교회에서 온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초대교회의 「구도자반」과 「예비반」과 같은 업무를 맡게 하고 「새신자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개편하였다.

또한 1973년 8월에 실시한 두번째 「농어촌 전도자훈련」과 「농어촌 교사 초청훈련」 등은 우리교회의 전도사업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고귀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20년간 우리교회에 역사하여 주신 성령님의 불꽃 같은 강한 역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맹렬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이 확실한 것이다.

(2) 국외전도/1968년~1973년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1> ·

교회설립 15주년을 맞는 1968년은 기억할 만한 해라 하겠다.

안으로는 3천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밖으로는 해외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교회의 모든 힘이 서서히 뭉쳐지며 밖으로 그 윤곽을 드러내 보이기 시작한 해이기 때문이다.

해외선교는 교회설립 10주년의 목표인 「천국 일꾼을 키우는 일」과 함께 우리교회가 늘 생각하며 기도하여 오던 바로써 그간 시기적으로 교회내의

여전이 여의치 않아 실현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1968년 온 교우들의 해외선교에 대한 간구의 기도가 이루어져 드디어 그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1968년 당회는 6월 30일과 7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설립 15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가칭 해외복음선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발기 위원으로 오 중락·김 광철·위 영환·김 기정·김 창배 장로, 이 옥순·임 현복·박 봉주 권사, 이 동규·이 현실 집사 등 10명을 위촉하였다. 같은해 8월에는 「해외복음선교회 창설발기위원 일동」의 이름으로 「충현교회 해외선교회 창설취지문」을 발표하여 창립 총회를 열기 위한 회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였다.

「충현교회 해외선교회 창설 취지문」

물질문명의 침단을 향해 달리고 있는 세계는 그들의 영원한 행복과 지상 낙원을 꿈꾸며 쾌락의 자장가를 부르고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의 마음은 오늘도 여전히 불안과 절망의 길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설립 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교회는 해외 복음선교회를 조직하여 다음과 같은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전쟁과 기아 속에서 위상과 미신의 종된 많은 아시아 지역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2. 물질주의 문명의 대표국인 미주에 신앙생활의 교두보를 구축하여 그곳에 체재하는 우리 겨레들의 바른 신앙 훈련을 도모하여 자유주의 신학사조와 유물주의적 사상을 고조하는 현대문명과 도전하여 진리를 파수하여 복음의 증인이 될 천국일꾼을 양성함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3. 남미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선교사명의 기초를 쌓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보람있는 천국 사업에 귀하의 동참을 삼가 요청합니다.

다시오실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다하여 칭찬과 영광의 존귀를 함께 누리

실 수 있기를 재삼바라 마지않습니다.

1968년 8월 일

총현교회 해외선교회 창설발기위원회 일동

1968년 11월 24일 오후 3시 2층 대예배당에서 「해외복음 선교회」창립총회의 막이 올랐는데, 임시의장 김 창인 목사의 사회로 가입회원 80명중 44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회칙을 일부 수정하여 채택하고 김 광철·위 영환·오 중락·김 기정·지 동방·최 석주 장로, 이 옥순 권사, 이 창준·이 현실 집사를 실행위원으로 선출하였으며, 같은날 오후 4시 15분부터 열린 당회에서 당회장 김 창인 목사는 새로이 발족된 「해외복음선교회」의 운영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히었다.

- ① 대만 선교사업은 당회에서 지도한다는 전제하에 현 여전도회 소관의 대만 전도사업으로 넘겨 처음 대만선교를 시작한 분들에게 환원한다.
- ② 새로이 발족된 선교회의 사업으로 먼저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체류중인 100여명의 우리교회 교인들을 기간(基幹)으로 하여 문서로 해외전도를 실시한다.
- ③ 선교사 양성에 치중한다.
- ④ 조 천일 목사를 초대 선교사로 하여 명년 6월경에 미국으로 파송할 예정이다.

그후, 12월 8일 회의에서 김 봉재·박 봉주 권사, 이 동규·전 순자 집사를 실행위원으로 추가 선출하는 한편 대망을 품고 미지의 선교지를 향하여 출범하는 「해외복음선교회」의 초대 임원진을 다음과 같이 선출하였다. 회장에 김 광철 장로, 부회장에 위 영환 장로·이 옥순 권사, 서기 최 석주 장로, 회계 이 창준 집사.

아울러 이날 조 천일 부목사를 초대 선교사로 추대함으로써 해외복음전도사업과 지도자 양성 및 선교정신의 배양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복음선교회」의 문은 열리게 된 것이다.

설립 후 첫 해를 맞는 1969년 2월에 들어서며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2월 2일 주일 낮에배시간에는 조 천일 목사 초대 선교사 추대식이 거행되었다. 같은해 8월에는 「빛(The Light)」이라는 한영(韓英)대역의 선교회지 창간호를 발행하여 온 교우들에게 배포함으로 선교정신을 함양하였고 그해 7월말 현재의 선교회원수는 창립당시 80명이 165명으로 늘어났다.

다음해인 1970년 1월에는 초대 선교사 조 천일 목사가 세계 대학생선교회 회의 참석과 선교지 시찰차 3개월정도 예정으로 미국에 갔으나 개인적인 학문 연구관계로 미국에 계속 머물게 됨에 따라 9월에는 우리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상의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1969년말 160여 회원은 1970년 11월에는 85명으로 줄었다) 선교회는 본래의 목적하던 바대로 선교회 활동을 착실히 떠 나갔다. 1970년 4월에는 일본 재일교포 최 경식 목사가 우리교회에서 1년정도 목회훈련차 협동목사로 취임하였고, 5월에는 김순일 태국 선교사의 임시 귀국을 계기로 태국 선교상황을 담은 선교 사진전을 열어 교인들의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해외복음선교회」는 처음 미주(美洲)에 선교지 교두보(橋頭堡) 확보의 뜻을 바꾸어 동남아 선교를 위하여 연구·기도하던중 9월 26일에는 선교지를 인도네시아로 결정하고 화란 개혁선교회 선교사로 총회에서 임명한 서만수 목사를 파송 선교사 후보로 당회에 청원하니 당회는 이를 즉시 허락하였다(1970년 9월 26일 당회록).

당회의 허락을 받은 서만수 목사는 우리교회에서 10월 4일부터 약 6개월간 예정으로 하여 목회훈련을 쌓을 뿐만이 아니라 해외 선교시 의지에서 필요한 외국어 교육과 자동차 운전·정비 교육까지 받게 되었고 「해외복음선교회」는 11월 29일 서만수 목사를 제2대 선교사로 추대하였다.

1971년 1월 31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실행위원중 오 중락·박 봉주·이현실 등 3명이 물러나고, 임 광식·한 명옥·유 병세·남 상철·이 창업·임현복·유 순녀·송 리명등 8명이 새로이 선출되었다.

이후 모든 준비를 끝마친 후 드디어 1971년 9월 9일 서만수 선교사 내외는 최초의 해외 파송 선교사로 임지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향하여 온

교우들의 뜨거운 전송을 받으며 떠났다.

선교지를 향해 떠난 지 약 2개월 후에 첫 보고서가 날아들었는데 일본·대만·홍콩을 거쳐 싱가포르에 비자를 신청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인도네시아에 도착, 전 인도네시아인들을 상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종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충성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교포신자들을 지도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이하 보고서 내용은 제2장 제2절의 「해외복음 선교회」 참조).

제 2 절 기관 및 사업

(1) 당 회

1957년 김 창인 목사의 목사안수시까지의 경기노회가 파송하는 여러 당회장을 모시게 되었다.

① 1953년 12월 22일 제1대 당회장으로 강 진선 목사(부산 동일교회시무)가 피임되었으며,

② 1954년 1월 24일 고 홍봉 목사(남산교회 시무)가 제2대 당회장으로 피임되었으며, 같은해 5월 8일 고 홍봉 목사, 강 지순·우 성원·최 재성 장로 등 4명으로 초대 당회가 구성되었다.

③ 1954년 11월 21일 장 석인 목사(한국성서대학 교수)가 제3대 당회장에 피임되었고,

④ 1955년 8월 8일 강 선진 목사(원남교회 시무)가 제4대 당회장에 피임되었으며,

⑤ 1956년 8월 16일 전 칠홍 목사(중앙교회 시무)가 제5대 당회장에 피임되었으며,

⑥ 1957년 9월 7일 김창인 목사가 제6대 당회장(위임목사)으로 취임한 후 1973년 9월 현재 당회원 25명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제 직 회

1954년 회원 31명으로 초대 제직회가 조직되었다. 회원은 목사 1명, 여전

도사 2명, 권사 4명, 남집사 5명, 여집사가 15명이었으며 그 후 해마다 교회의 성장과 함께 회원수가 증가하여 교회설립 10주년때는 144명, 15주년때는 302명, 20주년을 맞이하는 1973년에는 회원이 532명에 이르고 있다.

부서로는 서무부·구제부·영선부·예전부·봉사부·미화부·감사로 조직되어 각부서가 유기적이며 능동적으로 그의 직무를 수행·처리한다. 매월 첫 주일 정기적으로 제직회가 모여 지난 한 달 동안의 각부 사업 보고의 검토, 새로운 안건 심의와 결정·시행 그리고 교회 재정 전반에 걸친 연간 예산과 결산 심의·결정 등에 온 제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제직회 회장에는 당회장 김 창인 목사가, 서기에 이 웅선 집사가 맡고 있다.

(3) 구역권찰회

1955년 16개 구역으로 구역권찰회가 조직된 이래 우리교회의 신경계통의 역할을 담당하여 교우들의 실정을 신속하게 파악하여서 보고·처리할 뿐만 아니라 성도간의 교제에 매개체가 되어 오고 있다.

교회설립 10주년을 맞는 1963년에는 26개 구역으로 고 정수 목사가 1964년 1월까지 담당하였으며 1964년부터는 34개 구역을 동·서 2개 지역으로 분리하였고 15주년이 되는 1968년에는 49개 구역에 교인세대수는 총1,205세대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구역의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따라 권찰 행정은 점진적인 개편을 보기에 이르러 1970년까지 2개 지역의 49개 구역을 교역자가 3개조로 나누어 대심방을 하여 왔으나 다시 1971년부터는 53개 구역을 동구·중구·서구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목사 3명과 여전도사 3명을 고정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1972년에는 55개 구역이 1973년에는 58개 구역으로 늘었으며, 같은해 5월에 이르러는 동구·서구·남구·북구의 4개 지역으로 다시 나누어 백 성룡·김 재창·정 상우·김 중택 목사와 차 진형·이 두란·최 순복·강 봉선 여

전도사 등 모두 8명의 교역자가 심방과 권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973년 6월 30일 현재 심방할 수 있는 교인가정 총수는 1,553세대로 5년 전인 1968년에 비해 350여 세대가 증가하였고 앞으로 평신도훈련을 비롯하여 교회의 각종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권찰업무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일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구역권찰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1973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 그 첫번째 구역 권찰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1968년 이래로 백 성룡 목사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역권찰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8명의 교역자와 장로 24명, 권사 56명, 구역장인 남집사 60명, 여집사와 평신도로 혼성하여 구성된 215명의 권찰 등 총 363명으로 구역권찰회를 구성하여 자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있다.

(4) 전 도 부

1954년 제직회가 조직되면서 제직회의 한 부서로 교회 내의 각부 전도 사업을 지원하여 왔으나 1973년부터는 당회 직속기구로 개편되어 남·여 전도회와 해외전도 및 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소 전도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교회 전도사업의 체계를 세우며 각종 전도사업에 대한 전도전략을 연구하여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도사업 수행을 위하여 힘쓰고 있다.

초대 전도부 부장으로는 김 광철 장로가 선임되고, 천 성덕 목사가 지도목사로 현재 충성을 다하고 있다.

(5) 남전도회

망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교회의 남전도회가 창립총회를 열기는 1957년 1월 2일이었다. 이날 23명의 회원이 모여 총회를 열었는데 초대 회장에 박 창근 장로, 부회장에 황 기성 집사가 선출되었다.

남전도회가 1973년까지 17년을 지나오는 동안 줄곧 복음전파하는 일에 안과 밖으로 크게 발전하여 왔다.

초기의 남전도회는 그 이론 업적을 보아 그야말로 믿음의 용사들의 모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창립총회가 있는 지 불과 1개월 후인 2월에는 시내 성북구 정능동에 있는 동암교회를 개척전도하기 시작하여 장 여제 목사를 파송하는가 하면, 8월부터는 복음 전도지를 수만매 인쇄하여 반포하며, 회원들의 정성어린 회비와 특별헌금 등으로 연말에는 당시 시내 도처에 산재해 있는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었다. 이는 모두 23명이라는 소수 회원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후 1962년 12월 31일 동암교회를 완전 자립하게 하고, 1962년 2월 12일부터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상리교회를 개척하여 1967년 자립시키고, 다시 1965년 3월 14일 경기도 고양군 중면 장항오리에 장항오리교회를 세우기로 하여 특별헌금과 구제미 등으로 돕고, 같은해 7월 10일에는 여름어린이성경학교를 돕기 위하여 3명의 교사를 파송하였다. 이 장항오리교회는 또한 성전과 교역자 사택까지 신축하고 1969년 12월 전담 2천명을 교회 앞으로 구입하여 주어 자립시켰다.

장항오리교회를 돕고 있던 같은 기간에도 남전도회는 1968년 2월 11일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나환자촌의 새마을 교회를 돕기로 하고 월 5천원씩 재정적 보조를 하는 한편 1969년 9월에는 새마을교회 신축을 위한 건축기금으로 1만원을 보조하였다.

다시 1969년 12월 14일에는 시내 성동구 마천동에 있는 동현교회를 설립하고 담임교역자로 예 종탁 전도사를 파송하였으며, 1970년 5월 12일 교회 신축을 위한 대지를 구입하고, 그해 9월 17일에는 교회를 준공하였으며, 1972년 11월 12일 자립시키었다. 또 이어서 1973년부터는 경기도 가평군 내사리에 장락교회를 개척하고 정 길성 목사를 파송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밖으로 행한 활동만이 아니라 안으로도 창립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 그 당시 23명의 회원은 현재 141명으로 늘었으며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 못지않게 항상 노력을 기울여 왔다.

1959년 4월부터는 매월 전도부 주최로 성경 연구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1961년 6월 14일 최초로 신앙강좌를 개최한 이래 수차에 걸친 신앙강좌와 아울러 월례회때마다 외래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기도 하며 성경퀴즈대회를

여는 등 이모양 저모양으로 회원들의 자질향상을 꾀하였다.

또한 1966년 6월 5일에는 회지「아가페」제1호가 발행되어 회원간에 친교와 의사소통의 매개체로 크게 공헌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 7호까지 발행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원 모두는 노방전도에 참가하였으며 특히 돕고 있는 지교회를 위하여 회원 3~4명을 1 개조로 하여 매주 돌아가며 회원들이 지교회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과 연중무휴의 노방전도를 효과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2일부터는 유급 노방전도인으로 남전도회 회원인 김 도점 집사를 선정하여 전도를 하게 한 일 등은 남전도회 활동의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그리고 1973년부터 시작한 전방 군인들을 위한 방송전도와 기독교방송국,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한 당회장 김 창인 목사의 방송전도에도 많은 힘을 기울여 협력하고 있다.

역대 회장으로서는 박 창근·홍 수정·김 광철·송 순일·허 준·김 기원·한 명옥·김 창배·조 현명·위 영환·최 석주 장로 등 여러분이며, 현재는 회장에 신 제택 장로이고 회원수는 141명이다.

(6) 여전도회

여전도회가 창립총회를 열어 발족된 것은 1954년 1월 17일이었다.

이날의 창립총회에서 이 창옥 권사가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그후 모든 회원은 한결같이 힘을 모아 오늘날까지 전도 및 구제사업과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 참가하여 봉사하고 있다.

여전도회는 일찌기 대외 전도사업에 주력하여 1958년 의정부에 의정부중앙교회를 개척·전도하여 1959년 자립하게 하였으며, 다시 1951년 9월에는 충남 부여제일교회를 개척하여 김 광현 목사를 파송하는 한편 이 교회의 자립을 위하여 감나무 재배와 양돈 등을 주선하여 힘써 오던중 1964년 자립하게 하였다.

또한 1964년 소록도 결핵요양원인 애육원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새로이 개척할 교회를 찾고 있던중 1966년 6월에 시내 장성교회를 개척하여

복음전파에 힘쓰는 한편 중부경찰서에도 전도의 길을 열기 시작하여 1967년 4월에는 서울지구 경찰전도협회에 김 정덕 목사를 경목으로 파송하였으며, 같은해 12월에는 장성교회가 자립하게 되었다.

교회설립 15주년이 되는 1968년 3월에는 대만에 있는 대북교회를 돕기로 가결함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까지 그 전도의 손길이 미치게 되었는데 해외선교를 위하여 1968년 여전도회는 선교부를 그 조직에 새로이 두어 대북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매월 100달러씩 돕기로 하여 돕고 있던중 같은해 11월에 교회기구로 해외복음선교회가 발족되자 교회와 보조를 함께하기 위하여 1968년 말로 선교부를 없애고 대북교회 보조도 중단하였다.

이렇게 외지(外地)전도에까지 힘쓰면서도 1968년 5월 성북구 상계동에 상현교회를 개척하고 중부보건의소에 전도사를 파견하는 등 전도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69년 2월에는 여전도회 주최로 부흥회를 열어 다시금 큰 은혜를 받는 한편 회원 배가운동을 함께 벌여 10주년이 되는 1963년에 200여명이던 회원은 344명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1969년도 여전도회 결산서에 의한 당시 여전도회가 맡고 있던 사업으로는 경목회·농곡교회·밀양 나환자촌·중부병원·중부보건의 등을 기도와 물질로 돕는 일과, 철도병원에 신 육회 전도사를 파송하고, 9월부터는 용산역에서 귀대장병들에게 전도지를 배부하며 아울러 따끈한 국수를 대접하는 일도 하였다.

새해인 1970년부터는 새로이 심방부를 두어 어려움이나 낙심중에 빠진 회원들을 돌아보고 위로·격려하게 하는 한편 2월에는 철도병원에 문 점향 전도사를 파송하였고, 1971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으로 천국일꾼을 키우는 의미에서 총회신학대학원에 다니는 남자 학생중 장학생 1명을 돕기로 하고 당회의 추천을 받아 노 의일 전도사(현재 새신자부 부지도, 총신 신학연구원 재학)를 돕고 있으며, 1972년에는 상현교회가 자립하였다.

1973년부터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 추진방침을 변경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일단 축소하기로 하고 전방의 2개 군인교회를 위하여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으며 2월에는 김 하진·정 판주 군목을 도와 군인교회 전축대지를 구입하여 주교, 방송전도용 스이피카를 가설하여 주는 등「전군 신

자화운동」에 맞추어 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역대 회장으로서는 이 창욱·이 연숙·최 경한·이 옥순·박 효일·임 현복 등 여러분이 수고하였으며, 현재는 이 영주 권사가 회장직을 맡고 있고 회원수는 558명에 달하고 있다.

(7) 해외복음선교회

1968년 11월 24일 「해외복음선교회」가 창립되었다.

한국이 세계의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기대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많은 성도들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해외선교에 점차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교회는 해외선교의 꿈을 품고 그 실행의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즉 「해외복음선교회」가 발족되기 3년 전인 1965년 파라과이 이민자들을 위하여 선교용 찬송가와 성경을 100여부씩 모아서 파라과이로 이민차 떠나는 우리교회의 오 중락 장로편에 보낸 일이 있으며, 수차 해외선교를 위한 특별헌금도 있었다.

이와 같은 해외선교의 오랜 꿈이 싹터 1968년 6월 당회는 교회설립 15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가칭 해외복음선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7월 14일 10명의 「해외복음선교회 창립발기회」를 조직하여 교인들 앞에 선교회 조직의 취지를 알리는 한편 총회를 열기 위한 회원을 모집하여 드디어 11월 24일 4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 통과와 아울러, 김 광철·위 영환·오 중락·김 기정·지 동방·최 석주·이 창준·이 옥순·이 현실 등 9명의 실행위원을 선출하였다. 이어서 열린 이날 오후 당회에서는 새로 조직된 「해외복음선교회」의 운영방침에 대한 당회장 김 창인 목사의 설명이 있었다.

창립총회 2 주 후인 12월 8일 회의에서, 김 봉재·박 봉주·이 동규·전순자 등 4명의 실행위원을 추가선출하고 또 초대임원으로 회장 김 광철, 부회장 위 영환·이 옥순, 서기 최 석주, 회계 이 창준 등 여러분을 선출하였으며, 조 천일 목사를 초대 선교사로 추대하게 됨으로써 모든 준비가 순조

롭게 진척되어 나갔다. 이듬해인 1969년 2월부터는 회원배가운동을 전개하여 그해 연말에는 160여 회원을 확보함으로써 목표를 이루었고 4월 6일부터는 특별 기도회와 8월에는 계절지 「빛」을 2,000부 발행하여 배포하며 교인들의 선교정신을 고취시켰다.

그러나 1970년 1월 초대 선교사 조천일 목사가 도미하여 사정상 돌아오지 못하게 됨으로 잠시 선교회의 활동이 주춤하는 듯하였으나, 같은해 11월 서만수 목사를 제2대 선교사로 추대하면서 다시금 전보다 배나 더한 활기를 띄게 되어 1971년 1월 31일 제2회 정기총회에서 오 중락·박 봉주·이 현실 등 3명의 실행위원을 경질하고 임 광식·한 명옥·유 병세·남 상철·이 창업·임 현복·유 순녀·송 리명 등 8명을 보선하여 강화하고 1970년 9월에 결정한 선교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도전략을 짜는 한편 1971년 초부터 서만수 선교사는 입지로 파송되기까지 우리교회에서 선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갖가지 훈련을 받게 되었다.

「해외복음선교회」가 발족된 지 2년 10개월 후인 1971년 9월 9일, 서만수 선교사 내외는 드디어 입지인 인도네시아로 파송되었다. 일본·대만·홍콩을 거쳐 입지에 도착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해결되어 1971년부터는 목적하던 바대로 선교활동을 개시하였다.

1973년 8월까지 수차에 걸쳐 보내온 현지보고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1609년 화탄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이래 약 600만의 성도가 있기는 하나 자유주의에 깊게 잠겨 복음 전파에 큰 장벽이 되고 있으며, 섬과 정글로 이루어진 낮은 기후 풍토의 어려움과 국민 대부분이 극렬한 회교도라는 데 또한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서만수 선교사 내외는 생명까지 주님 앞에 내어 놓고 인도네시아의 전국민을 상대로 전도사업을 펴고 있으며 한국인 교포들을 지도하여 1972년 7월 2일에는 자카르타에 한국인 연합 교회를 설립하고, 현지 청년들의 지도와 신학교에서의 강의, 자카르타 선교부와의 연합사업, 마카사 지방의 정기적 순회 전도 등을 하고 있으며, 1972년 9월 초에는 우리교회 은교인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선교용 지프차를 보내게 되었고, 9월 하순에는 당회

장 김 창인 목사가 현지를 방문하여 격려한 바 있다.

현지 사업규모의 광대함과 중요성이 인정되어, 당회는 이 중영(충신 신학 연구원 재학) 전도사를 선교사 후보생으로 선정하여 1973년 4월부터 우리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역대 회장으로서는 김 광철 장로가 창립이래 현재까지 계속 역임하고 있으며 창립당시 80명의 회원은 불과 5년 사이에 약 5배가 늘어 현재 402명에 이르고 있다.

(8) 성 가 부

1955년 12월 17일 당회는 음악부를 두기로 하고 음악부 부장으로 최 재성 장로를 임명한 것이 우리교회 성가부의 출발이 된다.

1953년 우리교회 설립과 함께 학생성가대가 조직되고, 1954년 말에 청년 찬양대가 조직되면서 각부 성가대의 전전한 발전을 위하여 1955년 이후로 계속하여 당회에 성가부를 두어 각부 성가대를 관할하여 왔다.

1963년 중등부와 고등부로 학생회가 분리되면서 중등부 성가대와 고등부 성가대로 각각 분리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1966년에는 여성성가대가 조직되어 출발하는가 하면 유년부와 초등부도 각각 별개의 찬양대를 두어 운영하게 되었고 1970년에 대학부 성가대가 시작됨으로써 현재 모두 7개 성가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성가로 봉사하고 있다.

또한 유치부에서도 성가대를 정식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 중에 있다. 이처럼 성가부는 이 모든 성가대를 잘 이끌어 성가대로서의 맡은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는데, 현재 성가부 부장에 임 광식 장로가 1970년 이래로 역임하고 있다.

① 청년 성가대

1954년 11월 21일 당회는 「청년 찬양대」를 조직하기로 하고 성 장수 집사를 초대 대장에 임명하고 지휘자와 대원의 추천을 일임하여 구성하게 한 것이 청년성가대의 출발이 된다.

청년성가대가 조직되기 전에 학생성가대가 대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여 왔으나 1955년부터 청년성가대가 활동을 시작, 청년성가대가 대예배의 찬양을 맡아서 내려 온 것이 오늘의 청년 성가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성가대가 있기까지는 많은 진통과 변천을 겪어 왔는데 불과 한 해 사이에 세번씩이나 지휘자가 바뀌게 되었던 1960년은 파란기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혼란으로 다음해에는 성가대의 존폐문제로까지 논란되어 1964년부터는 성가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홍전 박사를 성가부 교역자로 임명하고 10명의 고문으로 「성가부 후원회」를 조직하여 발전을 모색해 보았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1964년 말부터는 성가대의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하였다.

그러던중 1966년 이 삼은 선생을 지휘자로 새로이 맞이하게 되면서 같은해 4월 첫주부터 49명의 대원으로 다시 출발하였다.

1972년부터 강 신의 집사가 성가지휘를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50명(남 20명, 여 30명)의 대원이 더 아름다운 성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쓰고 있다.

② 여성성가대

1966년 성가부의 청원에 의하여 3월 1일자로 당회에서 26명의 대원을 임명함으로써 여성성가대가 시작되었다. 당시의 성가대 일지에 따르면 3월 13일 18명의 대원이 모여 이 삼은 선생의 지도로 첫번 성가연습을 하였고 4월 3일 I 부예배 때에 처음으로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출발한 여성성가대는 우리교회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서도 특이한 성가대로 꼽히게 되었다.

대원의 대부분은 중년 이상의 여성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고 거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여성도로서 가정에서는 장성한 자녀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연령적으로 성대와 음감이 무더어진 상태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아름답게 버르고 뉘어내는 데는 대원 한사람 한사람의 기도와 정성이 밀거

름이 되고 있으며 초기의 이 현실 집사와 몇몇 대원의 노고는 여성성가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여성 성가대가 있기까지에는 그 누구보다도 초기부터 지휘를 담당하였던 이 삼은 전도사를 결코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여성 성가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피를 쏟고 쓰러지기까지 충성을 다하였으니 1973년 1월 21일 주일아침 몹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휘봉을 든 순간 그대로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이 그의 마지막 지휘가 되어 이를 뒤인 23일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현재 52명의 대원이 홍 익훈 집사의 지휘로 주일 낮 대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

③ 학생성가대

1953년 교회 설립과 동시에 중·고등 학생으로 조직된 학생성가대는 우리 교회 성가대의 시발점으로 1955년 청년 성가대가 조직되어 활동하기 직전까지 대예배 찬양순서를 담당하여 오다가 청년성가대의 발족과 함께 저녁예배의 찬양을 맡아서 봉사하게 되었다.

1963년 우리교회의 주일학교 기구개편에 따라 학생회가 중등부와 고등부로 각각 분리되면서 학생 성가대도 중등부 성가대와 고등부 성가대로 분리되었다.

역대 학생성가대 지휘자로는 이 병춘·백 수은·이 정주·이 상빈·유 중필·김 용진 등 여러분이 학생성가대를 위하여 정성을 쏟았다.

ㄱ. 유·초등부 성가대

1953년 11월 1일 주일학교가 개교된 후 곧 이어서 찬양반이 생겼으나 임명된 지휘자가 없어 교사중 몇몇 사람이 이끌어 오던중 1963년 심 상선 선생을 지휘자로, 송 철연 선생을 반주자로 맞이하게 되면서 점차로 성가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1966년에 이르러 유년부와 초등부로 분리됨에 따라서 유년부와 초등부는

자기 성가대를 조직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초등부성가대는 강 신의 선생이 지휘를 맡아 더욱 발전하여 당시 출전한 대외적인 각종 대회에서 거의 우승을 차지하였다.

한편 박 규봉 선생을 지휘로 맞아 독립·운영하기 시작한 유년부성가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년부 예배를 도우며 어려서부터 음악적 훈련을 쌓아 초등부성가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1969년 주일학교 기구개편에 따라 유·초등부 성가대는 각부 음영과로 소속되었으며 현재 유년부는 38명(남 18명, 여 20명)의 성가대원으로 지휘에 강 혜영 선생, 반주 전 명순 선생이 초등부는 50명(남 9, 여 41)의 성가대원으로 지휘에 정 진순 선생, 반주 정 인숙 선생이 맡고 있다.

또한 역대 유년부성가대 지휘자는 정 의환·박 용삼·정 진순 등 여러분이며, 역대 초등부성가대 지휘자는 강 신의·장 영이·이 효은 등 여러분이 어린이 성가대 육성을 위해 힘을 기울인 바 있다.

ㄴ. 중등부성가대

발전하는 교회 각기관의 하나로 1963년에 새로 조직된 중등부성가대는 1963년 7월부터 지금까지 중등부 주일예배를 위한 찬양을 담당하여 많은 감명을 중등부 학생들에게 끼쳐주고 있다.

역대 지휘자로는 신 예철·홍 익훈·오 상기 등 여러분과 현재는 이 효은 집사가 지휘를, 김 희영 선생이 반주를 맡아 모두 48명(남 10명, 여 38명)의 대원과 함께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다.

ㄷ. 고등부 성가대

1963년, 학생성가대에서 고등부성가대로 분리·독립하면서 2부 대예배의 찬양과 고등부 학생예배시 찬양을 맡게 되었으나 다시 1966년 여성성가대가 조직되어 대예배의 찬양을 맡게 되자 고등부 학생예배의 찬양만을 담당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대 지휘자로는 김 용진·강 신의·오 영금·김 중석·오 상기 등 여러

분이었으며, 현재는 대원 65명(남 25명, 여 40명)에 박 정하 선생이 1973년 6월 이후 지휘를 맡고 이 승순 선생이 반주를 맡아 수고하고 있다.

ㄷ. 대학부성가대

대학생들로만 구성된 대학부 성가대가 있기 전에는 대학생들이 청년성가대에 가담하여 봉사하여 왔으나 1970년 대학부와 청년부가 분리되면서 1970년 대학부 성가대를 조직하여 저녁 찬양예배와 각종 특별예배의 찬양순서를 담당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초대 지휘자로는 홍 익훈 집사가 임명되어 대학부성가대의 기반을 닦았으며 현재는 김 중석 선생이 지휘를 맡고 백 신숙 선생이 반주를 맡아 75명(남 38명, 여 37명)의 대원이 대학부 성가대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9) 재정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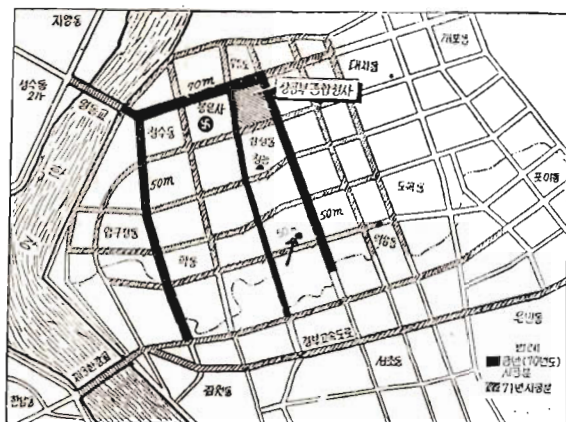
우리교회의 재정에 관한 전반 업무에 있어 재정위원회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처리 및 매년도 교회 예산편성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교회의 고정 자산과 유동자산을 당회의 위촉을 받아 관리하고 있다.

재정위원장으로는 초대 김 광철 장로를 비롯하여 황 기성·김 기정·위영환 장로가 역임하였고 1973년 현재는 김 기정 장로가 봉사하고 있다.

(10) 건축위원회

1968년 지금의 건축위원회가 구성되기 오래 전부터 성전증축을 위하여 우리교회는 꾸준히 교회에 인접한 대지를 확보하여 왔는데 1963년 본관 서쪽에 64.3평을 마련한 것이 그 첫번째이며 이어서 1964년 39.78평, 1967년 45.13평을 구입하여 성전증축에 알맞는 긴 네모꼴의 대지가 마련되었다.

이어서 1968년 교회설립 15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성전을 새로 건축하기로 하고 같은해 7월 28일 15명의 건축위원을 위촉하니 이 위원들은 초대 임원을 조직하여 8월 25일 다음과 같이 당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게 되었다.



<새 성전부지 위치도(화살표 지점)>

에 임야 9,000평을 6,500여만원으로 구입하고 1971년 9월 환지계획으로 인하여 32.5%가 줄어든 6,067.4평을 단일부지로 하여 환지가 확정되었다.

우리교회 성전부지가 위치한 영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1970년 후반에 착공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으나 넓은 지역이고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관계로 우리교회 성전부지인 제585, 586 구획은 1974년 후반기에나 정리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성전건축은 그 이후에 착공될 것으로 보아 교회 설립 25주년 무렵에는 한강수를 굽어보는 수도 서울 동남쪽 논현·산성의 산마루에 고대하던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한편 성전건축이 이같이 시당국의 공사진도의 지연과 지역발전 여건의 미비 등으로 늦어지고 있으나 주일학교 교세는 날로 팽창일로에 있어 “천국일꾼을 키우자”는 당면과제에 적지 않은 애로가 있어, 교회는 설립 20주년 사업과 관련하여 본관 서쪽 교회부지에 연건평 486.3평에 달하는 5층의 교육관을 건축하기로 하고 모든 계획을 세워 당국에 건축허가를 신청중 일부 서류의 미비로 허가를 얻지 못하고 현재 담보상태에 있다.

(11) 충현동산 관리위원회

우리교회의 교회 묘지는 1964년 필동구역의 문 익태 집사가 약 7만평의

위원장 김 기정, 부위원장 위 영환, 서기 신 제택, 회계 이 응 선.

이로써 8월 25일 건축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새 성전의 건축 위치는 한강 이남으로 결정하고 그 후보지를 물색중 1970년 12월 성동구 논현동 7-11

임야를 교회에 헌납하자, 교회는 이 가룩한 뜻을 받아들여 교회 묘지를 설정하기로 하고 이 임야를 팔아 기금의 일부로 하고 묘지에 필요한 땅을 구입하기 위하여 온 교우가 헌금을 하여 1968년 지금의 자리인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에 43,655명의 임야를 260여만원에 구입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같은해 10월 2일에는 13명의 관리위원이 위촉되었고 10월 6일에는 위원장 위 영환·부위원장 오 중락·서기 최 석주 장로 등을 선임함으로써 「충현동산 관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다시 12월 12일에는 경기 제2421호로 2,000명 규모의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한국식 분묘의 좋은 점을 살리면서 시멘트 형틀을 만들어 현대미가 가미된 반원형을 방식을 채택하여 묘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첫번째 안장자는 1969년 1월 25일 안장된 63세의 남자 장 재익 씨였으며 1973년 7월말 현재 쌍분 69기, 단분 41기 등 모두 110기의 분묘가 안치되어 있다.

그러나 교회 묘지의 앞날을 살펴보고 또 묘지문제가 국토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자못 커서 국가시책으로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래식 묘지제도로부터 집단화 된 묘지로 바꾸도록 권장하고 있는 터이다. 우리교회는 이에 호응하여 재단법인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1972년 3월 당회의 결의를 얻은 후 4월에 재단법인 허가 신청을 보건사회부에 제출하였는데 같은해 12월 16일 제1545로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충현동산」이 설립되게 되었다.

현재 「충현동산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위 영환 장로가 1972년 이래로 역임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충현동산」의 이사장에는 당회장 김 창인 목사가, 전무이사에는 위 영환 장로가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2) 교육위원회

1953년 교회가 설립된 이후 급진적으로 교세가 확장되어 나감에 따라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를 바르게 육성하려고 당회는 1961년 6월 25일 주일학교 각부 부장과 성가부 부장을 회원으로 하는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조 천일 목사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후 교육위원회의 활동이 별로 원활하지 못하자 1962년에는 교육위원회의 존폐문제까지 대두되었으나 1965년에 이르러 당회는 다시 침체상태에 있던 교육위원회를 소생시켜 교육관계 각부를 장악하게 하고 주일학교 교감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직하도록 가결하여 교육위원회 발전에 박차를 가하였다(1965년 11월 21일 당회록).

1967년 초에 이르러는 주일학교 계단 공과를 편집·발행하기로 하고 그 임무를 조 천일 목사와 임 승원 전도사에게 일임하였던 바 후에 총회 교육부가 인수하여 1968년부터 사용,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1969년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 1회 교사학교를 개교하여 19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제 2회인 1972년에는 132명이 교육을 받았다. 또한 같은해 9월 13일에는 학부모님의 자녀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증진 시키기 위하여 「기독교학생의 신앙생활 지도문제」라는 제목으로 「부모님학교」를 개교하여 교육에 있어 교회와 가정의 연결을 꾀하기도 하였다.

1970년에 이르러서는 보다 능률적인 주일학교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일학교 9부를 크게 둘로 나누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주일학교 제Ⅰ부를 신입·유치·유년·초등부 등 4 부로, 주일학교 제Ⅱ부를 중등·고등·대학·청년·장년 부등 5부로 나누었다(1969년 11월 10일 당회록). 또한 1972년부터는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6개월 과정의 「지도자 양성부」를 주일학교의 일부(一部)로 신설하여 현재 5기생이 수강하고 있으며, 95명의 수료자(3기생까지)들에게 수료증과 함께 교사자격증도 수여하였다. 같은해 년초에는 새로이 임명된 교사들의 사명감을 고취 시키기 위하여 「교사 부흥회」를 열어 1973년에는 그 두번째를 연초에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교사 자질향상의 일환책으로 1972년부터 「교사의 벗」을 전교사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같은해 학생들의 시청각교육을 위하여 16밀리 영사기도 구입하게 되었다.

교육위원회 역대 회장으로서는 조 천일·한 제호·백 성룡 목사 등이 총성을 다하였고 197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김 재창 목사가 역임하고 있다.

(13) 주일 학교

1953년 9월 6일 우리교회가 시작되면서 그해 11월 1일에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유년주일학교가 개교되었으며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여 1973년 현재에는 10부 주일학교로 확대되어 우리교회 교육의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 전체 주일학교 교육의 전전한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회가 전체를 관장하고 있다.

① 새신자부

1953년 11월 우리교회의 주일학교가 개교되면서 신입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유년부에서 맡아 오다가 1968년에 비로소 신입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인정되어 신입부로서 독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신입부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로서 새로 나오는 어린이들에게 교회생활의 기본적인 지식과 신앙의 필요성을 7주간에 걸쳐 교육하여 오다가 1972년부터는 6주간으로 교육기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1973년부터는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 전체에 대한 지도와 육성을 목적으로 하여 「신입부」를 「새신자부」로 그 이름을 바꾸고 사업의 규모를 확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대 부장으로는 초대 임 현덕 장로를 비롯하여 박 창수 집사, 이 창준 장로이며 현재는 김 한흠 장로가 역임하고 있다. 또한 역대 지도와 부지도로는 임 승원·천 성덕·이 종표·지 우목 등 여러분이며 현재는 김 종택 목사가 지도로 부지도에 노 의일 전도사가 책임을 맡고 있다.

② 유치부

1953년 11월 1일 주일학교가 개교할 때에는 유치기 어린이들로부터 국민학교 어린이들 전부를 유년부라는 이름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1966년에 비로소 유치부를 유년부에서 분리시키고 초대 부장으로 박 기련 집사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1967년부터 유치부를 다시 유년부에 두어 운영하게 되었고 1967년 김 익화 장로 1968년에는 유년부 부장인 최 석주 장로로 유치부 부장을 겸임하게 하였으며 1969년에 이르러 다시금 완전 독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김 봉재 권사가 부장으로 임명 되었다.

역대 부장으로는 박 기련·김 익화·최 석주·김 봉재 등 여러분이였으며 현재는 조 현명장로가 부장직을 맡고 있고 지도로 정 영옥·백 진주 전도사가 역임하였고 현재는 정 연희 전도사가 담당하고 있다.

③ 유년부

1953년 교회 설립과 함께 11월에 개교한 유년주일학교는 유치기로부터 국민학교 6학년까지 모든 어린이를 한데 모아 가르치는 주일학교였다. 이듬해인 1954년 여름에 첫번째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열렸고, 1973년으로 20번째를 맞이하였다. 또한 1964년 1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겨울어린이 성경학교도 열어 교계에 선구자적 영향을 주었으며 1972년까지 9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1966년부터는 유년주일학교 학생수가 870여명에 이르게 됨으로 단일체제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교육을 이루어 나갈 수 없게 되자 유년주일학생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를 유치부, 국민학교 1~3학년 어린이를 유년부, 국민학교 4~6학년 어린이를 초등부 등 모두 셋으로 나누어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과 1968년에 잠시 유년부와 유치부가 합하여진 일이 있으나 1969년부터 다시 나뉘어졌고 또한 1968년에는 유년주일학교가 다시금 신입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등 4부로 나뉘게 됨에따라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년부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역대 유년부 (유년주일학교) 부장으로는 박 창근·최 재성·김 광철·김 익화 장로등 여러분이며 1966년과 1968년 이후로는 최 석주 장로가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다. 또한 역대지도자로는 홍 중만·교 정수·임 승원 등 여러분이였으며 196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정 기성 목사가 역임하고 있다.

④ 초등부

초등부가 시작된 것은 1966년 유년주일학교가 유치부·유년부·초등부 등 셋으로 나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등 모든 교육과 행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1972년부터는 주일학교 운영의 통일성과 예비공부 등의 편의를 고려하여 단일공과를 3년 윤회제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해부터 교사들의 친교와 교제를 위하여 월1회 「벧새다」모임의 교사 모임을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오늘의 만나」라는 숙제지를 매주 발행하고 있으며, 1959년 이전부터 「새싹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오던 어린이면려회가 1960년에 「어린이회」로 그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여오고 있으며 월간으로 「충현 어린이」를 발행하다가 1966년부터 어린이회에서 「하얀마음」을 해마다 발행하여 현재 제 8호의 발간을 서두르고 있다.

역대 부장으로는 김 익화·김 창배·최 석주·윤 용규 등 여러분이였으며 197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송순일 장로가 역임하고 있다. 또한 지도로는 임 승원 목사가 1966년부터 1969년까지, 197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홍 종만 전도사가 역임하고 있다.

⑤ 중등부

1953년 9월 우리교회가 시작되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학생회」가 조직 되어 매주 아침마다 당시 김 창인 전도사가 성경공부를 실시한 것이 오늘날 중등부의 시작이었다.

교회설립 10주년을 맞는 1963년에 이르러는 주일학교 교육 방침에 의하여 중등부와 고등부로 학생회가 분리됨에 따라 중등부로 분리된 후 모든 주일학교 사업과 면려회 활동에 있어 중등부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는 교육과 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면서 1963년 중등부와 고등부로 분리당시 118명의 학생은 1966년에는 283명으로 늘어 크게 부흥하게 되었다.

또한 1963년에는 첫번째 「중등부 하기 수양회」가 열리어 처음으로 집중적

인 신앙훈련을 실시하는 기회가 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1966년 5월에는 제 1회 「가족성가경연대회」를 열었으며 1967년에는 「학부형 좌담회」도 열어 교회 활동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며 더욱 긴밀한 협조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968년에 이르러는 중등부의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제까지 비능률적이던 중등면려회 조직을 수정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오던 「70인전도대」를 전도부에 두어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노방전도를 더욱 힘있게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군병원과 고아원 등을 정기방문하게 되었다.

1971년부터는 부흥회를 겸한 동기성경학교를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전도활동 이외에 성경임송대회, 성가경연대회, 신앙옹변대회 등을 통하여 신앙훈련을 쌓고 있으며 1968년부터 해마다 회지 「실로암」을 발행하고 있다.

역대 부장으로는 조 현명·김 기정·전 희문·신 계택 등 여러분 장로였으며 1971년 이후로는 임 현덕 장로가 역임하고 있다. 또한 조 천일·이 중운·이 정심·조 해수·예 종탁·정 관일·윤 형철 등 여러 지도 교역자가 중등부 부흥을 위하여 힘썼고 1972년 4월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 우목 전도사가 충성을 다하고 있다.

⑥ 고등부

교회가 설립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 「학생회」라는 이름으로 당시 김 창인 전도사가 크게 관심을 가지고 직접 성경공부를 맡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 중·고등부의 출발이었다.

1963년 중등부와 고등부가 분리되기까지 김 관형 목사, 최 훈 강도사 등의 지도를 받아 오다가 1963년 「학생회」는 중등부와 고등부로 자기 분리되어 그 이후부터 주일학교 고등부로 새로운 출발을 보게 되었다.

1963년을 맞으며 그해 여름부터 고등부 하기 수양회를 열기 시작하여 매 회마다 학생들의 신앙 훈련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1971년 겨울부터는 동기수양회를 중등부와 합동으로 열어 오고 있다. 이처럼 여름과 겨울을 통한 집중적인 신앙훈련 못지않게 고등부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1965년 조

직된 「70인 전도대」의 활동이라 하겠다. 오늘날까지 고등부의 주요 활동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 사업은 전도 활동에 있어 온 교회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또한 1966년부터는 결석학생들의 심방과 출석을 독려하기 위한 「목요회」가 각 학교별로 조직되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결석학생의 출석 독려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역대 부장으로는 위 영환·조 현명·김 기정·김 창배·신 제택 장로 등 여러분이었으며, 지도로는 조 천일·신 예철·한 제호·이 정심·이 종윤·신 성중·천 섬덕 등 여러분이었다. 현재는 부장에 오 승률 장로와 지도에 정 관일 목사가 고등부의 성장을 위하여 온 힘을 주 앞에 쏟고 있다.

⑦ 대학부

교회설립이래 청년면려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온 대학생들이 대학부로 분리하게 된 것은 1970년부터이다. 대학생들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를 육성·발전시키어 교회 지도자의 배출에 뜻을 둔 대학부의 첫 예배는 43명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또한 이 동규 장로를 초대 부장에 허 일찬 목사가 지도로 부임하였다.

1970년 대학부 「지도 지침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확신을 얻게 하고 참다운 천국 일꾼으로 훈련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한다」는 교육목표로 성경공부·상담·토요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토요집회때에는 장래 교회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토요강좌에 큰 비중을 두어 교회와 성체, 기독교와 신학, 기독교의 역사관·세계관·인생관 및 기독교와 사회윤리, 기독교 정치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일 성경공부는 충현주일학교 교과 과정표에 준하여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초대 면려회 회장에 지 우목 군이 선출되어 초기 면려회의 기반을 굳히는 데 크게 활약하였는데 1970년 5월에는 회원 전체를 12개조로 편성하여 조별 활동의 강화로 회원간의 간격을 좁히는 데 힘썼다.

같은해 5월 허 일찬 목사의 사임으로 후임에 최 경식 재일교포 목사가 목

회 연구차 대학부를 지도하다가 8월에 일본으로 돌아가고 후임으로 송 철호 전도사가 임시로 지도하다가 1971년 총회 선교사로 우리교회에 목회 훈련차 파송되어 온 서 만수 선교사가 지도로 임명되었으나 불원간 임지로 떠날 것을 고려하여 같은해 4월 정 상우 목사를 또한 지도로 임명하였다.

1970년 여름부터 시작된 하기수양회를 비롯하여 대학부의 면려회 활동은 특별히 그 폭의 넓음과 다양함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람직한 천국 일꾼이 되기 위한 여러가지 신앙훈련뿐만이 아니라 정치·문화·경제 등에도 광범위하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또한 매주 오후마다 실시되는 노방전도는 머리속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생활속에 살아 움직이는 신앙인으로 훈련을 쌓기 위한 더할수없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성과 열의는 대단하다.

현재 부장은 김 창배 장로가 맡아 충성을 다하고 있으며, 1972년 고등부 지도이던 천 성덕 목사를 맞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⑧ 청년부

1953년 교회설립이래 조직과 활동면에서 미비된 상태로 전담교역자가 없이 유지되어 오던 청년회는 1956년 청년면려회가 조직되어 점차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1957년 대학생회가 청년회와 통합하게 되면서 한층 더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청년부는 1956년 9월 시내 돈암동의 성암교회를 개척한 이래 1959년 두번째로 시내 상도동의 상도교회를 전도지로 삼아 개척활동을 하였으며 1960년에는 우리교회에서 처음으로 교회 지교회인 충남 서산교회에 「청년회계몽대」가 파송되었다. 당시에도 대부분의 회원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활동하여 주일학교 교사의 근거지로 주일학교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고 전도활동에도 뜨거운 젊은 피를 바쳐 언제나 일선에 서서 봉사하여 왔다.

1961년 조 천일 목사가 지도로 취임하면서 대부분의 구성원이 대학생이라 하여 「청년회」를 「대학생회」라 그 이름을 바꾸고 1962년 회지 「웹시바」창간호를 내었고 계속 여러호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1963년 일반 청년들의 포섭

을 위하여 다시 「청년회」로 그 이름을 바꾸어 한 철하·신 예철·한 제호·김 의환 목사 등의 지도를 받아 오게 되었다.

1963년에는 정식으로 기독교장년면려회(C.E.)에 가입하여 대외기관에까지 청년회 활동이 떨었으며 1968년에는 회원들의 선교정신의 함양을 위하여 선교부를 신설하고 6월에는 「선교부흥회」를 열고 각종 선교자료 전시회도 열어 회원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다. 같은해 6월 김 의환 목사의 후임으로 백 성룡 목사가 지도로 임명되어 주로 성경감해를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다.

1969년에 들어 허 일찬 목사가 지도하던중 주일학교 교육방침에 의하여 1970년부터 청년부와 대학부로 분리하게 되고 허 일찬 목사는 대학부 지도로 임명됨에 지도자의 공백을 이루었다. 다시 1970년 2월 황 성수 집사가 임명되었으나 5월에 사임하게 되자 다시 홍 종만 전도사, 백성룡 목사가 임시로 지도하다가 1972년 대학부를 지도하던 정 상우 목사가 청년부를 전담(부지도에 이 종영 전도사), 지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말부터 일기 시작한 성령님의 강한 역사의 결과로 청년회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었고, 말씀을 상고하며 교회밖으로 나아가 곳곳에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었던 것이다. 같은해 Y. M. C. A. 수양관에서 있었던 하기수양회를 계기로 회원 하나 하나를 토의에 직접 끌어들이는 그룹토의식으로 성경공부 방법을 바꾸게 되었으며 또한 4개조로 회원 전체를 편성하여 각조 조장의 인도로 성경에 대한 자발적인 연구·토의 발표를 하도록 유도하여 큰 성과를 보게 되었다. 1973년에 이르러는 전회원을 다시 8개조로 나누었으며 오후 집회를 정기적인 성경공부시간으로 가지고 1시간 30분 동안 말씀에 대하여 연구한 바를 서로 발표·토론하여 피차 큰 은혜를 받고 있다.

역대 부장으로는 황 기성·허 준·김 익화·송 순일·전 회문·조 현명 등 여러분이며 현재 부장에 이 동규 장로, 지도에 정 상우 목사로 평균 86명의 회원들이 출석하여 신앙훈련을 쌓고 있다.

⑨ 장년부

장년부가 그 첫 문을 열고 주일공부를 시작한 것은 1956년부터이다. 초기에는 매 주일 아침 대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 강해를 중시하여 장년부 주일공부가 실시되었다.

개교 당시 초대 부장 황 해성 장로와 지도교역자 문 춘운 목사 외 15명의 교사가 봉사하였으며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수나 학생수에 있어서 별달리 큰 변화가 없이 지나갔다. 1970년에 이르러서는 반별 분반공부를 실시하여 보았으나 장소도 비좁고 지도교사의 수급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시 합반하여 주일공부를 실시하고 있다.

1971년부터는 장년부에도 특별활동을 시도하여 성경 퀴즈대회, 찬송가 경연대회 등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오고 있으며 1972년부터 새신자들을 위하여 교리반을 신설하고 이 두란 전도사가 이를 담당하여 지도해 오고 있다. 현재 총회 발행 장년부 공과를 가지고 매 주일 아침 11시 50분부터 본당 아래층에서 공과공부를 하고 있으며 3개월을 1학기로 하여 매학기마다 공부 내용에 대한 시험도 실시하고 있다.

장년부 역대 부장으로는 초대 황 해성 장로를 비롯하여 홍 수정·전 희문 장로 등이며 지도교역자로는 신 예철·김 용찬·백 성룡 목사에 이어 현재는 부장에 한 명옥 장로, 지도 교역자에 김 재창 목사가 역임하고 있다.

⑩ 지도자양성부

점차 증가되어 가는 교인들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1971년 12월 당회는 지도자양성부를 주일학교내 상설기구로 두기로 하고 주일학교 교사 양성, 가정교육 지도자(부모) 양성,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그 목표로 하여 6개월 과정으로 하기로 하고 1972년 2월 6일 제1기생이 개강하였다.

1972년 7월에는 농어촌에 있는 10개 교회의 26명의 교사를 초청하여 첫 번째 「농어촌교사초청훈련」을 실시하여 큰 성과가 있었고 1973년에는 크게 발전하여 50개 교회 89명의 농어촌 교사가 초청되어 8월 2일부터 5일까지

훈련을 받았다. 또한 같은해 1월에는 교사 단기강습회를 실시하여 171명의 교사에게 주일학교 교사자격증을 수여하였으며 이어서 있는 첫번째 구역권찰훈련을 도와 성공적으로 끝맺을 수 있게 하였다.

1973년 3월 18일로 「지도자 양성부」 제3기까지 모두 95명이 수료하였으며 8월말 현재 제4기생 136명과 제5기생이 수강중에 있다. 양성부의 교과 과정으로는 신·구약개론, 교리, 교회사 및 교육학 등으로 일주일에 2시간씩 실시하여 왔다.

1973년 9월을 기하여 「지도자양성부」는 설립 20주년 기념사업과 연관하여 7월 29일 설립된 「충현 성경학원」에 흡수됨으로써 주일학교 소속의 「지도자 양성부」는 자연 폐교되었다.

개교 이후 폐교되기까지 부장에 신 계택 장로, 지도에 김 재창 목사와 홍종만 전도사가 책임을 다하였다.

(14) 충현성경학원

우리교회가 천국 일꾼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오래 전부터 구상하여 온 「성경학원」 설립이 1973년 교회설립 20주년기념사업으로 채택되어 같은해 7월 29일에 당회는 다음과 같이 성경학원을 위한 조직담당자를 선임하였다.

이사장 김 창인, 이사 위 영환·김 광철·김 기정·송 순일·조 현명·신 계택·임 현복·정 봉조, 감사 윤 종순·최 석주, 원장 김 창인, 원감 신계택 등 여러분이다.

이 성경학원은 건전한 평신도 훈련을 목적으로하여 3년제 야간이며 한 주일에 4일간(월·화·수·목) 수업을 실시하고 교과과정은 성경전서를 중점으로 하여 우리교회의 교역자들로 구성된 강사로 1973년 9월 18일 개교하게 되어 있다.

초대 전임교역자로 홍종만 전도사, 교무에 김창배 장로가 임명되어 교무에 관한 전반적 업무를 맡아보고 있다.

(15) 교회 기관지 「충현」

1967년 1월 29일 당회는 주일학교 각부(유년·초등·중등·고등)에서 제 각기 발행하고 있는 회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통합발행할 것을 승인·가결하니 교육위원회의 이름으로 1967년 3월 12일 「충현주교」 창간호가 발행된 것이 현재 발행되고 있는 「충현」의 전신이라 할 수도 있다.

16절 크기의 8페이지인 창간호는 발행인 조 천일, 편집인 조 선근이었으며 편집위원에 김 용찬·우 중구·황 회양·예 종탁·손 경수·김 차생 등 여러분으로 각부의 소식과 활동상황을 알리는데 더 중점을 두는 한편 각부 간에 대화의 광장으로서의 구실을 하려 하였다.

곧 16페이지로 증면된 「충현주교」가 1970년 12월 20일 제4권 제8호(통권 36호)를 마지막으로 「충현주교」의 막을 내릴 때까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1968년 6월 16일의 제2권 제1호부터는 발행인이 주일학교 교장 김 창인으로 바뀌었으며 역대 주간에 조 천일·허 일찬·백 성동 목사, 편집인에 조 선근·정 기성·신 성종·임 승원·이 종표 등 여러분이었다.

1970년 11월 8일 당회는 주일학교 중심의 「충현주교」의 발행을 중지하고 교회의 전체면을 중점으로 하는 16페이지 정도의 「충현」을 연4회로 발행할 것을 계획하였다.

당회의 이러한 계획이 있는 지 1년 6개월 만인 1972년 4월 30일 충현교회의 이름으로 발행인을 김 창인, 편집인을 윤 종순으로 하여 「충현」 창간호가 문서를 통한 성도의 교육과 교회의 방침을 교우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발행되었다.

창간호의 편집위원장으로는 윤 종순, 위원에 최 석주·이 동규·홍 종만, 간사에 이 종표·백 진주·조 선근 등 여러분이었으며 1973년 7월 8일 통권 제7호가 발행되었고 1973년 2월 이후 노 의일 전도사가 사임한 이 종표·백 진주 전도사의 후임으로 간사에 임명되어 수고하며 취재기자로 정 은표·김 현권·한 성실·한 근옥 등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다.

제 3 장 현 황

<1973년 8월 말 현재>

□ 성 구 □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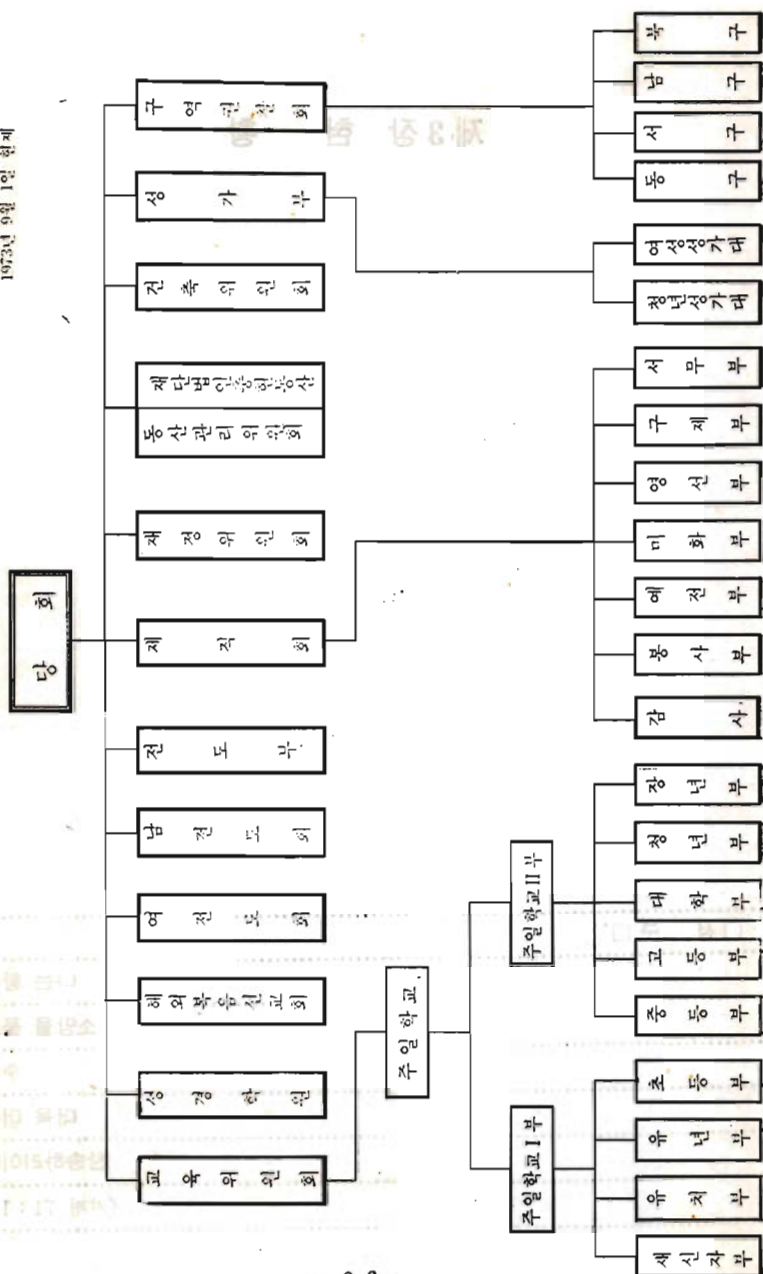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 : 14)

का
क
ख
ख
ग
ग

1973년 9월 1일 화요일



1. 당 회

당 회 장 : 김 창인

서 기 : 위 영환

부 서 기 : 이 태규

당 회 원 : 우 성원

김 천준

한 명옥

김 광철

황 기성

허 준

조 현명

김 한훈

송 순일

윤 종순

김 기정

전 희문

윤 종성

김 창배

임 광식

임 현덕

최 석주

신 계택

이 창준

이 동규

오 승물

황 창룡

공 로 장 로 : 강 지순

오 중탁

2. 교 역 자

위 임 목 사 : 김 창인

부 목 사 : 백 성룡

김 재창 정 상우 김 종택 천 성덕 정 기성 정 관일

남 전 도 사 : 홍 종만

공로전도사 : 김 연순

이 명달

여 전 도 사 : 차 진형

이 두란

최 순복

강 봉선

교육전도사 : 지 우복

노 의일

이 종영

정 연희

3. 제 직 회

회 장 : 김 창인

서 기 : 이 웅선

부 서 기 : 최 성립

회 계 : 윤 종성

십일조회계 : 윤 명식

박 관영

김 성국

월 정 회 계 : 김 방진

김 성택

집 금 회 계 : 김 정선

서 일영

김 만익

송 귀남

서 무 부 장 : 윤 종순

예 전 부 장 : 전 희문

영 선 부 장 : 우 성원

구 제 부 장 : 황 창룡

봉 사 부 장 : 이 희연

미 화 부 장 : 박 봉주

감 사 : 윤 종순

송 순일

김 창배

제 직 회 원 :

<장 로> 강지순

김광철

김기정

김천준

김한훈

신계택

오승물

오중탁

위영환

이동규

이창준

이태규

임광식

임현덕

조현명

최석주

한명옥

허 준

황기성

이봉섭

조진연

<교 역 자> 백성룡

김재창

정상우

김종택

천성덕

정기성

정관일

	홍종만	차진형	이두란	최순복	강봉선	김연순	이명달
〈안수집사〉	공용빈	김도걸	문인택	박창수	윤두한	윤용규	이창업
〈권 사〉	계수익	구경숙	김능복	김대복	김란희	김봉재	김상현
	김선복	김순철	김애채	김영화	김용배	김윤성	김의저
	김정숙	김정옥	김정임	김춘선	김화면	나화봉	문정애
	민원옥	박경복	박성기	박순은	박용주	박호소	백인숙
	서상연	안윤진	양정백	유미희	윤수현	윤옥진	이곤녀
	이분전	이명자	이성애	이신주	이영주	이옥순	이외열
	이윤호	이재룡	이창옥	이춘식	이학주	임지석	임현복
	장문순	전성조	전정숙	정봉조	조순호	지소지	최무비
	최정자	허미주	홍순복				
〈남 집 사〉	강명순	강순용	강신의	강은원	권경열	길원필	김경철
	김광려	김광삼	김광신	김규환	김덕영	김동원	김봉의
	김성주	김안옥	김영개	김영삼	김영생	김영진	김은호
	김의철	김재균	김재면	김정열	김정일	김종구	김종석
	김준옥	김준호	김차생	김창옥	김창현	김찬채	김태현
	김한진	김호식	남상철	남선우	노광민	노광현	노이삼
	마성락	문배인	박두성	박용삼	박재용	박형근	배한웅
	서동석	석정훈	성찬경	손경수	손동운	송기영	송리명
	송영섭	송환창	신병모	신영대	신윤호	신현상	심인경
	심정우	안익태	양춘선	오정현	오태희	우기정	유병세
	유병양	유복부	윤만철	윤인현	이기철	이돈성	이병학
	이성복	이인상	이조영	이종섭	이준교	이효은	이 훈
	이희권	장귀성	장명규	장병기	장봉순	전상국	전용석
	정삼석	정서태	정영남	정운석	정홍근	조남석	조선근
	주축원	지금산	최무길	최찬후	최판성	하대선	한경일
	한신호	한영석	한일연	홍기훈	홍정해	홍찬옥	
〈여 집 사〉	강경자	강유절	강혜숙	경홍옥	계명선	고신옥	고정임
	고희주	구명신	권명주	권연순	김경숙	김경임	김경희
	김남순	김능실	김동옥	김동호	김두성	김려옥	김매녀
	김명숙	김병준	김보비	김복녀	김복희	김봉선	김봉주
	김분임	김석운	김선주	김성신	김성애	김세동	김 순
	김순복	김순선	김순애	김순초	김순호	김신덕	김애순
	김영남	김영복	김영옥	김영자	김영자	김영희	김옥태
	김옥순	김옥진	김원혜	김윤애	김은애	김은주	김용실

김인숙	김인준	김인화	김인화	김정례	김정숙	김정숙
김정옥	김정임	김조영	김중복	김진실	김창린	김창숙
김춘지	김춘희	김효정	김후전	김희옥	김희자	남숙덕
노승녀	노영숙	명순덕	문명숙	문명애	문선옥	문숙녀
문옥순	문정숙	민금향	민순애	민은혜	박기련	박복순
박봉희	박석순	박선자	박순규	박순봉	박순옥	박연섭
박영신	박옥식	박월희	박의범	박정신	박진엽	박치정
박현정	박형자	방계운	배옥인	백금순	백도선	백부엽
백선연	백순희	백죽심	변순복	변인옥	변철순	변형용
서무갑	서 옥	서용근	석옥순	석혜자	성복순	손명순
송명희	송보경	송형섭	신군자	신순덕	신순동	신채봉
심 숙	안경현	안기옥	안유향	안인현	안진복	양경용
양숙란	양순돌	양승희	양정옥	양태현	어은애	엄경희
여옥기	오덕희	오복실	오순덕	오춘화	오희명	우문희
원도화	원 옥	원옥순	유갑순	유말선	유분홍	유순녀
유정수	유정일	윤순녀	윤순탄	윤여전	윤인숙	음옥주
이강희	이제순	이국희	이귀분	이귀옥	이규하	이길남
이남아	이대순	이대실	이덕순	이명자	이몽숙	이문자
이복록	이봉남	이봉재	이부전	이성숙	이숙영	이순근
이순녀	이순달	이신일	이에강	이옥녀	이용점	이의복
이재춘	이점순	이정신	이정애	이정옥	이정자	이창순
이춘심	이춘일	이현순	이혜숙	이희수	임금전	임순철
임춘선	임화순	장기옥	장수정	장순실	장영옥	전명녀
전순임	전순자	전영복	전영화	전옥녀	전인화	전점례
정불관	정삼례	정삼엽	정선화	정송화	정순애	정순오
정순자	정양순	정영애	정예순	정원향	정의숙	정임순
정정옥	정춘수	조계진	조기형	조동숙	조말례	조선복
조순덕	조신애	조영춘	조옥섬	조인순	조춘옥	조필숙
지숙원	지영실	지은영	지중봉	진옥희	차순정	채태선
천병희	최경복	최경숙	최경순	최경애	최귀영	최금순
최무정	최복순	최봉숙	최봉업	최봉이	최순자	최애숙
최영전	최영호	최옥동	최임덕	최정순	최친금	최홍신
하소담	하영자	한경신	한경옥	한금희	한동숙	한 복
한순명	한순원	한정숙	한정숙	합송현	허경숙	허운실
홍애경	홍영옥	홍원선	황성례	황숙영		532명

4. 구역권찰회

회 장 : 백 성룡 목사

서 기 : 김 은호 집사

〈동부지역〉 담당 : 김 재창 목사 최 순복 전도사

구역명	담당장로	담당권사	구역장	권	찰
쌍림동 :	송 순일	홍 순복	김 영생	양 순돌	오 경옥 이 현순
광희동 :	이 태규	김 봉재	유 병세	오 춘화	노 수경 지 영실 김 순애
신당동 :	허 준	장 문순	정 석태	이 창순	백 복엽 박 석순 김 분선
홍인동 :	허 준	지 소지	김 중석	이 춘심	정 삼배 정 순오
청구동 :	윤 종순	전 정숙	김 성국	정 순자	최 옥동 최 순란
금호동 :	황 창룡	이 곤녀	박 창수	이 재춘	박 선자 이 보금
옥수동 :	황 창룡	최 정자	한 일연	김 명숙	허 경숙
왕십리 :	황 기성	문 정애	우 기전	임 춘선	조 신애 최 금순 김 동호
마장동 :	황 기성	김 용례	손 등운	최 경복	윤 병인 송 귀남
성수동 :	이 동규	김 상권	김 중구	김 인화	신 체봉
화양동 :	이 동규	안 윤진	노 이삼	김 은애	김 영복 신 영순 정 불관 엄 명진
천호동 :	이 동규	윤 옥진	윤 두한	권 연순	양 정옥 문 영숙 전 영화 장 순실
답십리 :	우 성원	이 신주	김 은호	정 춘수	윤 여전
휘경동 :	우 성원	김 란희	이 병학	김 세동	오 복실 이 점순 김 인춘
दन동 :	우 성원	허 미주	한 신희	송 형섭	임 순심 문 정숙 김 순초 최 성도

〈서부지역〉 담 당 : 백 성룡 목사 강 봉선 전도사

구역명	담당장로	담당권사	구역장	권	찰
충무로 :	이 태규	이 분전	김 만익	박 연섭	조 필숙 백 영희 이 인숙 김 란옥
충 부 :	송 순일	이 윤호	김 정선	양 경용	김 순호 조 계진
북 정 :	신 계택	김 정선	김 재균	최 순자	한 경신 김 병숙 조 옥석
화 원 :	김 한홍	전 성조	주 숙원	김 보비	강 유점 진 희순 김 순복
인현① :	김 한홍	김 영화	김 도점	최 귀영	김 정혜 전 순임
인현② :	김 한홍	김 정임	전 용석	이 남아	김 운심 김 중복 장 수정
초 동 :	김 광철	이 희연	전 상국	변 형용	어 은애 이 복록 박 복순
중 로 :	윤 종성	이 명자	최 무길	전 순자	신 군자 석 옥순

효자동 : 윤 증성 김 춘선 김 천재 전 옥녀 김 애순 윤 수원
 서대문 : 임 광식 백 인숙 박 두성 나 봉녀 최 영전 원 옥 우 문희
 용암동 : 전 희문 이 창옥 김 경철 안 경현 이 문자 김 분임 민 인자
 불광동 : 송 순일 이 춘식 송 영섭 김 영희 이 용집 김 영옥
 신 촌 : 전 희문 김 윤성 심 정우 김 원혜 이 명자 이 강희
 서교동 : 전 희문 백 인숙 이 응선 김 복희 박 순봉 여 옥기 김 정숙
 마 포 : 이 창준 박 경복 장 봉순 이 춘일 이 정자 남궁 규원 오 덕희

〈남부지역〉 담 당 : 정 상우 목사 이 두란 전도사

구역명	담당장로	담당권사	구역장	권	찰
필동① : 오 승률	임 현복	이 기철	명 순덕	백 선연	김 화춘
필동② : 오 승률	유 미희	오 승률	안 인현	김 옥진	변 인옥
회 현 : 임 광식	이 학주	홍 찬옥	김 봉천	방 계운	김 복녀
장충① : 신 제택	서 상연	권 경열	허 윤실	고 정임	지 숙원 김 윤진
장충② : 신 제택	방 성기	서 일영	박 기현	조 동숙	이 덕순 이 저분
약 수 : 윤 중순	정 봉조	강 순용	구 명신	이 정신	정 임순 채 태선
한 남 : 황 창룡	김 선복	신 영대	신 순덕	김 옥래	김 정옥 김 후전 임 정자
용 산 : 이 창준	박 호소	김 준옥	조 순덕	윤 인숙	한 경옥 최 정순
청 파 : 이 창준	이 재룡	하 대선	김 효정	백 순희	김 경숙
여의도 : 조 현명	김 대복	박 용삼	이 대순	최 천금	장 순자
화 곡 : 임 현덕	이 외열	오 태희	최 영옥	홍 영옥	이 정옥
상 도 : 조 현명	양 정백	김 안옥	이 순녀	장 귀옥	정 정옥
대 방 : 임 현덕	김 애채	박 관용	김 신덕	변 순복	조 성은 김 병준
개 봉 : 임 현덕	조 순호	장 귀성	이 길남		
영 동 : 조 현명	김 선복	조 선근			

〈북부지역〉 담 당 : 김 종택 목사 차 진형 전도사

구역명	담당장로	담당권사	구역장	권	찰
윤지로 : 김 광철	김 정숙	이 창업	백 도선	정 의숙	유 정수 서 옥
동대문 : 김 기정	이 영주	김 방진	성 복순	제 명선	박 영자
명륜동 : 김 기정	박 봉주	유 복부	이 순근	서 무갑	최 병순 이 혼선
창신동 : 최 석주	최 무비	공 용빈	임 화순	박 영자	경 홍옥
청량리 : 최 석주	구 경숙	심 인경	이 순달	이 옥영	이 제순
성북동 : 김 창배	나 화봉	강 은원	신 성	이 부진	최 경순
삼선동 : 김 창배	나 화봉	신 현상	심 숙	전 옥희	차 정은 이 에강

돈암동 : 김 창배 민 원옥 김 영개 이 신일 이 봉재 임 순철 박 진엽
 미아리 : 한 명옥 임 지성 안 익태 김 동옥 김 춘경 남 일호
 정농동 : 한 명옥 이 성애 최 성립 최 무정 최 임덕 이 옥인
 월곡동 : 한 명옥 김 정옥 김 성택 백 죽십 양 재숙
 삼양동 : 김 찬준 김 화련 윤 용규 안 차녀 백 현옥 김 봉주
 수유리 : 김 찬준 김 능부 정 영남 한 송현 박 병희 백 금순 이 숙영 조 기형
 중앙동 : 위 영환 김 순철 이 준교 남 숙덕 김 창린 조 영춘 이 인경 김 려욱
 장위동 : 위 영환 김 순철 신 윤호 최 경숙 하 소담 장 기옥 곽 성욱 고 신옥

5. 전 도 부

부 장 : 김 광철 지 도 : 천 성덕

〈주요사업〉 • 각종 전도 전략 연구 수립

• 회보 및 전도지 발간

• 전도요원 양성

• 대외 전도기관 보조

6. 남전도회

회 장 : 신 제택 부회장 : 강 순용

서 기 : 이 기철

부서기 : 장 병기

회 계 : 정 석태 부회계 : 이 병학

전도부장 : 전 희문

차 장 : 김 준옥

봉사부장 : 김 정열 차 장 : 손 경수

섭외부장 : 김 안옥

차 장 : 김 차생

예전부장 : 심 인경 차 장 : 김 종석

지육부장 : 노 이삼

차 장 : 조 선근

구제부장 : 이 창준 차 장 : 김 도점

음악부장 : 이 효은

차 장 : 한 영석

〈주요사업〉 • 개척교회 지원

• 노방전도

• 방송전도

• 구제사업

• 회지발간

• 회원자질 향상

〈회원수〉 141명

7. 여전도회

회 장 : 이 영주 부회장 : 박 봉주 • 이 춘식

서 기 : 구 명신 부서기 : 박 기련

회 계 : 유 미희 부회계 : 유 분홍

전도부장 : 전 순자 차 장 : 이 윤호

심방부장 : 어 은애 차 장 : 김 정례

사교부장 : 김 춘선 차 장 : 노 영숙

음악부장 : 박 옥식 차 장 : 전 인화

봉사부장 : 정 선화 차 장 : 최 순자

예전부장 : 전 성조 차 장 : 윤 순녀

성미부장 : 김 상권 차 장 : 유 순녀

지육부장 : 김 영화 차 장 : 지 영실

구제부장 : 양 정백 차 장 : 정 봉조

〈주요사업〉 • 전방 군인교회 보조

• 중부 시립병원 전도

• 신학 장학생 장학금 지급 • 배 월례회시 성경암송경연
 〈회원수〉 558명

8. 해외복음선교회

회 장 : 김 광철 부회장 : 위 영환 서기 : 최 석주 회계 : 이 동규
 〈실행위원〉 한 명옥 임 광식 김 기정 신 제택 이 창업 이 창준
 남 상철 송 리명 유 병세 손 명순 유 순녀 이 영주
 전 순자 정 선화
 〈주요사업〉 • 해외 선교사 파송 • 선교사 후보생 훈련
 • 선교회 회보 발간
 〈선교사후보생〉 이 종영
 〈회원수〉 402명

9. 교육위원회

위원장 : 김 재창 서 기 : 최 석주 부서기 : 오 승률 회 계 : 김 창배
 〈위원〉 한 명옥 조 현명 송 순일 임 현덕 신 제택 김 한울
 이 동규 오 승률 백 성룡 정 상우 천 성덕 정 기성
 정 관일 홍 종만 지 우목 노 의일 이 종영 이 두란
 정 연희
 〈주요사업〉 • 주일학교 각부 평가회 • 성경통신강좌
 • 교사 부흥회 • 교사 수양회

10. 주 일 학 교

교 장 : 김 창인 교 감 : 김 재창
 〈총교사수〉 293명(남 156명, 여 137명) 〈총학생수〉 2,697명(남 1,233명, 여 1,464명)

(1) 새신자부

부 장 : 김 한울 부 감 : 신 영태 • 박 기련 지도 : 김 종택 부지도 : 노 의인
 총부처장 : 김 도점 교무처장 : 한 송규 신입관리처장 : 김 도점 회계과장 : 배 금희
 서기과장 : 김 혜옥 조사과장 : 배 금희 축위과장 : 안 정숙 봉사과장 : 이 성애
 학습지도과장 : 노 경모 음악과장 : 박 행렬 관리 : 김 수성
 〈남교사〉 김 도점 김 성주 김 수성 김 남운 노 경모 박 창균
 박 행렬 윤 봉준 이 배수 임 광식 정 운석 조 남석
 한 송규 홍 용웅 18명

〈여교사〉 김 순선 김 순애 김 영희 김 혜옥 배 금희 신 성자
 안 정숙 이 성애 이 영자 이 혜봉 장 영화 차 영심
 최 회자 홍 인숙 14명

〈주요사업〉 • 자체 교사 자질향상 훈련

• 새신자 훈련

• 연구수업

• 여름 · 겨울 성경학교

〈학생수〉 50명(남 28명, 여 22명)

(2) 유 치 부

부 장 : 조 현명 부 감 : 김 봉재 지도 : 정 연희 회계 : 홍 풍작
 서 기 : 박 윤옥 부서기 : 최 수경 음영 : 김 인(지회) 최 수행(반주)
 학습지도 : 주 복순 도 시 : 한 경순 예배 : 박 숙엽 축위 : 이 경애
 행 사 : 이 찬애 심 방 : 김 정자 미화 : 장 경애 봉사 : 강 옥희
 〈여교사〉 강 옥희 강 화순 김 자영 김 인 명 정옥 박 숙엽
 박 윤옥 오 춘연 이 경애 이 신실 이 정숙 이 찬애
 장 경애 진 금만 주 복순 최 수경 최 수행 한 경순
 황 지혜자 홍 풍작 김 정자 22명

〈주요사업〉 • 성경 안송대회 • 반별 찬송가 부르기 대회 • 여름 · 겨울 성경학교
 • 학부형 좌담회

〈학생수〉 172명(남 87명, 여 85명)

(3) 유 년 부

부장 : 최 석주 부감 : 손 동운 · 김 영자 지도 : 정 기성
 총무처장 : 서 일영 교무처장 : 박 용삼
 생활지도처장 : 김 준옥 회계과장 : 서 일영 서기과장 : 이 형수
 음영과장 : 박 용삼 제 1과장 : 김 은호 제 2과장 : 길 원필
 제 3과장 : 김 인식 전도과장 : 김 은태 심방과장 : 김 중구 장 봉순
 지육과장 : 최 무진 봉사과장 : 최 하자 축위과장 : 송 선지
 〈남교사〉 길 원필 김 광호 김 은태 김 은호 김 인식 김 정석
 김 중구 김 준옥 김 철영 박 동열 박 용삼 서 일영
 안 석현 유 회주 이 재원 이 형수 임 성운 장 봉순
 장 성훈 장 주영 장 충균 정 홍관 최 무진 한 광조
 28명

〈여교사〉 강 혜영 권 석연 권 석애 김 연옥 김 정희 김 태희
 나 경자 남 양희 문 미리 박 복실 박 선희 박 혜성
 백 희연 송 선자 송 회정 유 미숙 유 순규 이 명희
 이 선숙 이 옥균 이 윤자 이 혜영 임 복인 임 성걸

임 은숙 임 종숙 전 명순 정 정신 주 성희 최 성혜
최 하자 채 덕희 33명

<주요사업> • 반별 찬송가 부르기 대회 • 성경교사대회
• 성경압송대회 • 지녀성직 시상

<학생수> 400명(남 208명, 여 192명)

(4) 초 등 부

부 장 : 송 순일 부 감 : 김 경칠 · 이의복 지도 : 홍 종만
총무처장 : 오 용기 교무처장 : 김 차생 생활지도처장 : 손 경수
회계과장 : 송 영섭 서기과장 : 오 용기 음영과장 : 송 기영 심방과장 : 최 선희
제 4과장 : 강 은원 제 5과장 : 정 은표 제 6과장 : 배 한웅
전도과장 : 오 정수 지육과장 : 손 경수 봉사과장 : 최 선희
측위과장 : 이 혜숙 어린이회지도 : 조 선근 · 한 근옥

<남교사> 강 은원 권 석기 김 광려 김 성국 김 성길 김 승배
김 차생 김 현련 김 환기 박 관영 박 윤식 배 한웅
서 동식 손 경수 송 기영 송 영섭 신 재원 신 영권
안 병복 안 석렬 오 정수 오 용기 오 인규 오 현구
유 국현 유 기종 윤 광일 윤 성철 윤 완철 이 욱
장 병기 전 승엽 정 관호 정 은표 조 선근 최 성현
한 석진 황 주철 42명

<여교사> 김 수영 김 옥양 김 점순 박 문숙 백 선혜 송 지춘
오 신숙 오 윤숙 윤 춘강 이 상열 이 영숙 이 혜숙
장 정화 정 인숙 정 진순 조 영자 최 길자 최 선희
한 근옥 한 성실 한 숙경 한 혜순 22명

<주요사업> • 매주 「오늘의 만나」 문제지 배부 • 학기말교사 실시
• 어린이회 운영 • 노방전도

<학생수> 524명(남 252명, 여 272명)

<어린이회> 지도교사 : 조 선근 · 한 근옥

회 장 : 마 동훈 부회장 : 백 세오 · 서 은영
총 무 : 홍 미라 서 기 : 홍 도표 · 송 복화
회 계 : 서 정경 · 이 정립
전 도 부 : 김 광민 · 문 영주 지 육 부 : 김 준석 · 정 해리
음 악 부 : 김 광태 · 정 윤주 봉 사 부 : 윤 지웅 · 김 은경
장 학 부 : 최 승현 · 윤 혜경 「어린이양」 기자 : 우 정화 · 이 승혜

<주요사업> • 충현 어린이 수양회 • 어린이 헌신 예배
• 충현 어린이 발표회 • 회지 「하얀마음」 발간

(5) 중 등 부

부 장: 임 헌덕	부 감: 석 정훈	•이 회수	지도: 지 우목
총무처장: 노 이삼	교무처장: 심 인경	생활지도처장: 김 종석	
서기과장: 노 이삼	회계과장: 김 순애	제 1과장: 문 홍구	
제 2과장: 오 태희	제 3과장: 김 안옥	신입과장: 강 순용	
봉사과장: 김 옥집	측위과장: 최 명자	심방과장: 김 영진	
전도과장: 김 정선	음영과장: 이 병학	면려회지도: 지 우목	
〈남교사〉 강 순용	권 영상	김 방진	김 안옥 김 영진 김 원선
김 정선	김 종석	김 치일	남 선우 노 문환 노 이삼
문 홍구	박 형곤	심 인경	오 정현 오 태희 이 병학
이 양우	이 효은	장 철환	정 홍식 25명
〈여교사〉 강 순희	고 제숙	박 병옥	김 상권 김 순애 김 옥집
김 옥진	김 회영	문 옥순	위 희숙 이 순녀 이 정애
이 회수	장 혜정	정 관춘	최 명자 황 복순 17명
〈주요사업〉	•하기 및 동기 수양회	•70인전도대 노방전도	
	•학교별 대의원 활동	•성경퀴즈대회 및 압송대회	
	•성가 경연대회		

〈학생수〉 468명(남 241명, 여 227명)

〈면려회〉 회 장: 정 관석	부회장: 양 영숙	총 무: 변 종식	친 혜정
서 기: 유 인규	정 현영	회 계: 한 덕구	김 성숙
전도부: 최영락	장 병화	심방부: 이 영수	김 정희
문화부: 김 상진	문 영란	교육부: 양 국석	추 정희
음악부: 박 운식	기 은경	회우부: 신 성운	이 수애

(6) 고 등 부

부 장: 오 승철	부 감: 전 용석	•임 금진	지도: 정 관일
총무처장: 김 영개	교무처장: 김 정열	생활지도처장: 최 성립	
서 기: 장: 최 병식	회계과장: 김 영개	제 1과장: 유 병세	
제 2과장: 김 의철	제 3과장: 정 영남	신입과장: 김 정열	
봉사과장: 유 미희	측위과장: 김 희진	심방과장: 이 인희	
전도과장: 최 우권	음영과장: 임 태주	면려회지도: 정 관일	
〈남교사〉 김 경립	김 영개	김 의철	박 정하 박 채용 서 상근
오 해창	유 병세	윤 명식	이 응선 이 인희 전 상국
정 영남	차 신득	최 성립	최 우권 황 성현 홍 중섭
김 정환			21명

〈여교사〉 김 순호 김 희진 안 유향 유 미희 유 시주 이 승순
임 태주 조 경숙 조 경옥 조 춘옥 11명

〈주요사업〉 • 동기 · 하기 수양회 • 성경 퀴즈대회 • 성가 경연대회
• 반별 생활지도 • 노방전도

〈학생수〉 391명(남 181명, 여 210명)

〈면려회〉 회 장: 주 영민 부회장: 홍 성식 · 이 인희 총 무: 유 순원
서 기: 안 석호 박 영희 회 계: 정 원근 김 수련
목요부: 백 남인 유 성숙 봉사부: 김 종권 김 경옥
문화부: 김 일우 김 옥영 신앙부: 김 영환 장 선애
음악부: 안 세현 김 정애 전도부: 박 찬왕 박 규남
회우부: 정 관용 전 신애

(7) 대 학 부

부 장: 김 창배 부 감: 김 성주 · 백 인숙 지도: 천 성덕
〈주요사업〉 • 주일 성경공부 • 노방전도 • 토요집회
• 철야 기도회 • 회지 발간

〈교사수〉 6명(남 4명, 여 2명) 〈학생수〉 222명(남 110명, 여 112명)

〈면려회〉 회 장: 박 행렬 부회장: 장 주영 문 미리
총 무: 유 국현 이 성애 서 기: 노 경모 신 경자
회 계: 김 은태 정 관춘 전도부: 김 현권 최 수행
문화부: 안 석렬 오 윤숙 지육부: 이 정호 김 연옥
회우부: 김 수성 배 금희 음악부: 박 윤식 이 영자
성가부: 한 광조 홍 인숙

(8) 청 년 부

부장: 이 동규 부감: 윤 용규 · 안 윤진 지도: 정 상우 부지도: 이종영
〈주요사업〉 • 노방전도 • 그룹 성경공부 • 회보발행
• 경노회 • 특별 기도회 • 하기수양회

〈교사수〉 4명(남 3명, 여 1명) 〈회원수〉 154명(남 74명, 여 80명)

〈면려회〉 회 장: 김 인석 부회장: 서 동석 · 임 태주
서 기: 권 석기 · 송 선자 회 계: 박 병옥 총 무: 윤 성철
교육부장: 윤 광원 김 인 전도부장: 정 홍식 김 순애
지육부장: 이 욱 권 석애 회우부장: 김 승배 안 정숙
봉사부장: 이 형수 이 천애 음악부장: 노 문환 정 정신

(9) 장 년 부

부 장 : 한 명옥 부 감 : 박 창수 · 김 윤성

지 도 : 김 재창 부지도 : 이 두란

〈남교사〉 김 만익 김 성택 김 창린 송 형섭 정 석태 6명

〈여교사〉 구 경숙 김 란희 김 복희 서 용근 유 분홍 이 길남

이 영주 천 병희 최 경복 최 경애 15명

〈주요사업〉 • 성경공부 • 성경암송대회

• 성가경연대회 • 매학기 성경교사 • 성경퀴즈대회

〈학생수〉 171명(남 14명, 여 157명)

(10) 지도자 양성부

부 장 : 신 제택 부 감 : 이 준교 · 이 춘식

지 도 : 홍 종만 교 무 : 이 기철

〈주요사업〉 • 지도자 양성(교사, 학부모, 산업전도인)

• 농어촌교사 초청훈련 • 명신도 훈련

※ 1973년 7월 29일 「충현 성경학원」에 흡수

〈교사수〉 6명(남 5명, 여 1명) 〈학생수〉 145명(남 38명, 여 107명)

11. 성 가 부

부 장 : 임 광식 차 장 : 지 금산 · 구 명신

부 별 지휘자 반주자 부 별 지휘자 반주자

청년성가대 강 신의 천 혜숙 여성성가대 홍 익훈 서 은숙

대학부성가대 김 중석 백 신숙 고등부성가대 박 정하 이 승순

중등부성가대 이 효은 김 회영 초등부성가대 정 진순 정 인숙

유년부성가대 강 혜영 전 명순

(1) 청년성가대

〈남자대원〉

김 상규 김 용일 김 은조 김 일동 김 천채 노 광현 나 회주

박 두현 박 영철 원 응철 윤 두현 은 환표 이 동걸 이 두현

이 훈 이 회상 신 병모 지 금봉 지 금산 서 평운 20명

〈여자대원〉

권 금실 김 금순 김 미림 김 선희 김 은희 김 숙영 김 영애

김 옥영 김 은성 김 정순 김 현순 김 수열 박 순애 박 윤혜

박 춘희 박 현주 신 제은 오 명희 오 홍주 이 귀순 이 성영

이 정애 이 정혜 이 진모 정 혜원 최 숙향 최 래숙 한 승숙

황 옥경 황 정숙 30명

(2) 여성성가대

장 보결	강 혜숙	고 경자	구 명신	김 능실	김 명숙	김 복순
김 성신	김 영남	김 영복	김 영숙	김 영화	김 춘지	김 화춘
김 희옥	남 정애	문 영애	문 선옥	민 은혜	박 순봉	박 옥식
박 월희	박 형자	박 혜숙	백 복엽	변 순복	송 영자	안 소현
어 은애	오 미자	우 문희	유 말선	이 귀분	이 성실	이 윤호
이 정애	이 춘실	장 영옥	전 인화	정 경자	정 원향	조 계진
조 등숙	조 영숙	지 영실	최 봉숙	최 순자	최 영호	하 영자
한 금희	한 등숙	허 경숙				52명

12. 재정위원회

위원장 : 김 기정 서 기 : 이 응선

〈위 원〉

한 명옥 김 한훈 이 등규 유 병세 임 현복 정 봉조
전 순자

〈주요사업〉 • 교회재정 관리 • 교회재산 관리
• 예산서 작성 • 결산보고서 작성

13. 건축위원회

위원장 : 위 영환 서 기 : 이 응선 회 계 : 임 광식

〈위 원〉

우 성원 김 천준 김 광철 김 기정 임 현복 심 인경
양 춘선 김 봉재 임 현복

〈주요사업〉 • 새 성전 건축 추진 • 교육관 신축 추진

14. 충현동산관리위원회

위원장 : 위 영환 서 기 : 이 태규 회 계 : 윤 중순

〈위 원〉

우 성원 김 천준 한 명옥 김 광철 김 기정 전 회문
이 창업 윤 두한 공 용빈 구 경숙 정 선화 이 결남

〈주요사업〉 • 충현동산 관리

15. 재단법인 충현동산

이사장 : 김 창인 전무이사 : 위 영환
이 사 : 우 성원 김 천준 김 광철
감 사 : 한 명옥 김 기정

16. 교회 기관지 「충현」

발행인 : 김 창인
편집위원장 : 윤 종순
편집위원 : 최 석주 이 동규 홍 종만
간 사 : 노 의일 조 선근
취재기자 : 정 은표 김 현권 한 성실 한 근옥

제 4 장 내일을 향한 총현의 청사진

제 1 절 교 육

교인의 증가에 따르는 피교육자의 자연증가와 교회의 이전계획에 따르는 교육시설의 확장에 즈음하여 우리교회의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

1. 지도 교역자의 강화

- (1) 주일학교의 각부 담당 지도교역자를 목사로 임직하게 한다.
- (2) 각 지도교역자로 하여금 교회교육의 전문적인 분야중 한 가지씩 선정하여 그 분야를 깊이 연구하게 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 (3) 국내외 교육기관의 시찰과 교류를 통하여 지도교역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 (4) 각 지도교역자는 연간 한 가지 이상의 연구과제를 정하여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한다.
- (5) 국내외 강사를 수시로 초빙하여 강의 및 좌담회 등을 열어 교역자의 전문을 넓힌다.

2.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천한다.

- (1) 일정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가진 자를 교사로 임명한다.
- (2) 교실별 학급편제를 채택하여 소수의 유능한 교사로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 (3) 교회의 제직원중 교사등용책을 적극 추진한다.
- (4) 현직교사의 지속적인 연수교육을 위하여 특별강의·월간 교육지 발간·연구과제 발표 등을 실시한다.

3. 교육연구회 설치

교회교육의 실무자와 기독교 교육에 조예가 깊은 교인으로 「교육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각종 교육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계획안을 연구·개발하여 「교육위원회」에 제공한다.

4. 교육상황실 설치

교육상황실을 설치하여 우리교회의 교육 전반에 관한 계획과 진척상황을 주일학교 교사와 일반 교우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직접·간접으로 교육장의 구실을 하도록 다음과 같은 상황실을 운영한다.

- (1) 각종 교육계획과 진척상황을 그림이나 도표 등으로 나타내어 보인다.
- (2) 환등기를 상설하여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교회현황을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한다.
- (3) 교육적 가치가 있는 각종 작품의 전시와 감상실로 활용한다.
- (4) 교사들의 독서 및 휴게실로 사용한다.

5. 교재실 설치

각부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교재와 기재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 (1) 보관과 관리
- (2) 구입 주선
- (3) 연구 개발
- (4) 활용 권장
- (5) 활용 현황의 통계·분석·평가

6. 도서실 설치

다음과 같이 도서실을 운영하여 문서를 통한 교육활동을 전개한다.

- (1) 도서목록

- ① 주일학교 교사 참고도서
- ② 성경학원 학생 참고도서
- ③ 각종 성경 주석류
- ④ 일반 종교서적
- ⑤ 기독교신문 및 정기 간행물

(2) 운영방법

- ① 성경학교에서 운영·관리한다.
- ② 각부 주일학교의 도서를 통합한다.
- ③ 우리교회 성경학원 학생이나 지회의 봉사자에 한하여 대출한다.
- ④ 우리교회 교우에 한하여 열람을 허락한다.

7. 성경학원 운영

우리교회 교우들의 신앙을 육성시켜 건전한 생활인으로 교회에서 봉사적 사명과 사회에서 선교사적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경학원을 운영한다.

- (1) 성경전서를 교과과정으로 하여 3개년의 야간 수업과정을 둔다.
- (2) 성경학원의 부설기관으로 6개월 과정의 「지도자 양성부」를 두어 한 주일에 2시간씩 교육하여 주일학교 교사 양성, 자녀교육 부모 양성, 평신도 지도자 양성에 입한다.
- (3) 현직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위한 각종 단기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8. 유치원 운영

유아기 어린이들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운영하되 우선 현재의 유치부를 주간 교육으로 연장하다가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유치원을 개원한다.

9. 영아부 설치

- (1) 현재 유치부에 편입되어 있는 4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분리시켜 교육

효과를 높인다.

(2) 영아부의 교육시간을 장년부 예배시간과 같게 하여 어린이들의 등교와 보호의 편의를 도모한다.

10. 각종 클럽활동 운영

성도간의 유기적인 유대를 두터이하여 서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클럽활동을 육성시킨다.

- (1) 교육자 클럽
- (2) 상인 클럽
- (3) 의약사 클럽
- (4) 음악인 클럽
- (5) 독서 클럽
- (6) 신혼부부 클럽
- (7) 성경연구 클럽

11. 수양관 운영

수양관을 건립 운영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에 이용한다.

- (1) 각급 주일학교 학생들의 수양장소
- (2) 교인들의 신앙훈련 교육장
- (3) 교역자들의 수련 및 휴양처

12. 목회상담실 설치

목회상담실을 상설하여 문제점을 가진 교인들이 언제든지 지도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지도를 받게 한다.

13. 성경 교과서 편찬

미비된 상태에 있는 중등부 이상의 각부 주일학교 교과과정 운영에 합리성을 기한다.

제 2 절 해외 복음선교

1973년 9월 6일은 우리 충현교회가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또한 해외복음선교회로서는 다섯번째의 생일을 맞이하는 셈이다.

그동안 우리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 볼 때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성령의 불집아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가 쉬었던 때는 없다. 지금부터 20년 전 인현동의 한 2층집 조그만 방에서 18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던 우리교회는 20년이 지난 오늘, 연건평 470명의 웅장한 예배당에서 4,000여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교육을 받는 교회가 되었고, 성령의 불에 녹아 활동하는 교회가 되었으며, 받은바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로 자라게 되었다. 뿐만이 아니라 80여년동안 우리 겨레가 그리스도 앞에와 세계를 향하여진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이제는 저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온 성도가 이에 협력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은 먼저 성령의 강한 역사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의 결과요 다음은 성령에 붙잡혀 순수한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힘있게 전한 참 종들의 헌신의 결과이며 또한 이러한 종들을 사랑하며 단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양들의 희생과 사랑과 봉사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보내며 우리는 겸비하게 사라져 버려야 하겠다.

이제 우리들은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날에도 계속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친히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 해외복음선교회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시금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영광스러운 몇가지 사업계획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새로운 선교정책

이제까지 우리 서 만수 선교사는 순회선교(Hit and Run)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지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교육하는 다음과 같은 교육선교로 전환한다.

- (1) 단기 지도자양성
- (2) 젊은 지식층을 위한 수양회
- (3) 교역자 연수
- (4) 장기적인 신학교육

2. 선교문제 분과위원회 설치

오늘날의 선교에 있어서는 직접 앞장서서 뛰고 있는 선교사와 꼭같이 뒤에서 밀어주는 협력자들이 선교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외 선교관계 문제를 깊이 연구하여 모든 교우들에게 선교에 대한 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실패 없는 선교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적시에 구비하게 하는 「선교문제연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복음선교회」의 지도 아래 움직이도록 한다.

3. 해외복음 선교회 운영규칙 제정

이미 법인체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해외복음선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관은 극히 기본적인 것만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 「해외복음선교회」 운영규약으로써는 충분하지 못한 점이 아직도 많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 (1) 우리가 취하고 있는 선교의 원리와 신앙노선을 천명한다.
- (2) 선교사 후보생의 선발·훈련·평가·파송에 대한 제반 원리와 기준과 방안을 제시한다.
- (3) 파송받은 선교사가 「해외복음선교회」와 계속 유지하여야 할 관계를 분명하게 밝힌다.
- (4) 재정방침을 밝힌다.
- (5) 「해외복음선교회」의 운영방안을 보다 자세하게 명시한다.

4. 선교사 파송 및 선교후보생 훈련계획

지난 5년동안에 우리교회는 한 가족의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파송하였고 현재는 한 가족의 선교사 후보생이 선교사훈련을 받고 있다. 이제 앞으로 5년내에 한 가족의 선교사를 더 파송하게 될 것이며 또한 새로운 선교사 후보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복음선교회」가 설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1978년에는 모두 3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해 주시리라 확신한다.



부 록

역대 당회장

	성 명	시 무 기 간	비 고
1 대	강 진선	1953. 12. 22~1954. 1. 24	부산 통일교회 겸임
2 대	고 홍봉	1954. 1. 24~1954. 11. 21	서울 남산교회 겸임
3 대	장 석인	1954. 11. 24~1955. 8. 8	서울 성서대학 교수 겸임
4 대	강 진선	1955. 8. 8~1956. 8. 16	서울 원남교회 겸임
5 대	전 철홍	1956. 8. 16~1957. 9. 7	서울 중앙교회 겸임
6 대	김 창인	1957. 9. 7~현재	1957. 9. 7 안수 1958. 9. 30 위임

역대 교역자

순위	성 명	성 별	시 무 기 간	비 고
1.	김 창인	남	1953. 9. 12~현재	전도사—목사
2.	김 연순	여	1953. 10. 11~1964. 12. 30	전도사—공로전도사
3.	노 윤석	남	1954. 10. 10~1955. 9. 18	전도사
4.	홍 신균	남	1955. 10. 9~1956. 4. 30	강도사—목사
5.	김 지화	남	1956. 1. 21~1956. 4. 8	전도사
6.	최 훈	남	1956. 4. 8~1960. 10. 23	전도사—강도사
7.	문 춘운	남	1956. 7. 18~1960. 5. 1	강도사—목사
8.	이 명달	여	1958. 9. 21~1964. 12. 30	전도사—공로전도사
9.	고 정수	남	1960. 10. 16~1964. 2. 12	강도사—목사
10.	조 천일	남	1961. 1. 6~1970. 9. 20	목사
11.	임 승원	남	1963. 11. 24~1969. 10. 12	전도사—목사
12.	신 예철	남	1963. 11. 24~1965. 1. 27	전도사
13.	홍 성덕	남	1964. 1. 1~1965. 2. 28	전도사
14.	이 정심	여	1964. 1. 1~1967. 2. 26	전도사
15.	한 제호	남	1964. 10. 1~1966. 12. 18	전도사—목사
16.	이 종윤	남	1965. 1. 1~1968. 8. 4	*전도사

17.	차 진형	여	1965. 1.25~현재	전도사
18.	이 두란	여	1965. 1.26~현재	전도사
19.	김 용찬	남	1965. 3.16~1968.10.27	목사
20.	송 병수	남	1965. 3.18~1966. 6.26	목사
21.	조 해수	남	1966. 1. 1~1967. 3.12	전도사—강도사
22.	정 소영	여	1966. 1. 1~1967. 3.19	*전도사
23.	이 삼은	남	1966. 1. 1~1973. 1.23	선도사(별세)
24.	정 영옥	여	1967. 1. 1~1971. 9. 9	*전도사—선교사
25.	김 의환	남	1967. 2.26~1968. 5.23	*목사
26.	백 성룡	남	1967. 4. 7~현재	목사
27.	정 기성	남	1967. 4. 9~현재	전도사—목사
28.	애 종탁	남	1968. 1.21~1969.11.26	*전도사
29.	천 성덕	남	1968. 1.21~현재	전도사—목사
30.	신 성종	남	1968. 8.25~1969. 7.20	*전도사(도미)
31.	이 종표	남	1969. 8. 1~1972. 9.10	*전도사—강도사
32.	허 일찬	남	1969. 8.24~1970. 3.22	목사
33.	정 판일	남	1970. 1. 1~현재	전도사—목사
34.	홍 종만	남	1970. 3. 1~현재	전도사
35.	김 재창	남	1970. 8. 6~현재	목사
36.	최 순복	여	1970.12.28~현재	전도사
37.	서 만수	남	1971. 1. 1~1971. 9. 9	*선교사
38.	정 상우	남	1971. 2. 4~현재	목사
39.	백 진주	여	1971. 9. 1~1972.10.22	전도사(도미)
40.	지 우목	남	1972. 1. 1~현재	*전도사
41.	노 의일	남	1972. 5.28~현재	*전도사
42.	정 연희	여	1973. 1. 1~현재	*전도사
43.	강 봉선	여	1973. 3.18~현재	전도사
44.	이 종영	남	1973. 4. 1~현재	*전도사
45.	김 종택	남	1973. 4.22~현재	목사

참 고 : *는 임시(Part Time)

역 대 장 로

성 명	취임·장립년월일	퇴직년월일	비 고
1대 강 지순	1954. 5. 9 (취임)	1954. 4.25	1973. 3. 25 공로장로 추대

1대 최 재성	1954. 5. 9 (취임)	1954. 4. 25	1961. 1. 8 시무 정지
1대 우 성원	1954. 5. 9 (장립)	1954. 4. 25	현재 시무
2대 황 해성	1955. 12. 24 (취임)	1955. 5. 29	1961. 8. 별세
2대 박 창근	1955. 12. 24 (취임)	1955. 5. 29	1961. 1. 8 시무 정지
3대 홍 수정	1956. 6. 9 (장립)	1955. 6. 9	1971. 6. 19 도미
4대 김 천준	1956. 12. 18 (장립)	1955. 5. 29	현재 시무
5대 한 명옥	1959. 10. 9 (장립)	1959. 4. 12	현재 시무
5대 김 광철	1959. 10. 9 (장립)	1959. 4. 12	현재 시무
6대 황 기성	1960. 4. 7 (장립)	1959. 4. 12	현재 시무
7대 김 기원	1961. 4. 9 (장립)	1960. 10. 23	1967. 7. 16 시무 무기정지
7대 위 영환	1961. 4. 9 (장립)	1960. 10. 23	현재 시무
7대 허 준	1961. 4. 9 (취임)	1960. 10. 23	현재 시무
8대 이 득진	1963. 4. 5 (취임)	1962. 10. 28	1967. 7. 16 시무 무기정지
8대 조 현명	1963. 4. 5 (장립)	1962. 10. 28	현재 시무
8대 김 한훈	1963. 4. 5 (장립)	1962. 10. 28	현재 시무
8대 송 순일	1963. 4. 5 (장립)	1962. 10. 28	현재 시무
9대 윤 종순	1964. 5. 16 (취임)	1963. 10. 20	현재 시무
9대 오 중탁	1964. 5. 16 (장립)	1963. 10. 20	1973. 3. 25 공로장로 추대
9대 김 기정	1964. 5. 16 (장립)	1963. 10. 20	현재 시무
10대 전 회문	1965. 11. 19 (취임)	1965. 5. 23	현재 시무
10대 김 익화	1965. 11. 19 (취임)	1965. 5. 23	1969. 3. 30 사임
10대 윤 종성	1965. 11. 19 (장립)	1965. 5. 23	현재 시무
11대 김 창배	1967. 4. 5 (장립)	1966. 3. 20	현재 시무
11대 임 광식	1967. 4. 5 (장립)	1966. 3. 20	현재 시무
12대 지 동방	1968. 10. 9 (취임)	1968. 2. 18	1971. 7. 19 도미
12대 임 현덕	1968. 10. 9 (장립)	1968. 2. 18	현재 시무
12대 최 석주	1968. 10. 9 (장립)	1968. 2. 18	현재 시무
12대 신 계택	1968. 10. 9 (장립)	1968. 2. 18	현재 시무
13대 이 창준	1970. 12. 8 (장립)	1970. 4. 26	현재 시무
13대 이 동규	1970. 12. 8 (장립)	1970. 4. 26	현재 시무
14대 오 승률	1972. 11. 9 (장립)	1972. 5. 22	현재 시무
14대 황 창룡	1972. 11. 9 (장립)	1972. 5. 22	현재 시무
14대 이 태규	1972. 11. 9 (장립)	1972. 5. 22	현재 시무

증 경 장 로

성 명	선임년월일	비 고
1. 조 진연	1970. 11. 22	현재 시무
2. 이 봉섭	1970. 11. 22	현재 시무

역대 안수 집사

성 명	안수년월일	퇴택년월일	비 고
이 상순	1969. 7. 17	1969. 4. 20	별세
공 용빈	1969. 7. 17	1969. 4. 20	현재 시무
오 승률	1969. 7. 17	1969. 4. 20	장로 장립
이 동규	1969. 7. 17	1969. 4. 20	장로 장립
신 태호	1969. 7. 17	1969. 4. 20	별세
문 인택	1969. 7. 17	1969. 4. 20	현재 시무
윤 두한	1969. 7. 17	1969. 4. 20	장로 퇴택
이 창준	1969. 7. 17	1969. 4. 20	장로 장립
황 창룡	1969. 7. 17	1969. 4. 20	장로 장립
이 태규	1969. 7. 17	1969. 4. 20	장로 장립
김 도점	1972. 11. 9	1972. 7. 2	현재 시무
이 창업	1972. 11. 9	1972. 7. 2	장로 퇴택
박 창수	1972. 11. 9	1972. 2. 7	장로 퇴택
이 응선	1972. 11. 9	1972. 7. 2	장로 퇴택
윤 용규	1972. 11. 9	1972. 7. 2	장로 퇴택

역대 권사

□ 명예 권사

성 명	임명된 해	은퇴한 해	비 고
1. 김 이순	1953	1973	정년 은퇴
2. 최 경한	1953	1973	정년 은퇴

3. 김 정수	1959	1973	정년 은퇴
4. 김 학이	1962	1973	정년 은퇴
5. 양 순화	1962	1973	정년 은퇴
6. 김 언일	1965	1923	정년 은퇴
7. 이 계옥	1966	1973	정년 은퇴
8. 김 초연	1972	1973	정년 은퇴

□ 시무 권사

성 명	임명된 해	성 명	임명된 해	성 명	임명된 해
1. 이 창옥	1953	2. 구 경숙	1954	3. 김 대복	1958
4. 윤 수현	1958	5. 이 성애	1959	6. 제 수익	1961
7. 이 옥순	1962	8. 임 현복	1962	9. 박 순은	1962
10. 김 봉재	1964	11. 김 선복	1965	12. 김 애채	1965
13. 홍 순복	1965	14. 이 학주	1965	15. 조 순호	1965
16. 김 순철	1966	17. 김 윤성	1966	18. 문 정애	1966
19. 박 용주	1966	20. 박 봉주	1966	21. 이 재룡	1966
22. 전 정숙	1966	23. 김 능복	1967	24. 김 영화	1967
25. 이 명자	1967	26. 장 문순	1967	27. 최 무비	1967
28. 최 정자	1967	29. 김 정옥	1969	30. 박 호소	1969
31. 이 영주	1969	32. 이 춘식	1969	33. 전 성조	1969
34. 김 정숙	1970	35. 민 원옥	1970	36. 박 성기	1970
37. 이 분전	1970	38. 이 신주	1970	39. 이 희연	1970
40. 지 소저	1970	41. 김 란희	1971	42. 김 상권	1971
43. 김 의지	1971	44. 김 춘선	1971	45. 백 인숙	1971
46. 서 상연	1971	47. 양 정백	1971	48. 윤 옥진	1971
49. 임 지석	1971	50. 허 미주	1971	51. 김 용례	1972
52. 김 정임	1972	53. 김 화련	1972	54. 나 화봉	1972
55. 박 경복	1972	56. 안 윤진	1972	57. 유 미희	1972
58. 이 곤녀	1972	59. 이 외열	1972	60. 이 윤호	1972
61. 정 봉조	1972				

□ 사임 권사

성 명	임명된 해	사임된 해	비 고
1. 이 연숙	1953	1958	별세
2. 최 상은	1953	1971	별세
3. 한 명덕	1954	1966	
4. 김 준옥	1954	1955	

5. 김 성철	1956	1962	
6. 김 준열	1958	1966	
7. 방 태은	1961	1972	별세
8. 이 선옥	1961	1965	
9. 김 신도	1962	1972	
10. 이 순철	1962	1965	
11. 박 효일	1964	1971	도미
12. 김 경선	1964	1969	별세
13. 문 봉계	1964	1972	도미
14. 허 마리아	1965	1971	
15. 박 혜정	1967	1969	별세
16. 강 영채	1669	1971	도미

개척 교회 일람

순위	교회명	소재지	개척기관	개척년월일	자립년월일
1.	성암교회	서울 돈암동	청년회	1956. 9	1958. 12
2.	동암교회	서울 정능동	남전도회	1957. 2	1962. 12
3.	중앙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여전도회	1958. 1	1959. 12
4.	상도교회	서울 상도동	청년회	1959. 1.25	1958. 12
5.	부여제일교회	충남 부여시	여전도회	1959. 4.12	1964. 12
6.	세산교회	충북 옥천	교회전도부	1959. 9.13	1962. 1
7.	성인교회	서울 천호동	학생면려회	1961.10	1965. 12
8.	삼양교회	서울 삼양동	청년회	1961.10	1964. 12
9.	상리교회	경기도 부천군	남전도회	1962. 2	1967. 12
10.	장항오리교회	경기도 고양군	남전도회	1965. 3.24	1969. 12
11.	장성교회	서울	여전도회	1966. 6	1967. 12
12.	상현교회	서울 상계동	여전도회	1968. 5	1972. 2
13.	동현교회	서울 마천동	남전도회	1969. 12	1972. 11
14.	장락교회	경기도 가평군	남전도회	1973. 1	현재지원중

연도별 성가부장 · 지휘자 · 반주자

연도별	부장(대장)	성가대별	지휘자	반주자
1954	성 장 수	학생	이 병 호	
1955	최 재 성	청년	강 두 봉	
		청년	박 수 은	
		청년	구 두 회	
		학생	이 병 호	
1956	최 재 성	청년	구 두 회	
	박 창 근	학생	이 병 호	
		학생	백 수 은	
		학생	이 정 주	
1957	박 창 근	청년	이 남 철	
		청년	홍 종 만	
		학생	이 정 주	
1958	박 창 근	청년	홍 종 만	
		학생	이 정 주	
1959	박 창 근	청년	홍 종 만	
		청년	김 치 석	
		학생	이 상 빈	
1960	홍 수 정	청년	정 재 동	
	박 창 근	청년	이 상 빈	
		청년	이 삼 은	
		학생	유 송 필	
1961	박 창 근	청년	이 삼 은	
	허 준	청년	안 소 결	
		학생	김 용 진	
1962	허 준	청년	안 소 결	
		학생	김 용 진	
1963	허 준	청년	안 소 결	이 정 혜
		고등	김 용 진	
		중등	신 예 철	
		유년주교	심 상 선	송 철 연

1964	이 득 진	청년 고등 중등 유년(주교)	안 김 신	소 용 예	점 진 철	김 신 성			
1965	송 순 일	청년 고등 중등 유년(교학년) 유년(저학년)	심 안 한 한 심 박	상 소 영 영 상 용	선 점 석 석 선 삼	송 김 백 황 차 주	철 신 은 미 재 일	연 성 서 순 실 신	
1966	김 광 철	청년 여성 고등 중등 초등 유년	이 이 한 홍 강 한	삼 삼 영 익 신 정	은 은 석 훈 의 수	김 김 황 박 차 정	신 신 미 길 재 수	성 성 순 주 실 희	
1967	조 천 일	청년 여성 고등 중등 초등 유년	이 이 한 홍 강 박	삼 삼 영 익 신 규	은 은 석 훈 의 봉	김 김 황 유 차 이	신 신 미 은 재 수	성 성 순 숙 실 자	
1968	김 한 훈	청년 여성 고등 중등 초등 유년	이 이 홍 강 장 정	삼 삼 익 신 영 의	은 은 훈 이 희 환	김 차 변 천 서 조	신 재 영 혜 은 선	성 실 혜 숙 숙 영	
1969	김 광 철	청년 여성 고등 중등 초등 유년	김 이 홍 강 장 박	오 삼 익 신 영 용	현 은 훈 의 이 삼	김 차 오 천 서 조	자 재 영 혜 은 선	혜 실 금 숙 숙 영	
1970	임 광 식	청년 여성	최 이	찬 삼	후 은	지 차	숙 재	자 실	

제 직 원 통 계 표

1953년 ~ 1973년

년도별	총 계	교 역 자					장 로					안수 집사	권사	집 사			
		목사	강도사	남 전도사	여 전도사	공로 전도사	계	시무	공로	협동	증경			계	남	여	계
1953	9	1					1										8
1954	31	1			2		3						4	9	15		24
1955	63	1		1	2		4	3				3	7	19	30		49
1956	65	1	1		2		4	5				5	7	16	33		49
1957	70	2	1		2		5	7				7	8	15	35		50
1958	90	2	1		2		5	7				7	9	25	44		69
1959	92	2	1		2		5	7				7	10	25	45		70
1960	101	2	1		2		5	9				9	12	25	50		75
1961	113	3			2		5	10				10	12	30	56		86
1962	127	3			2		5	10				10	15	32	65		97
1963	144	3			2		5	10		3		13	21	35	70		105
1964	182	2		3	3		8	14		4		18	21	45	90		135
1965	196	2		2	3	2	9	17		3		20	25	47	95		142
1966	211	5		3	3	2	13	19				19	29	50	100		150
1967	244	3	1	2	3	2	11	18		1		19	35	59	120		179
1968	302	4	1	1	2	2	10	20		1		21	42	79	150		229
1969	314	4			2	2	8	24				24	42	80	160		240
1970	436	4			2	2	8	23				23	9	47	99	250	349
1971	450	3	1	2	4	2	12	25			2	27	7	54	100	250	350
1972	468	4	3	1	4	2	14	23			2	25	7	60	100	260	360
1973	540	8		1	4	2	15	24	2		2	28	8	69	120	300	420

※ 매년 1월 1일 기준

지 역 별 교 인 통 계 표

1973년 6월 30일 현재

구분 \ 지역		총 계	동 부	서 부	남 부	북 부
구 역 수		6 4	1 6	1 6	1 6	1 6
세 대 수		1 5 5 3	4 0 7	4 1 1	3 4 4	3 9 1
구역장수		6 0	1 5	1 5	1 5	1 5
권 찰 수		2 0 8	5 2	5 5	4 7	5 4
교 인 총 수	남	1 5 0 3	4 1 9	4 1 4	3 7 9	2 9 1
	여	2 2 9 5	6 3 3	6 0 4	5 5 0	5 0 8
	계	3 7 9 8	1 0 5 2	1 0 1 8	9 2 9	7 9 9
새 려 입 교	남	8 5 2	2 3 9	2 1 7	2 2 5	1 7 1
	여	1 6 1 2	4 4 8	4 1 6	3 8 8	3 6 0
	계	2 4 6 4	6 8 7	6 3 3	6 1 3	5 3 1
유 아 세 려	남	2 4 6	6 9	6 7	6 7	4 3
	여	2 1 6	6 3	5 1	6 2	4 0
	계	4 6 2	1 3 2	1 1 8	1 2 9	8 3
학 습 입 교	남	1 4 9	4 6	4 9	3 1	2 3
	여	1 8 6	4 9	4 7	4 5	4 4
	계	3 3 5	9 5	9 6	7 6	6 7
원 입 교 인	남	2 5 5	6 5	8 1	5 5	5 4
	여	2 8 3	7 3	9 0	5 6	6 4
	계	5 3 8	1 3 8	1 7 1	1 1 1	1 1 8

진회인원 주평균 통계표

1953년 ~ 1973년

구분 년도별	예			배			주			일			학			총계
	남	여	합	신	유	합	신	유	합	초	중	고	대	정	합	
1953	남															
	여															
	계	163														
1954	남	97	74	58	229											90
	여	168	95	69	332							35				319
	계	265	169	127	561							15				93
1955	남	195	123	101	419											183
	여	333	181	158	672							50				744
	계	528	304	259	1091							50				174
1956	남	197	134	83	414											693
	여	394	270	173	837							20				831
	계	591	404	256	1251							70				333
1957	남	216	124	77	417											1424
	여	427	230	153	810							61				626
	계	643	354	230	1227							90				212
1958	남	196	122	94	412											645
	여	450	273	206	929							29				1050
	계	646	395	300	1341							90				1676
1959	남	220	112	74	406											425
	여	477	249	204	930							32				645
	계	697	361	278	1336							81				228
1960	남	246	148	79	473											224
	여	486	263	193	942							77				1034
	계	732	411	272	1415							79				452
1961	남	290	169	93	552											233
	여	541	312	206	1059							42				615
	계	831	481	299	1611							123				1793
1962	남	343	192	152	687											218
	여	619	325	323	1267							70				624
	계	962	517	475	1954							82				251
1963	남	269	179	205	147	800										239
	여	542	384	349	309	1584						69				1181
	계	1374	554	456	2384							103				1858
1964	남	343	192	152	687											229
	여	619	325	323	1267							82				781
	계	962	517	475	1954							82				1330
1965	남	269	179	205	147	800										271
	여	542	384	349	309	1584						69				1330
	계	1374	554	456	2384							103				271
1966	남	343	192	152	687											239
	여	619	325	323	1267							82				1181
	계	962	517	475	1954							82				1858
1967	남	269	179	205	147	800										229
	여	542	384	349	309	1584						69				781
	계	1374	554	456	2384							103				1330
1968	남	343	192	152	687											271
	여	619	325	323	1267							82				271
	계	962	517	475	1954							82				1330
1969	남	269	179	205	147	800										271
	여	542	384	349	309	1584						69				1330
	계	1374	554	456	2384							103				271
1970	남	343	192	152	687											284
	여	619	325	323	1267							82				971
	계	962	517	475	1954							82				1564
1971	남	269	179	205	147	800										581
	여	542	384	349	309	1584						69				2535
	계	1374	554	456	2384							103				581
1972	남	343	192	152	687											383
	여	619	325	323	1267							82				1183
	계	962	517	475	1954							82				472
1973	남	269	179	205	147	800										2056
	여	542	384	349	309	1584						69				3239
	계	1374	554	456	2384							103				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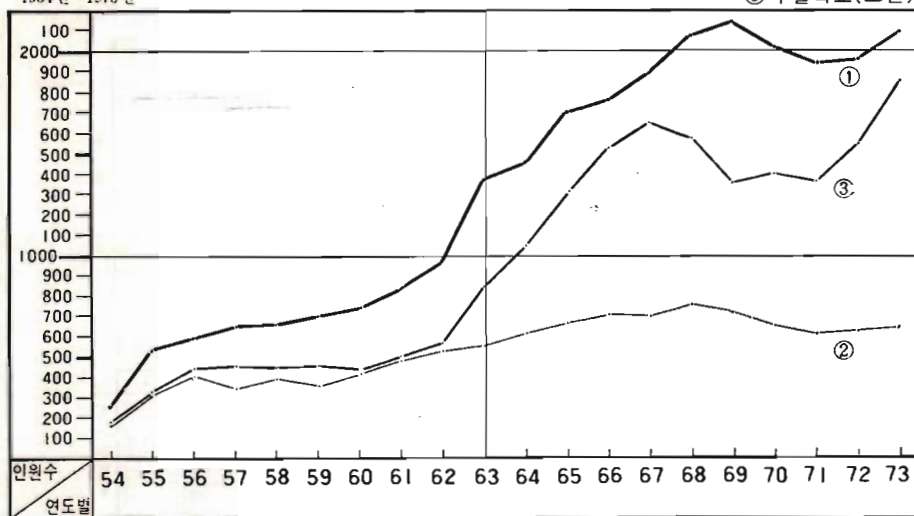
1964	남	266	215	207	134	822					292	81	79		16		468	1290
	여	508	445	412	310	1675				425	79	67			14		585	2260
1965	계	1434	619	444	2497					717	160	146			30		1053	3550
	남	347	228	221	146	942				369	117	98			27		611	1553
1966	여	604	519	452	345	1920				471	126	85			23		705	2625
	계	1698	673	491	2862					840	243	183			50		1316	4178
1967	남	334	254	218	162	968				58	121	212	145	94	25	24	679	1647
	여	592	576	484	354	2006				76	156	246	138	93	22	112	843	2849
1968	계	1756	702	516	2974					134	277	458	283	187	47	136	1522	4496
	남	372	265	224	146	1007				75	158	207	135	92	39	19	725	1732
1969	여	655	590	470	356	2071				110	212	252	135	90	28	111	938	3009
	계	1882	694	502	3078					185	370	559	270	182	67	130	1663	4741
1970	남	378	316	259	189	1142	33	61	165	169	137	100			34	21	659	1801
	여	722	639	505	407	2272	37	69	212	183	138	87			28	113	798	3070
1971	계	2054	764	596	3414		70	130	377	352	275	187			62	134	1587	5001
	남	384	331	226	146	1087	35	59	98	176	141	80			38	17	644	1731
1972	여	772	630	484	355	2241	14	62	125	186	139	81			28	95	730	2971
	계	2127	710	501	3328	49	121	223	362	280	161				66	112	1374	4702
1973	남	323	352	206	137	1018	28	61	93	147	141	81	39	25	13		628	1646
	여	701	642	453	370	2166	32	62	117	182	143	85	32	19	106		778	2944
1974	계	2018	659	507	3184	60	123	210	329	284	166	71	44	119			1406	4590
	남	296	322	176	133	927	31	56	89	141	142	83	12	17	17		588	1515
1975	여	722	587	441	352	2102	31	59	111	168	142	92	31	16	137		787	2889
	계	1927	617	485	3029	62	105	200	309	284	173	43	33	154			1375	4404
1976	남	300	333	198	130	961	31	54	114	124	155	107	46	32	16	14	693	1654
	여	705	596	431	359	2091	31	64	94	166	157	112	43	31	131	30	829	2920
1977	계	1934	629	489	3052	62	118	208	290	312	219	89	63	147	44	1522	4574	
	남	311	375	212	141	1039	35	67	109	155	184	128	60	43	16	26	823	1862
1978	여	704	689	433	378	2204	30	70	103	180	171	151	55	43	141	83	1027	3231
	계	2079	645	519	3243	65	137	212	335	280	115	86	157	109	1860		5103	

※ 세 인 : 세 인 자 부 지 양 : 지 도 자 영 상 부

연도별 교인수 변동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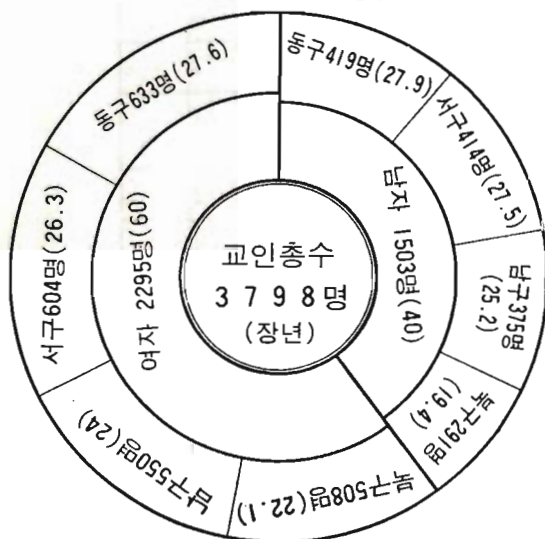
- 보 기
① 주일 낮 예배
② 주일 저녁 예배
③ 주일학교(오전)

1954년~1973년



지역별 교인수 현황 도표

<1973년 6월 30일 현재>



※ () 안의 숫자는(%)

<총 64구역>

동구: 16구역

쌍림·광희·신당·홍신
청구·금호·옥수·왕십리
마장·성수·화양·천호
담십리·회경·연목·시외

서구: 16구역

충무·중부·목정·화원
인현 1·인현 2·초동·중로
효자·서대문·응암·불광
신촌·서교·마포·시외

남구: 16구역

필동 1·필동 2·회현·강릉 1
강릉 2·학수·탄남·용산
영타·여의도·화곡·상도
대방·개봉·영등·시외

북구: 16구역

율지·동대문·영륜·창신
청량리·성북·삼선·돈암
미아리·정릉·원곡·삼양
수유리·종암·장위·시외

성례식 통계표

1953년~1973년

구분 년도별	세례			유아세례			학습			입교			수찬 인원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총 계	614	1250	1864	233	215	448	812	1443	2255	173	152	325	29361
1953													
1954	2	7	9	2	1	3	6	7	13				
1955	10	25	35	3	4	7	19	28	47	3	2	5	
1956	8	13	21	2	3	5	11	17	28		3	3	
1957	8	22	30	4	4	8	13	24	37	2	1	3	
1958	13	26	39	4	3	7	12	21	33		1	1	
1959	7	22	29	4	6	10	7	18	25	2	4	6	
1960	10	26	32		5	5	13	40	53	2	5	7	
1961	22	31	53	4	2	6	24	40	64	5	4	9	
1962	16	52	68	11	7	18	25	48	73	9	5	14	
1963	37	58	95	7	15	22	49	95	144	7	9	16	
1964	27	89	116	9	9	18	46	103	149	3	7	10	
1965	60	123	183	20	14	34	81	131	212	7	16	23	3630
1966	60	95	155	12	7	19	50	82	132	6	8	14	3940
1967	41	84	125	17	11	28	58	101	159	7	14	21	2914
1968	50	82	132	9	9	18	67	108	175	28	13	41	3403
1969	57	102	159	21	30	51	92	143	235	10	8	18	3144
1970	52	126	178	35	27	62	68	117	185	12	15	27	3335
1971	54	109	163	19	19	38	55	136	191	27	11	38	3383
1972	52	101	153	31	25	56	54	102	156	31	20	51	3680
1973	28	61	89	19	14	33	62	82	144	11	6	17	1932

※1973년은 준기통계

주교 각부교사 통계표

1953년 ~ 1973년

구 분 년도별	총 계			장 년			고 등			중 등 부			초 등			유 년			유 치			새 신 자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953																								
1954	6	2	8													6	2	8						
1955	18	17	35													18	17	35						
1956	24	23	47	5	10	15										19	13	32						
1957	23	27	50	6	10	16										17	17	34						
1958	16	28	44	3	8	11										13	20	33						
1959	16	34	50	3	7	10										13	27	40						
1960	19	28	47	3	6	9										16	22	38						
1961	19	23	42	3	6	9										16	17	33						
1962	25	25	50	2	5	7										23	23	46						
1963	48	55	103	3	6	9	4		4	3	1	4				38	48	86						
1964	47	62	109	3	8	11	4		4	4		4				36	54	90						
1965	53	74	127	3	9	12	4	1	5	3	1	4				43	63	106						
1966	65	77	142	3	9	12	5	2	7	4	2	6	33	32	65	20	24	44	8	8				
1967	75	104	179	3	11	14	6	4	10	9	3	12	37	37	74	20	41	61	8	8				
1968	84	100	184	2	10	12	8	3	11	10	5	15	30	32	62	26	35	61	9	9	8	6	14	
1969	91	89	180	3	9	12	8	6	14	13	7	20	35	30	65	23	20	43	9	9	9	8	17	
1970	100	104	204	3	9	12	15	17	22	17	11	28	39	30	69	19	32	51	8	8	7	7	14	
1971	97	93	190	1	5	6	13	9	22	18	13	31	37	23	60	22	27	49	10	10	6	6	12	
1972	103	98	201	1	4	5	16	10	26	18	15	33	35	20	55	23	28	51	13	13	9	7	16	
1973	115	118	233	4	12	16	19	12	31	20	16	36	32	26	58	27	27	54	16	16	12	8	20	

주교 각부 졸업생 통계

1. 유년주일학교

연도별	남	여	계	연도별	남	여	계
1954			40	1960			32
1955	15	29	44	1961			45
1956			39	1962			51
1957			43	1963	28	28	56
1958			43	1964	32	47	79
1959			38	1965	62	58	120

2. 초 등 부

연도별	남	여	계	연도별	남	여	계
1966	59	86	145	1970	66	80	146
1967	63	71	134	1971	76	79	155
1968	67	89	156	1972	91	72	163
1969	85	80	165				

3. 중 등 부

연도별	남	여	계	연도별	남	여	계
1963	31	37	68	1968	35	43	78
1964	21	26	47	1969	34	26	60
1965	31	38	69	1970	40	44	84
1966	24	30	54	1971	59	42	101
1967	24	20	44	1972	62	63	125

4. 고 등 부

연도별	남	여	계	연도별	남	여	계
1963	20	27	47	1968	25	17	42
1964	33	27	60	1969	38	26	64
1965	32	38	70	1970	28	25	53
1966	70	75	145	1971	31	33	64
1967	75	82	157	1972	28	33	61

5. 대 학 부

연도별	남	여	계	연도별	남	여	계
1970	9	4	13	1972	10	3	13
1971	1	6	7				

6. 지도자 양성부

연도별	남	여	계	연도별	남	여	계
1972	18	35	53	1973	8	34	42

주일학교 교사 · 학생 재적수 통계

1973년 8월 31일 현재

구 분 부 별	교 사			학 생		
	남	여	계	남	여	계
새 신 자	18	14	32	28	22	50
유 치	1	21	22	87	85	172
유 년	28	33	61	208	192	400
초 등	42	22	64	252	272	524
중 등	25	17	42	241	227	468
고 등	24	11	35	181	210	391
대 학	4	2	6	110	112	222
청 년	3	1	4	74	80	154
장 년	6	15	21	14	157	171
지도자양성부	5	1	6	38	107	145
총 계	156	137	293	1,233	1,464	2,697

*교사 : 부장 · 부감 · 지도교역자 포함

교회 설립 기념행사

1. 10주년 / 1963년 9월 19일

(1) 조 직

① 준비위원회

고 문 : 김 창인, 고 정수, 강 지순, 양 석열, 김 연순, 이 명달
준비위원장 : 조 천일 부위원장 : 김 광철 황 기성
위 원 : 김 기원, 김 천준, 김 한훈, 송 순일, 우 성원, 위 영환, 윤 종순,
이 득진, 조 현명, 한 명옥, 허 준, 홍 수정
서 기 : 최 석주
상 임 위 원 : 각 분과 위원장 및 차장

② 분과위원회

· 연혁편찬위원회

위 원 장 : 김 천준 부위원장 : 이 득진
위 원 : 홍 수정, 김 기원, 황 기성, 김 기정, 윤 종성, 최 석주, 김.성훈
이 태규, 임 승원, 이 종윤, 이 창옥, 이 현실

· 식장준비위원회

위 원 장 : 이 득진 부위원장 : 우 성원
위 원 : 한 명옥, 위 영환, 허 준, 송 순일, 예전부원 전원

· 회식준비위원회

위 원 장 : 계 수익 부위원장 : 문 인택
위 원 : 조 현명, 김 한훈, 윤 종순, 박 은철, 신 옥희, 봉사부원 전원

(2) 사 업

① 중헌 십년사 편찬

② 기념행사

- 기념예배 : 9월 19일 오전 11
- 음악예배 (장년성가대 주최) : 9월 19일 오후 7시 30분
- 음악예배 (중·고등학생성가대 주최) : 9월 18일 오후 7시 30분
- 성경암송대회 (유년주일학교 주최) : 9월 20일 오후 7시 30분
- 음악예배 (유년성가대 주최) : 9월 22일 오후 7시 30분

2. 15주년 / 1968년 9월 3일

(1) 조 직

① 준비위원회

고 문 : 김 창인, 강 지순, 오 중락, 김 연순, 이 명달
위 원 장 : 조 천일 부위원장 : 황 기성, 김 광철, 김 기정
위 원 : 당회원 전원
서 기 : 송 순일 부 서 기 : 임 광식

② 분과위원회

- 기념간행물 편찬위원회
위 원 장 : 조 현명 부위원장 : 전 희문
위 원 : 김 용찬, 윤 중순, 임 승원, 이 중윤, 최 석주, 이 용선, 신 성중,
조 선근
- 식장준비 위원회
위 원 장 : 위 영환 부위원장 : 지 동방
위 원 : 백 성룡, 우 성원, 윤 종성, 김 창배, 이 동규, 예전부원 전원
- 회식준비 위원회
위 원 장 : 김 천준 부위원장 : 구 경숙
위 원 : 한 명옥, 김 한흠, 김 영화, 이 영자 봉사부원 전원

(2) 사 업

① 교회 안내서 발행

② 김 창인 목사 성역 31주년 기념선교집 발행 (시정에 의해 발행하지 못함)

③ 기념행사

- 기념예배 : 1968년 9월 3일
- 음악예배 : 1968년 9월 6일
- 각종대회

④ 운영위원회는 의장단과 각분과위원 및 차장으로 함.

3. 20주년 / 1973년 9월 6일

(1) 조 직

① 준비위원회

고 문: 백 성룡, 강 지순, 오 중락, 김 연순, 이 명달
 위 원 장: 위 영환
 부 위 원 장: 김 기정
 서 기: 이 태규
 위 원: 한 명옥, 윤 종성, 임 광식, 송 순일, 신 계택
 상 임 위 원: 각 분과위원장 및 차장

② 분과위원회

• 연혁편찬 분과위원회

위 원 장: 윤 종순

부위원장: 김 창배

위 원: 김 천준, 황 기성, 조 현명, 김 기정, 최 석주, 이 태규, 정 기성,
 홍 중만, 안 익태, 조 선근, 김 차생

• 식장준비 분과위원회

위 원 장: 우 성원

부위원장: 임 현덕

위 원: 전 희문, 오 승률, 허 준, 김 한훈

• 회식(기념품)준비 분과위원회

위 원 장: 김 광철

부위원장: 최 석주

위 원: 황 창룡, 이 창업, 박 봉주, 전 순자

• 성경학교 설립준비 분과위원회

위 원 장: 신 계택

부위원장: 홍 중만

위 원: 이 창준, 위 영환, 이 동규, 김 광철, 김 기정, 김 창배, 임 현복,
 정 봉조

(2) 사 업

① 총현 20년사 편찬

② 기념행사

- 음악예배(청년·여성·대학부 성가대주최): 9월 2일(주일) 오후 7시 30분
- 음악예배(유년·초등·중등고등부 성가대주최): 9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 기념예배: 9월 6일(목) 오후 7시 30분
- 가족 찬송 경연대회: 9월 9일(주일) 오후 3시
- 성경암송대회: 9월 16일(주일) 오후 3시

• 성경학원 개교예배 : 9월 18일(화) 오후 7시 30분

③ 충현성경학원 설립

• 성경학원 설립 : 1973년 7월 29일

(3)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표창자

① 근속 20년	당회장 김 창인			
② 공로장로(정년 은퇴)	강 지순	오 중탁		
③ 장로근속 10년	우 성원	김 천준	김 광철	한 명옥
	황 기성	허 준	위 영환	김 한훈
	송 순일	조 현명		(10명)
④ 권사근속 10년	계 수익	구 경숙	윤 수현	김 대복
	이 성애	이 옥순	이 창옥	임 현복
	김 이순	최 경한	김 정수	김 학이
	양 순화			(13명)
⑤ 교사 근속 10년	최 석주	임 현덕	김 한홀	김 창배
	신 계택	김 경철	김 성주	조 선근
	박 창수	손 동운	신 영대	최 성림
	박 기련	박 선희	임 태주	(15명)
⑥ 설립 첫예배자중 참석자	김 천준	계 수익	이 학주	김 성주
	오 진국	안 종옥	원 경식	김 은주
	백 영순	김 계웅		(10명)
⑦ 특별 공로자	이 현실			

(4) 예 산

총예산 : 290만원

• 기념행사비 : 190만원

• 성경학원 설립 및 운영비 : 100만원

교회 주요일지

- 1953년 9월 6일 : 첫 예배(시내 인현동 한 명덕 집사택에서 18명이).
- 1953년 9월 12일 : 김 창인 전도사 취임.
- 1953년 10월 11일 : 시내 을지로 2가로 이전(이 창옥 권사택).
- 1953년 10월 11일 : 김 연순(여) 전도사 취임.
- 1953년 10월 26일 : 시내 충무로 5가 36번지 14명 건물로 이전.
- 1953년 11월 1일 : 유년주일학교 개교.
- 1953년 11월 24일 : 기독교학생면려회 조직.
- 1953년 11월 29일 : 임시건물(천막) 건립.
- 1953년 12월 12일 : 본관 건축 착공.
- 1953년 12월 16일 : 1954년도 초대 제직회 조직.
- 1953년 12월 22일 : 강 진선 목사 초대 당회장 취임(겸임).
- 1954년 1월 3일 : 주보 창간.
- 1954년 1월 17일 : 여전도회 조직.
- 1954년 1월 24일 : 고 홍봉 목사 2대 당회장 취임(겸임).
- 1954년 2월 28일 : 부산 동일교회에서 특별연보 47,000환 보내음.
- 1954년 5월 8일 : 당회 조직(고 홍봉 목사, 강 지순·위 성원·최 재성 장로).
- 1954년 5월 9일 : 강 지순·최 재성 장로 취임, 우 성원 장로 장립.
- 1954년 10월 10일 : 노 윤석 전도사 취임.
- 1954년 11월 21일 : 청년찬양대 조직키로하고 대장에 성 장수 집사 임명.
- 1954년 11월 21일 : 장 석인 목사 3대 당회장 취임(겸임).
- 1954년 11월 24일 : 기독교학생회(중·고등 학생) 조직.
- 1954년 11월 28일 : 청년찬양대 조직.
- 1954년 12월 11일 : 첫 세례식(세례 9, 유세 3, 학습13).
- 1955년 3월 27일 : 첫 유년부흥회(대구 서문교회 김 주오 장로).

- 1955년 8월 8일 : 강 진선 목사 4대 당회장 취임(겸임).
- 1955년 8월 15일 : 정식으로 본당 건축에 착공.
- 1955년 9월 4일 : 설립 2주년 기념예배.
- 1955년 9월 18일 : 노 윤석 전도사 사임.
- 1955년 10월 9일 : 홍 신균 전도사 취임.
- 1955년 11월 6일 : 첫 감사절 예배(신축 예배당에서).
- 1955년 12월 17일 : 본관 준공예배.
- 1955년 12월 24일 : 황 해성 · 박 창근 장로 취임.
- 1956년 1월 8일 : 청년면려회 조직.
- 1956년 1월 21일 : 김 지화 전도사 취임.
- 1956년 4월 8일 : 최 훈 전도사 취임.
- 1956년 4월 8일 : 김 지화 전도사 사임.
- 1956년 4월 30일 : 홍 신균 전도사 사임.
- 1956년 6월 9일 : 홍 수정 장로 장립.
- 1956년 7월 18일 : 문 춘운 전도사 취임.
- 1956년 8월 12일 : 동일교회를 충현교회로 개칭.
- 1956년 8월 16일 : 전 칠홍 목사 5대 당회장 취임(겸임).
- 1956년 9월 30일 : 첫 개척교회(청년회에서 시내 돈암동 성암교회).
- 1956년 11월 2일 : 심장마비로 별세한 사찰 교회장.
- 1956년 12월 18일 : 김 천준 장로 장립.
- 1956년 12월 18일 : 신년도 기구개편(서무부 · 종교 교육부 · 전도부 · 재무부 · 영선부 · 사업부 · 음악부).
- 1957년 1월 2일 : 남전도회 조직.
- 1957년 2월 일 : 시내 정능동 동암교회개척(남전도회).
- 1957년 9월 7일 : 김 창인 목사 6대 당회장 취임(전임).
- 1957년 12월 8일 : 대학생회 청년회와 통합.
- 1957년 12월 8일 : 중 · 고등부 통합하여 충현기독교학생회 조직.
- 1958년 1월 일 : 경기도 의정부시 중앙교회 개척(여전도회).

- 1958년 9월 21일 : 이 명달 원사 여전도사로 취임.
- 1958년 9월 30일 : 김 창인 목사 위임식.
- 1958년 9월 30일 : 본관 신축 낙성식.
- 1959년 1월 25일 : 시내 상도동 상도교회 개척(청년회).
- 1959년 4월 12일 : 충남 부여시 부여제일교회 개척(여전도회).
- 1959년 9월 13일 : 충북 옥천 세산교회 개척(교회 전도부).
- 1959년 10월 9일 : 김 광철 · 하 명옥 장로 장립.
- 1959년 12월 13일 : 상임서기에 최 재성 장로 임명.
- 1960년 2월 28일 : 어린이회 조직.
- 1960년 4월 7일 : 황 기성 장로 장립.
- 1960년 5월 1일 : 문 춘운 목사 사임.
- 1960년 10월 16일 : 고 정수 강도사 취임.
- 1960년 10월 23일 : 최 훈 강도사 사임.
- 1960년 12월 27일 : 청년회를 대학생회로 개명.
- 1961년 1월 1일 : 재정위원회 조직.
- 1961년 1월 1일 : 교육 연구위원회 조직.
- 1961년 1월 6일 : 조 천일 목사 취임.
- 1961년 3월 7일 : 별관 건축 착공.
- 1961년 4월 9일 : 허 준 장로 취임, 김 기원 · 위 영환 장로 장립.
- 1961년 6월 25일 : 상임서기에 최 석주 집사 임명.
- 1961년 9월 28일 : 별관 준공.
- 1961년 10월 일 : 시내 천호동 성인교회 개척(중 · 고등 학생면려회).
- 1961년 10월 일 : 시내 삼양동 삼양교회 개척(청년회).
- 1962년 2월 일 : 경기도 포천군 상리교회 개척(남전도회).
- 1962년 5월 22일 : 변소 착공.
- 1962년 7월 30일 : 변소 준공.
- 1962년 12월 6일 : 대학생회를 청년회로 개명.
- 1962년 12월 16일 : 우리교회 설립 10~20주년 표어로 「천국 일꾼을 키우자」 결정.

- 1962년 12월 16일 : 우리교회 장기 성구로 시 18 : 1 선정.
- 1963년 1월 5일 : 중학생면려회 조직.
- 1963년 1월 5일 : 고등학생면려회 조직.
- 1963년 4월 5일 : 이 득진 장로 취임, 조 현명 · 김 한홀 · 송 순일 장로
장립.
- 1963년 7월 7일 : 주일 낮예배 2부제 실시.
- 1963년 7월 30일 : 교회 대지를 위한 사택구입.
- 1963년 9월 19일 :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 1963년 9월 22일 :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가입.
- 1963년 11월 24일 : 임 승원 전도사 취임.
- 1963년 11월 24일 : 신 예철 전도사 취임.
- 1963년 11월 24일 : 제1회 겨울어린이성경학교.
- 1963년 12월 1일 : 성가대 후원회 조직.
- 1963년 12월 1일 : 부목사 제도 제정.
- 1964년 1월 1일 : 홍 성덕 전도사 취임.
- 1964년 1월 1일 : 이 정심(여) 전도사 취임.
- 1964년 2월 12일 : 고 정수 목사 권고 사임.
- 1964년 4월 20일 : 이 태규 집사 교회 상임서기로 임명.
- 1964년 5월 16일 : 윤 중순 장로 취임, 오 중락 · 김 기정 장로 장립.
- 1964년 9월 24일 : 조 천일 목사 도미.
- 1964년 10월 1일 : 한 제호 목사 취임.
- 1964년 10월 11일 : 대만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
- 1964년 12월 27일 : 신년도 교회 표어 성구로 잠 11 : 19을 선정.
- 1964년 12월 30일 : 김 연순·이 명달(여) 전도사 은퇴 및 공로전도사 추대.
- 1965년 1월 1일 : 각 지회와 4개부 재정을 자치제로 환원.
- 1965년 1월 1일 : 제직회 부서로 선교부 신설.
- 1965년 1월 1일 : 이 중윤 전도사 취임.
- 1965년 1월 25일 : 차 진형(여) 전도사 취임.

- 1965년 1월 26일 : 이 두란(여) 전도사 취임.
- 1965년 1월 27일 : 신 예철 전도사 사임.
- 1965년 2월 28일 : 홍 성덕 전도사 사임.
- 1965년 3월 16일 : 김 용찬 목사 취임.
- 1965년 3월 18일 : 송 병수 목사 취임.
- 1965년 3월 24일 : 경기도 고양군 장항 오리교회 개척(남전도회).
- 1965년 8월 2일 : 하기전도대 파송(충북 피곡교회로 청년부).
- 1965년 11월 19일 : 김 익화·전 희문 장로 취임, 윤 중성 장로 장립.
- 1966년 1월 1일 : 교육연구위원회 강화.
- 1966년 1월 1일 : 이 삼은 전도사 취임.
- 1966년 1월 1일 : 정 소영(여)전도사 취임.
- 1966년 3월 1일 : 여성성가대 조직.
- 1966년 3월 17일 : 오산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
- 1966년 3월 21일 : 한영중·고등학교와 자매결연.
- 1966년 5월 17일 : 경기노회에 가입.
- 1966년 5월 21일 : 제 1 회 경노회(청년부 주최).
- 1966년 6월 19일 : 김 창인 목사 서울지구 경목회 초대 회장에 피선.
- 1966년 6월 1일 : 시내 장성교회 개척(여전도회).
- 1966년 6월 26일 : 송 병수 목사 사임.
- 1966년 9월 20일 : 조 천일 목사 미국에서 귀국.
- 1966년 10월 30일 : 유년부를 유치·유년·초등부로 개편.
- 1966년 12월 18일 : 한 제호 목사 사임.
- 1967년 1월 1일 : 기획위원회 조직.
- 1967년 1월 1일 정 영옥(여) 전도사 취임.
- 1967년 1월 1일 : 유치부를 유치처로 하여 유년부 내에 둠.
- 1967년 2월 26일 : 이 정심(여) 전도사 사임.
- 1967년 2월 26일 : 김 의환 목사 취임.
- 1967년 3월 12일 : 조 해수 강도사 사임.

- 1967년 3월 19일 : 정 소영(여) 전도사 사임.
- 1967년 4월 2일 : 김 정덕 목사를 경목으로 파송.
- 1967년 4월 5일 : 김 창배 · 임 광식 장로 장립.
- 1967년 4월 7일 : 백 성룡 목사 취임.
- 1967년 4월 9일 : 정 기성 전도사 취임.
- 1967년 5월 23일 : 당회장 김 창인 목사 전국 경목위원장에 피선.
- 1967년 8월 13일 : 당회장 김 창인 목사 극동방송(H. L. K. X.)을 통한 방
송전도 시작.
- 1967년 8월 30일 : 고 박 회주 여사 교회장.
- 1967년 12월 17일 : 신년도 교회표어 성구로 시 71 : 14 선정.
- 1967년 12월 30일 : 교육연구위원회 폐지.
- 1967년 12월 30일 : 기획위원회 폐지.
- 1968년 1월 1일 : 신입부 신설.
- 1968년 1월 1일 : 유년부와 초등부를 완전 분리 독립.
- 1968년 1월 21일 : 천 성덕 전도사 취임.
- 1968년 1월 21일 : 예 종택 전도사 취임.
- 1968년 1월 21일 : 신 성중 전도사 취임.
- 1968년 1월 21일 : 지교회 피복교회에 민 보식 목사 파송.
- 1968년 2월 4일 : 극동방송(K. L. K. X.)방송전도 중단.
- 1968년 4월 17일 : 선교부흥회(청년회).
- 1968년 5월 5일 : 시내 상계동 상현교회 개척(여전도회).
- 1968년 5월 5일 : 신 옥희(여) 전도사 중부병원에 파송.
- 1968년 5월 26일 : 김 의환 목사 사임.
- 1968년 8월 4일 : 이 중윤 전도사 사임.
- 1968년 9월 3일 : 교회설립 15주년, 김 창인 목사 성역 31주년 기념예배.
- 1968년 9월 15일 :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에 교회요지 43,530명 매입.
- 1968년 10월 9일 : 상현교회(여전도회 지교회)에 김 창세 전도사 파송.
- 1968년 10월 9일 : 지 동방 장로 취임, 임 현덕 · 최 석주 · 신 계택 장로

장립.

- 1968년 10월 20일 : 새 성전 건축 계획.
1968년 10월 27일 : 김 용찬 목사 사임.
1968년 11월 24일 : 해외복음선교회 창립 총회.
1968년 11월 24일 : 신년도 표어 성구로 시 71 : 14—15을 선정.
1968년 12월 8일 : 조 천일 목사 초대선교사 추대.
1969년 1월 1일 : 건축위원회 조직.
1969년 1월 1일 : 충현동산 관리위원회 조직.
1969년 1월 1일 : 유치부, 유년부에서 완전 분리 독립.
1969년 1월 20일 : 제 1 회 교사학교 개교.
1969년 1월 25일 : 충현동산묘지 가사용 시작.
1969년 7월 7일 : 초대 집사 안수식(이 상순 · 공 용빈 · 오 승률 · 이 동규 · 신 태호 · 문 인택 · 윤 두한 · 이 창준 · 황 창용 · 이 태규).
1969년 7월 20일 : 신 성종 전도사 사임.
1969년 8월 25일 : 허 일찬 목사 취임.
1969년 10월 12일 : 임 승원 목사 사임.
1969년 10월 12일 : 교회동산묘지 300명 추가 매입.
1969년 12월 14일 : 시내 거여동 동현교회 개척(남전도회).
1969년 11월 26일 : 예 종탁 전도사 사임.
1970년 1월 1일 : 주일학교를 I부(신입 · 유치 · 유년 · 초등부), II부(중등 · 고등 · 대학 · 청년 · 장년부)로 개편.
1970년 1월 1일 : 새찬송가 전용 시작.
1970년 1월 1일 : 2년 과정의 성경통신학교 개교.
1970년 1월 4일 : 조 천일 목사 도미.
1970년 1월 5일 : 제직 특별훈련 시작(교회 간부훈련).
1970년 3월 1일 : 홍 종만 전도사 취임.
1970년 3월 22일 : 허 일찬 목사 사임.

- 1970년 4월 2일 : 재일교포 허 일찬 목사 목회 연구차 협동목사로 취임.
- 1970년 8월 3일 : 하기전도대 파송(충북 피곡교회, 충남 삼가교회, 경기 장락교회, 시내 동현교회, 경기 장파교회).
- 1970년 9월 20일 : 총회에서 선임된 서 만수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파송하기로 결정.
- 1970년 9월 20일 : 조 천일 목사 사임.
- 1970년 9월 24일 : 당회장 김 창인 목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제55대 총회장에 피선.
- 1970년 11월 22일 : 조 진연 · 이 봉섭 장로 증경장로로 선임.
- 1970년 11월 29일 : 제 2의 선교사로서 만수 목사 추대.
- 1970년 12월 8일 : 이 동규 · 이 창준 장로 장립.
- 1970년 12월 28일 : 최 순복(여) 전도사 취임.
- 1970년 12월 30일 : 교회 신축대지로 성동구 논현동에 9천평 매입.
- 1971년 1월 1일 : 교회구역울 동구 · 중구에서 동구 · 중구 · 서구로 분할
- 1971년 1월 1일 : 서 만수 목사 선교훈련차 대학부 지도로 취임.
- 1971년 2월 4일 : 정 상우 목사 취임.
- 1971년 5월 19일 : 당회장 김 창인 목사 대만 · 홍콩 · 일본 · 교계 순회차 출발.
- 1971년 6월 19일 : 홍 수정 장로 도미.
- 1971년 6월 28일 : 당회장 김 창인 목사 귀국.
- 1971년 7월 19일 : 지 동방 장로 도미.
- 1971년 8월 2일 : 하기전도대 파송(경기 장락교회, 동현교회, 충북 피곡교회, 충남 삼가교회, 경남 사천교회, 자천중앙교회).
- 1971년 9월 1일 : 정. 영옥(여) 전도사 사임.
- 1971년 9월 1일 : 백 진주(여) 전도사 취임.
- 1971년 9월 9일 : 서 만수 선교사 내외 인도네시아로 파송.
- 1972년 1월 1일 : 상설 지도자양성부 신설.
- 1972년 1월 1일 : 지 우목 전도사 취임.

- 1972년 2월 6일 : 제 1기 지도자 양성부 개강.
- 1972년 2월 7일 : 고 신 태호 집사 교회장.
- 1972년 4월 30일 : 만원권의 불상도안 당국에 반대 진의.
- 1972년 5월 28일 : 노 의일 전도사 취임.
- 1972년 7월 11일 : 제 1회 농어촌 하기전도요원 훈련 및 농어촌 교사 초청 훈련.
- 1972년 8월 9일 : 당회장 김 창인 목사 미국·인도네시아·일본에 집회 인도차 출국.
- 1972년 9월 10일 : 이 종표 강도사 사임.
- 1972년 10월 12일 : 천 성덕·정 기성·정 관일 목사 안수.
- 1972년 10월 22일 : 백 진주(여) 전도사 사임.
- 1972년 10월 30일 : 당회장 김 창인 목사 귀국.
- 1972년 11월 9일 : 이 태규·오 승률·황 창룡 장로 장립.
- 1972년 11월 9일 : 김 도점·이 창업·박 창수·이 웅선·윤 용규 집사 안수.
- 1972년 12월 16일 : 재단법인 충현동산 보사부 허가(제1545호).
- 1973년 1월 1일 : 신임부활 새신자부로 확장.
- 1973년 1월 1일 : 정 연희 전도사 취임.
- 1973년 3월 17일 : 한 명옥 장로 회갑기념으로 하몬드오르간 1대 헌납.
- 1973년 3월 18일 : 강 봉선(여) 전도사 취임.
- 1973년 3월 25일 : 정년제 제정(목사·장로·안수집사·권사는 70세, 여 전도사는 65세).
- 1973년 3월 25일 : 강 지순·오 중락 장로 공로장로로 추대.
- 1973년 4월 1일 : 선교사 후보생으로 이 종영(총회신학연구원 재학)선임.
- 1973년 4월 22일 : 김 중택 목사 취임.
- 1973년 6월 3일 : 제 3회 전교인 헌혈 실시(대한적십자사 주관).
- 1973년 7월 29일 : 「충현성경학원」 설립.
- 1973년 8월 20일 : 당회장 김 창인 목사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 60주년 연합대부흥 사경회 인도.
- 1973년 9월 6일 : 교회설립 20주년 기념예배.
- 1973년 9월 16일 : 「충현 20년사」 발간.
- 1973년 9월 18일 : 「충현성경학원」 개교.

편 집 일 지

<충현 20년사 발간 일지>

- 1973년 5월 27일 : 윤 종순 장로의 12명(장로 7명, 교역자 2명, 집사 3명)으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판 150페이지 내외로 하여 「충현 20년사」(약사)를 9월 중 3,000부 발간하기로 하다.
- 1973년 6월 3일 : 첫 편찬위원회 회의를 갖고 편집내용을 결정하다.
- 1973년 7월 8일 : 발간 계획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계획·집필·제작·자료수집 등의 실무담당자를 구성하다.
- 1973년 7월 10일 : 편집계획·일정계획·자료 정리지침·업무 분담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발간계획서를 작성하다.
- 1973년 7월 11일 : 당회원 및 각 기관장 앞으로 발간위취와 자료제공, 협조의 내용을 담은 공문서를 발송하다.
- 1973년 7월 18일 : 수집된 자료의 정리를 시작하다.
- 1973년 7월 25일 : 자료수집을 끝내다.
- 1973년 7월 30일 : 자료의 정리를 끝내다.
- 1973년 8월 1일 : 집필을 시작하다.
- 1973년 8월 4일 : 제작계획 및 제작일정 계획을 세우다.
- 1973년 8월 5일 : 원고 교정을 시작하다.
- 1973년 8월 19일 :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위원회에서 「차례」를 승인받다.
- 1973년 8월 20일 : 집필을 끝내다.
- 1973년 8월 26일 : 원고 교정 및 편집을 끝내다.
- 1973년 8월 27일 : 제작을 시작하다.
- 1973년 9월 2일 : 대내외 배포계획을 세우다.
- 1973년 9월 15일 : 제작을 끝내다.
- 1973년 9월 16일 : 대내에 배포하다.
- 1973년 9월 16일 : 당회원 및 각 기관장 앞으로 협조에 대한 감사공문을 발송하다.
- 1973년 9월 18일 : 출판기념 및 편집위원 실무자 간담회를 열다.

편 집 후 기

- …오늘의 「충현」을 말할 때 그 양적인 턴을 가리켜 어떤 이들은 기적이라고까지 말들을 한다. 것처럼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어디 있었느냐? 이 일을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강하신 역사가 우리 교회와 함께하셨다는 것이다. 이런 점, 우리는 남보다 더 큰,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 …교회설립 20주년! 시간적으로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 20년을 통해 하나님의 구축의 역사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한 보수신앙 위에 사랑과 믿음 그리고 눈물과 기도로써 성전을 쌓아올렸고 감격과 소망으로 세워진 「충현」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겪은 변동과 성장을 정사(正史)로 엮으면 방대한 역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20년 동안의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 줄거리만을 발췌하여 하나의 약사(略史)로 내어놓게 되었다.
- …이 일을 위하여 역사적인 각종 서류와 진실된 증언들을 종합·검토하다 보니 통일된 기록의 미비 혹은 기록조각 없어 20년사를 엮어보려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지만 주어진 여건 아래 모든 것을 사임별로 시대적인 흐름으로 표현하였다. 거기에다 각종 통계자료를 붙임으로써 성년을 맞이한 「충현」을 그 윤곽이나마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사실, 이런 중대한 일은 이 방면의 전문가에 의해 상세히 완벽을 기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이다.
- …앞으로 더 나은 「25년사」 혹은 「30년사」를 발간하기 위하여는 각기관을 망라한 연보(年報)를 발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느껴진다. 특히 보관되어야 할 서류 취급의 소홀과 서류의 규격이나 양식의 통일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통계에 둔감한 무의미한 기록 등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 …지금까지의 부흥과 성장—이것은 앞으로 일을 하기 위한 단계였다고 볼 때에 우리가 가진 꿈·환상(vision)은 심히 크지만, 그런 우리의 포부들을 이번에 다 밝히지 못하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아무튼 우리교회는 한국과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위탁하시는바 그 의무를 지고 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크게 나타나기를 힘써 기원해야 할 것이다. <조>

□ 충현 20년사 편찬위원회 □

위 원 장 : 윤 종순

부위원장 : 김 창배

위	원 :	김 천준	황 기성	조 현명	김 기정
		최 석주	이 태규	정 기성	홍 중만
		안 익태	조 선근	김 차생	
실	무 :	〈기획 감수〉 김 창배	조 현명		
		〈원고 집필〉 홍 중만	조 선근	정 은표	
		〈자료 정리〉 장 병기	김 인	안 정숙	
		이 혜숙			
		〈편집 제작〉 조 선근	정 은표		

총현 20년사

1973 년 9월 10일 인쇄

1973 년 9월 16일 발행

편집 총현 20년사 편찬 위원회

발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서울 중구 충무로5가 36

27-9937 · 9738

비메품

인쇄 성광인쇄사

중 30 원

1930년 10월 10일

1930년 10월 10일

중 30 원

중 30 원

중 30 원

중 30 원

중 30 원

